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046-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2021



문화체육관광부

이 보고서는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과 그 시행 결과를 수록한 것이며, 「국어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목 차

제1장 | 국어정책 개요

1

제1절 국어정책의 개념과 방향	3
1. 국어정책의 개념과 내용	3
2. 국어정책의 흐름과 방향	6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9
1. 국어기본법	9
2. 국어기본법 시행령	14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18
제3절 주요 국어정책 기관	20
1. 문화체육관광부	20
2. 국립국어원	23
3. 국립한글박물관	28
4. 세종학당재단	35
5. 국어심의회	40
6. 국어책임관	50
7. 국어문화원	55

제2장 | 국어사용 현황

59

제1절 공공언어 사용 실태	61
1. 개요	61
2. 공공언어 개선 사례	63
제2절 국어교육 현황	65
1. 국내 국어교육	65
가. 초·중·고등학교의 일반 국어교육 현황	65
나. 대학교 내 국어 관련 전공	68
다. 평생교육 문자 해독 관련 과정	69
2. 국외 국어교육	72

목 차

제3절 한국어교육 현황	73
1. 국내 한국어교육	73
가. 국내 한국어교육 기관 현황	73
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현황	73
2. 해외 한국어교육	78
가. 한국어 보급 기관	78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85
제4절 국외 한국어 사용 현황	88
1. 한국어 사용자 수	88
2. 한국어의 위상	89
3.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90
제5절 국어 관련 민간 단체 현황	92
1. 국어 관련 법인	92
2. 국어 관련 학술 활동 지원	95

제3장 | 국어 발전 기본계획

99

제1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01
1. 근거 및 목적	101
2.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절차	102
제2절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03
1.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03
2.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105
제3절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07
1.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07
2.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108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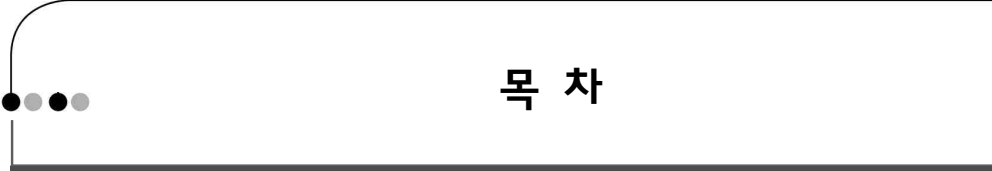


제4절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14
1.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배경	114
2.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16
3.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117

제4장 2021년 국어정책 시행 결과	123
------------------------------	-----

제1절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 기반 조성	125
1. 어문규범 현실화	125
2. 국어사전의 개방적 운영 및 활성화	127
3. 언어 정보 자원 구축 및 활용	129
제2절 바르고 편리한 언어 환경 지원	135
1. 공공언어 개선 활성화	135
2.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137
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140
4. 지역 언어문화 기반 국어문화원 활성화	143
제3절 국민 언어 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	145
1.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145
2. 특수 언어 환경 개선 및 보급 확대	146
3. 언어 취약 계층 지원	150
4. 사회·지역 방언 정보의 구축과 활용	152
제4절 한국어 확산과 교육 기반 강화	157
1. 국외 한국어 보급 대표 기관으로 세종학당 육성	157
2. 한국어교육 체계화 및 기반 강화	169
3.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운영 및 교원 연계망 구축	173
4. 한국어교원 연수 과정 운영	175
제5절 한글문화 진흥 및 향유 확대	179

목 차



- 1. 다양한 한글문화 자원의 수집 및 전시 179
- 2. 한글문화 연구·교육 및 산업화 기반 구축 183
- 3. 한글날 기념 및 한글문화 관련 포상 186
- 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187

제5장 | 2022년 국어정책 주요 추진 계획 189

-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정책 기반 조성 191
 - 1. 인공지능 개발 언어문화 산업 기반 구축 191
 - 2. 다양한 언어현실을 반영한 국어정책 기반자료 구축 193
 - 3. 이용자 수요에 맞는 국어사전 기능 강화와 언어자원 구축 194
- 제2절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196
 - 1.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생활 속 언어문화 기반 조성 196
 - 2. 공공언어 종합 평가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197
 - 3. 디지털 시대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지원 198
- 제3절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200
 - 1.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언어 복지 환경 조성 200
 - 2. 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203
 - 3. 남북 언어 소통 기반 마련 204
- 제4절 한국어 생태계 확장 206
 - 1. 한국어 교육기반 현지화 및 시장 확대 206
 - 2. 국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내실화 207
 - 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강화 209
- 제5절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210
 - 1. 한글문화 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전시교육 강화 210
 - 2. 한글문화 산업 육성 212
 - 3. 세계 문자 전시 교육 기능 강화 213

표 목 차

제1장

<표 1-1> 1991년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기관 직제에 명시된 국어정책 과제	6
<표 1-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국립한글박물관의 추진 과제	7
<표 1-3>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12
<표 1-4>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7
<표 1-5>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9
<표 1-6> 국어정책과 예산	22
<표 1-7> 국어정책과의 주요 업무	22
<표 1-8> 국립국어원 예산	24
<표 1-9> 국립국어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	25
<표 1-10> 국립한글박물관 예산	29
<표 1-11> 국립한글박물관 과별 주요 업무	30
<표 1-12> 2021년 한글문화 체험 교육 운영 현황	33
<표 1-13> 세종학당재단 예산	36
<표 1-14> 세종학당재단의 주요 사업	37
<표 1-15> 한국어 전문교원 파견 현황	38
<표 1-16> 국어심의회 설치 등 관련 주요 연혁	43
<표 1-17> 국어심의회 위상, 기능, 조직 변천	44
<표 1-18> 국어심의회 주요 심의 사항	44
<표 1-19>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15년 1월~'21년 12월)	47
<표 1-20> 국어책임관의 임무(「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51
<표 1-21>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	51
<표 1-22> 연도별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	54
<표 1-23> 전국 국어문화원 현황(2021년 12월 기준)	55
<표 1-24> 국어문화원 연혁	56
<표 1-25>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57

제2장

<표 2-1>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	61
<표 2-2> 2021년 공공언어 진단 평가 기준	62
<표 2-3> 공공언어 개선 사례	63
<표 2-4> 초등학교 교과(군)의 수업 시수	65
<표 2-5> 중학교 교과(군)의 수업 시수	66
<표 2-6> 고등학교 교과(군)의 단위 배당 기준	67
<표 2-7> 국어 관련 전공 개설 학과 수(2022년 기준)	68
<표 2-8> 유·초·중등학교 부설 성인 기초 문자 해독 프로그램 수	69
<표 2-9> 유·초·중등학교 부설 시도별 성인 기초 문자 해독 프로그램 수	69
<표 2-10> 대학(원) 부설 시도별 성인 기초 문자 해독 프로그램 수	70
<표 2-11> 대학(원) 부설 학교급별 성인 기초 문자 해독 프로그램 수	70

표 목 차

제2장

<표 2-12> 원격 형태 시도별 성인 기초 문자 해독 프로그램 수	71
<표 2-13> 해외 한국학교 현황(2021년 4월 기준)	72
<표 2-14>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및 대학내 한국어교육 기관 현황(2021년 12월 기준) ...	73
<표 2-15>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74
<표 2-16>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연도별 실시 현황(2021년 12월 기준) ...	74
<표 2-17>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및 교원 양성기관 현황(2021년 12월 기준) ...	77
<표 2-18> 대륙별 세종학당 운영 현황(2021년 기준)	78
<표 2-19> 지역별 한글학교 현황(2021년 5월 기준)	79
<표 2-20> 해외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80
<표 2-21> 해외 국기별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2021년 12월 기준) ...	80
<표 2-22> 해외 한국학 강좌 운영 현황(2021년)	82
<표 2-23>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합격자 현황	86
<표 2-24> 언어별 사용 인구(2021년 2월 발표)	88
<표 2-25>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90
<표 2-26> 제일 잘하는 언어	90
<표 2-27>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91
<표 2-28>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91
<표 2-29> 국어 관련 법인 현황 및 주요 사업(2021년 12월 기준)	92
<표 2-30> 국어정책 관련 학술 행사 지원 내용	95

제3장

<표 3-1> 3대 중점 추진 과제	103
<표 3-2>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104
<표 3-3>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108
<표 3-4>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117

제4장

<표 4-1> 『우리말샘』 연도별 일반인 참여 및 반영 건수	128
<표 4-2> ‘모두의 말뭉치’ 공개 자료	130
<표 4-3> 2021년 전문용어 민관 합동 총괄 지원단에서 마련한 표준안(일부) ..	136
<표 4-4> 최근 5년간 우리말 꿈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138
<표 4-5> 2021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주요 내용(중등)	139
<표 4-6>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2017년~2021년)	142
<표 4-7>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상담 건수(2017년~2021년)	142
<표 4-8> 국어문화원 주요 추진 사업(2021년)	144

표 목 차

제4장

<표 4-9> 2015년~2019년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145
<표 4-10> 북한어 균형 말뭉치 구축 현황	146
<표 4-11> 제1차 점자 발전 기본계획 개요	147
<표 4-12> 2021년 지원 지역아동센터 현황	151
<표 4-13> 국내 지역어 조사 지점 현황(2004년~2020년, 총 155지점) ...	152
<표 4-14>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탑재 정보	154
<표 4-15> 2021년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156
<표 4-16> 세종학당 지정 절차 및 일정	157
<표 4-17> 연도별 세종학당 지정 증가율(2021년 기준)	158
<표 4-18> 대륙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국가 현황(2021년 기준)	158
<표 4-19> 국가별 세종학당 설치 운영 현황(2021년)	159
<표 4-20>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인력 현황	166
<표 4-21> 누리-세종학당 이용 현황	167
<표 4-2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2차 중장기계획(2021~2025)	172
<표 4-23> 한국어 전문가 파견 현지 교원 연수회 개최 내역	178
<표 4-24>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 및 관람객 만족도(2015년~2021년) ...	183
<표 4-25> 국립한글박물관 '화요 한글문화강좌' 운영 내용(2021년)	184
<표 4-26>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년)	184
<표 4-27> 국립한글박물관 교육 참여 인원(2014년 10월~2021년 12월) ...	185

제5장

<표 5-1> 국어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단계별 추진 내용	194
<표 5-2>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추진 절차도	196
<표 5-3> 2022년 한국수어 발전 시행계획	201
<표 5-4> 2022년 점자 발전 시행계획	202
<표 5-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2차 중장기계획(2021~2025)	207
<표 5-6> 국립한글박물관 대중강연회 '화요 한글문화 강좌' 개최 계획(2022년) ..	211
<표 5-7> 한글사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변경 사항	212

그림 목 차

제1장

[그림 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조직도	21
[그림 1-2] 국립국어원 조직도	24
[그림 1-3] 세종학당재단 조직도	36

제2장

[그림 2-1]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76
[그림 2-2] 한국어능력시험 연혁	85

제3장

[그림 3-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102
[그림 3-2]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07
[그림 3-3]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16

제4장

[그림 4-1] 국어 정책 자료 누리집	126
[그림 4-2] 『쉽표, 마침표.』	127
[그림 4-3] 『우리말샘』 개통 당시 수록 규모 및 구성 내용	127
[그림 4-4] 『우리말샘』 과 『표준국어대사전』 화면	128
[그림 4-5] ‘모두의 말뭉치’ 공개(2021. 12.)	131
[그림 4-6] 말뭉치 통합 시스템 개념도	132
[그림 4-7] 2021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대회 포스터	133
[그림 4-8] 한글날 특집방송 ‘노래가 된 시’(한국방송, 2021. 10. 9.~10. 방영)	138
[그림 4-9]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교재(초등, 중등)	139
[그림 4-10]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 대표 화면	148
[그림 4-11] 수어 통역 제공 화면	150
[그림 4-12] 전국 지역아동센터 현황	150
[그림 4-13] ‘까끄라기’에 대한 지역어 지도	155
[그림 4-14] 세종학당 한국문화 교육 현장(2021년)	168
[그림 4-15] 2021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168
[그림 4-16] 2021 세종학당 비대면 지역별 워크숍	169
[그림 4-17] 개편한 한국어교수학습센터	171
[그림 4-18]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172
[그림 4-19] 2021년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NAKS) 집중 연수회 온라인 개최 영상	173
[그림 4-20] 한국어 예비 교원 국의 실습 사업 활동 영상(2021년)	174

그림 목 차



제4장

[그림 4-21]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수료식(2021년)	174
[그림 4-22] 배움이음터 실시간 화상 연수 운영 구성(2021년)	176
[그림 4-23] 찾아가는 배움이음터 온라인콘텐츠 2021년 개발 사례	176
[그림 4-24]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2021년)	177
[그림 4-25]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 학술대회 및 동문회	177
[그림 4-26] 디지털한글박물관	180
[그림 4-27]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2021년)	182
[그림 4-28] 2021년 한글주간	186
[그림 4-29]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	187

제5장

[그림 5-1]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199
[그림 5-2] 세대별 언어 차이(신조어 인지도, 지역어 사용 비중)	204



제1장 국어정책 개요

제1절 국어정책의 개념과 방향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제3절 주요 국어정책 기관

제1장 국어정책 개요

제1절 국어정책의 개념과 방향

1. 국어정책의 개념과 내용

말글은 생각과 혼을 담는 그릇으로 겨레 정체성의 근간이며, 고유의 말글로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발전시키므로 민족문화의 토대가 된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한다. 국어란 국민이 쓰는 말을 뜻하며, 순 우리말로는 나라말이라고 표기한다. 국어는 우리 문화를 살리는 생명 줄이며,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유일한 도구로서, 그 자체가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할 문화인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와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의 진입으로 국내외 언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외국어의 유입은 언어의 어휘 자원을 풍부하게 하여 언어 사용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어의 남용과 오용, 축약·변형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표현과 문법을 벗어난 통신매체 등을 통한 언어의 확산은 우리의 국어 사용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국어 생활을 어렵게 하여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언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언어문화개선, 쉬운 우리말 쓰기 등 국어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어기본법」상의 내용에 따르면 '국어정책'이란 '정부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펼치는 정책'을 말하고, 그 목적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 발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국어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국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어'란 '한 국가의 공용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개는 나라마다 하나의 언어를 국어로 삼고 있지만, 스위스나 인도처럼 여러 언어를 국어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물론 영어나 스페인어처럼 여러 나라의 국어로 쓰이는 언어도 있다. 우리는 대다수 한국인의 모어인 '한국어'를 '국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어'와 '한국어'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지만, 때로는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써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어'가 국어였으니 이 시기에 '국어'와 '조선어(한국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어'와 '한국어'는 구분되는 말이다.

우리에게 '(한)국어'는 '모어'이자 '자국어'이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관념이 스며있는 언어라는 점에서 '모어'이고, 한국인 대다수가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국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어 해외 보급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통해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국어'는 크게 '표준어'와 '지역어(방언)'로 나눌 수 있다. '표준어'는 서울말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용어로서 규범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어문규범을 통한 관리가 대표적인 표준어 정책이다. 아울러 지역어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으며 우리말을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에서는 '지역어의 보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국어'는 공적 영역에서 쓰이는 국어와 사적 영역에서 쓰이는 국어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적 영역에 대한 국어정책은 '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롭고 편리한 공적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국어 순화나 용어

표준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적 영역의 국어 활동은 언어 대중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외국어나 비속한 표현 등으로 국어 사용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국어생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어’와 한몫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한글’이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이다. 또한 모든 공문서등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한글의 가치를 널리 퍼뜨리는 일은 국어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사실 국어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도 국어에 포함된다. 그리고 국어를 적는 우리의 문자는 ‘한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점자’도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한국어와는 다른)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다. 이 법에서는 엄밀한 언어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어와 손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수어를 서로 별개의 언어 체계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좁은 의미의 국어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어를 한국인이 누리는 우리 고유의 언어 체계라 한다면 한국수어는 응당 한국어의 일부, 즉 우리 고유의 의사소통 체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점자법」에 따라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어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어와 한국수어 및 한글과 점자 그 자체를 보존, 발전시키고 이를 사용하는 언어 대중의 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올바른 국어정책은 우리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자양분이라 할 수 있다.

2. 국어정책의 흐름과 방향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은 국어 순화, 어문규범 정비, 한글 전용 문제 등 언어 대중의 일상적 언어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상의 언어 처리, 남북 언어 통일 문제, 사전 편찬 등이 새로운 국어정책 과제로 추진되었다.

<표 1-1> 1991년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기관 직제에 명시된 국어정책 과제

- 한글의 기계화 및 과학화 사업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제 규범
- 생활 언어 및 언어 순화에 관한 사항
- 한글의 역사적 변천과 방언의 조사 및 연구
- 남북한 언어 통일
- 신문·방송 언어의 사용
- 국어의 해외 보급과 해외 거주자의 국어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과 국어 관련 각종 사전의 발간
- 한자의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국어정책의 중심 기관인 국립국어원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국어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2004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언어정책에 관한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다.

2005년은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국어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린 해로 평가된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2006년에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07년~2011년)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년~2016년)을 수립하였다. 2016년에는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던 일부 정책 기능이 2009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2011. 6. 16. ‘국어정책과’로 변경)로 이관되면서 다시 한번 국어정책 수행 기관에 변화가 따른다. 여기에 더하여 2014년 10월 9일에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함에 따라 국어정책 수행 기관은 모두 셋으로 늘어났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따른 세 기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표 1-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국립한글박물관의 추진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국어·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 국어심의회 구성·운영 ○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 ○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 ○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 지역어 발굴 및 보전 ○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 ○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 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 ○ 한국어 보급 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 ○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 외국인·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책 ○ 어문 관련 단체 육성·지원
국립국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 및 통계 생성·수집 ○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연구 ○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 자원 구축·관리 ○ 국어·특수언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 ○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 올바른 국어의 보급, 언어 순화 활동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 국어·한국어·특수언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 관련 기관과 종사자를 위한 지원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 국내외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 한국어 교원·특수언어 교원 자격 부여 ○ 한국어·특수언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
국립한글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 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전시 및 자료 수집·보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람 안내 종합계획 수립·전시 안내 및 전시 콘텐츠 개발·운영 ○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발굴·고증 및 분석 ○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 소장 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운영 ○ 한글 자료 기증자 예우 ○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운영 ○ 한글도서관 시설 관리 및 운영,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 ○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한 나라의 언어정책은 나라 안팎의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 실태를 보면 국내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확산에 따라 전문 영역을 넘어서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국어의 사용 영역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심각한 외래어·외국어의 오·남용과 인터넷 통신 언어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국어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세대교체는 지역어와 민족 문화 생활어를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반대로 나라 밖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 국제적 위상 향상, 한류 등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의 증가로 언어 집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됐던 남북 화해 국면이 현재는 경색 국면으로 바뀌었으나 정치외교적 여건에 따라 언제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자동 번역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해 고품질의 말뭉치를 구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학계와 일반 국민들은 지식의 총체인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법의 시행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과 더불어 언어 취약 계층의 언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농인과 시각 장애인의 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이나 문해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빠른 언어 환경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국어정책은 이러한 언어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엄정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방안을 도출해냄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1. 국어기본법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시행 2005. 7. 28.)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시행 2008. 2. 29.)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3호(시행 2008. 3. 28.)
일부개정	2009. 3. 18. 법률 제9491호(시행 2009. 3. 18.)
일부개정	2011. 4. 14. 법률 제10584호(시행 2011. 4. 14.)
일부개정	2012. 5. 23. 법률 제11424호(시행 2012. 8. 24.)
일부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시행 2013. 3. 23.)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25호(시행 2017. 9. 22.)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589호(시행 2020. 5. 27.)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49호(시행 2021. 12. 16.)
일부개정	2022. 1. 18. 법률 제18761호(시행 2022. 1. 18.)

가. 「국어기본법」 개관

「국어기본법」(법률 제7368호, 2005. 7. 28. 시행)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기본 이념하에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한국어 및 한글과 관련된 법령을 한곳에 모으고 새로운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우선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어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어정책의 수립을 위해 국민의 국어능력과 언어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였다. 또한 이 법의 제정으로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2008년 3월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한글 관련 주요 법령이었지만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국어기본법」이 명실상부한 국가 단위의 국어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으로 국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연구 지원, 교육의 기본 틀을 정하고 보급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나. 「국어기본법」 연혁

「국어기본법」은 정부 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2002년 10월 9일에 발표된 ‘국어 발전 종합계획’에 「국어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2003년 1월 13일에 ‘국어기본법 입법 소위원회’(위원장: 홍운표 연세대 교수)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2월 28일에 「국어기본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4년 12월 7일에는 국회 문광위를,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고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2005년 1월 27일에 법률 제7368호로 공포되었고,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국어기본법」은 제정 이후 총 8번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제1차 개정안(법률 제8852호, 2008. 2. 29. 시행)과 제6차 개정안(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은 타법(「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3차 개정안(법률 제9491호)은 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다. 제4차 개정안(법률 제10584호, 2011. 4. 14. 시행)은 법제처에서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것으로 이 역시 내용상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제2차 개정안(법률 제9003호, 2008. 3. 28. 시행)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국어상담소’가 국어 관련 전화 상담만을 하는 시설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고자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가자격시험 관리를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검정 전문기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 규정을 확대하였다.

제5차 개정안(법률 제11424호, 2012. 5. 23. 시행)에는 한국어 보급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7차 개정안(법률 제14625호, 2017. 9. 22. 시행)에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제8차 개정안(법률 제16589호, 2020. 5. 27. 시행)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자격의 취소 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9차 개정안(법률 제18249호, 2021. 12. 16. 시행)에는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기록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으로 정의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야 하는 기관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을 추가한 ‘공공기관등’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제10차 개정안(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시행)에는 국어발전 기본정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 누락되어 있던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다. 「국어기본법」의 의의

「국어기본법」 이전에는 국어와 관련된 규정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서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1946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으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컸다. 「문화예술진흥법」 역시 국가는 국어정책을 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어문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어심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국어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국어기본법」은 ‘국어’는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이고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라는 점을 공식화하였고,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공문서에서의 한글 전용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위적 규제 및 단속 등에 관한 조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국어’와 ‘한글’의 정의	제3조	○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이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어의 보전과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8조	○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시행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분류	조항	주요 내용
실태 조사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의식, 국어능력,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국어책임관 지정	제10조	○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함
어문규범의 제정	제11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1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국어심의회	제13조	○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둠
공문서 작성·평가	제14조	○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해 매년 평가·공개해야 함
국어문화의 확산	제1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국어 정보화 촉진	제1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전문용어의 표준화	제17조	○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어야 함
국어의 보급 등	제1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세종학당재단 설립	제19조의 2	○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함.
자격취소	제19조의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한글날	제20조	○ 정부는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함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제2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균등을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함

분류	조항	주요 내용
국어능력의 검정	제23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국어문화원의 지정	제24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각종 상담 등에 응할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음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시행 2005. 7. 28.)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시행 2008. 2. 29.)
일부개정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시행 2008. 10. 20.)
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시행 2011. 6. 15.)
일부개정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시행 2012. 5. 1.)
일부개정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시행 2012. 8. 24.)
일부개정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4호(시행 2013. 1. 16.)
일부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3호(시행 2013. 3. 23.)
일부개정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2호(시행 2014. 7. 16.)
일부개정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72호(시행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0호(시행 2015. 11. 30.)
일부개정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9호(시행 2015. 12. 31.)
일부개정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06호(시행 2017. 9. 22.)
일부개정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21호(시행 2019. 1. 1.)
일부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시행 2021. 1. 5.)
일부개정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7호(시행 2021. 12. 16.)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관 및 연혁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73호, 2005. 7. 28. 시행)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어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살려서 내용을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3개 조(전문 19개 조, 부칙 4개 조)를 제정·공포하였다.

「국어기본법」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제정 이후 모두 15차례 개정이 되었다. 이 가운데 제1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0676호), 제2차(대통령령 제21087호), 제4차(대통령령 제23759호), 제6차(대통령령 제24314호), 제7차(대통령령 제24453호), 제11차(대통령령 제26839호), 제13차 개정 개정안(대통령령 제29421호), 제14차 개정안(대통령령 제31379호)은 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제3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2539호, 2011. 6. 15. 시행)은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마련할 근거를 규정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였다. 후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만 한정했던 것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하였다.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학 등으로부터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적합 여부를 신청 받아 그 운영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4053호, 2012. 8. 24. 시행)에서는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국어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세종학당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때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제8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5472호, 2014. 7. 16. 시행)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 8. 7. 시행)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9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5872호, 2014. 12. 23. 시행)에서는 ‘세종학당 정책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협의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 범위를 변경하였다. 위원은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및 한국어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제10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6680호, 2015. 11. 30. 시행)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어심의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제12차 개정안(대통령령 제28306호, 2017. 9. 22. 시행)에서는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직위를 홍보 담당 부서의 장에서 홍보 또는 국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확대하였고,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5차 개정안(대통령령 제32207호, 2021. 12. 16. 시행)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을 평가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공문서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어기본법」의 정신과 제도적 운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국어가 문화 창조와 발전을 선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국어 실태 조사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의 세부 내용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 실시 후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보 또는 국어 담당 부서장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함 ○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실적과 자체 평가 결과를 매년 보고하여야 함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규범 영향평가의 세부 내용 규정 ○ 어문규범 제·개정 시 미리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국어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국어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전문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 국어심의회 아래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함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시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음
공문서등의 평가	제11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문서등의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함
전문용어의 표준화, 체계화	제12조, 제12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5~20명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에서 확정하여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하고 활용해야 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제13조~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자격 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의 이수, 한국어교육 경력이나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1급부터 3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함
세종학당정책 협의회 운영 등	제14조의 2~제14조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의 구성, 운영, 수익사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한글날 기념행사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발전유공자를 포상하고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음
국어문화원의 지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문화원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국어문화원은 전년도 사업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시행 2011. 6. 30.)
일부개정	2015. 11.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1호(시행 2015. 11. 30.)
일부개정	2015.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시행 2015. 12. 31.)
일부개정	2017. 12.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2호(시행 2017. 12. 12.)

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관 및 연혁

「국어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1. 6. 30. 시행)은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승급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29호) 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따라 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심사 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은 제정 이후 3차례 개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제2차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은 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제1차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1호, 2015. 11. 30. 시행)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두었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다.

제3차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2호, 2017. 12. 12. 시행)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나.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기준	제2조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성 여부,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 규정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등 고시	제2조의 2	○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 등	제3조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 제4조의 2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 임기 및 심 의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제5조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제6조	○ 한국어교원 전공 대학(원) 및 양성 과정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제3절 주요 국어정책 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가. 국어정책과 설립 목적 및 연혁

국어정책은 1948년부터 1989년까지 문교부에서 담당해 오다가 1990년부터는 문화부(1989년 12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로 이관되었다. 1990년 3월 6일에 문화부의 직제 개정으로 어문출판국 어문과를 신설하여 말과 글에 관한 정책을 문화정책의 영역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국어정책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정책의 하나로 그 지향점이 바뀌었음을 뜻한다. 이와 함께 ‘국어연구소’(문교부 산하 학술원 부설, 1984. 5. 10. 설치)도 「정부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에 따라 문교부(1990. 12. 27. 교육부로 명칭 변경)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직제」(대통령령 제13163호, 1990. 11. 14.)에 따라, 1991년 1월 23일 문화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로써 국어정책은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은 문화부 본부의 어문과가 담당하고, 정책 수립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기능은 국립국어연구원이 담당하는 체제로 수행해 왔다. 이후 어문과는 1994년 5월 4일에 어문출판국이 폐지됨에 따라 문화정책국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1997년 3월 20일에는 다시 국어정책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동안 어문과 및 국어정책과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우리 말과 글의 체계적 정리 보급, 우리 말과 글의 해외 보급, 우리 말과 글의 정보화·과학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국어심의회 운영, 어문 연구 관련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0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정책과’에서 ‘국어민족문화과’(2006. 7. 25. 국어민족문화팀으로 변경, 2008. 3. 6. 국어민족문화과로 변경)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2011년 6월 16일 부서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조정과 국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시 ‘국어정책과’로 변경되었다. 2011년 6월 ‘국어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담당

아래 있는 문화예술국의 문화정책관 담당으로 되어 있다가, 2013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3년 3월 25일 문화예술국이 문화정책국과 예술정책국으로 분리되면서 문화정책국 소속이 되었다. 2014년 10월에는 문화예술정책실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소속이 되었다.

‘국어정책과’는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의 보존·발전에 관한 법령·제도를 정비하며,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나. 조직 및 예산

1) 문화정책관 조직

2021년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어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는 ‘국어정책과’이다. ‘국어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담당의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소속이다.



[그림 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조직도

2) 예산

<표 1-6> 국어정책과 예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	2021	2022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64,475	89,198	98,113	8,915	10.0
□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지원	118	157	195	38	24.2
합 계	64,593	89,355	98,308	8,953	10.0

다.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국어정책과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7> 국어정책과의 주요 업무

일련 번호	주요 업무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국어·언어 관련 법령·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 기관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6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2. 국립국어원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는 학술원 산하의 임의 연구 기관으로 1984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안국동 148번지)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에 따라 문화부가 신설되고 어문 정책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국어연구소의 위상 제고는 1990년도 문화부의 주요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1990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3163호에 따라 서무과, 연구 1부, 연구 2부, 연구 3부의 정원 35명으로 직제가 확정됨에 따라 1991년 1월 23일에 문화부 소속기관으로서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합리적인 국어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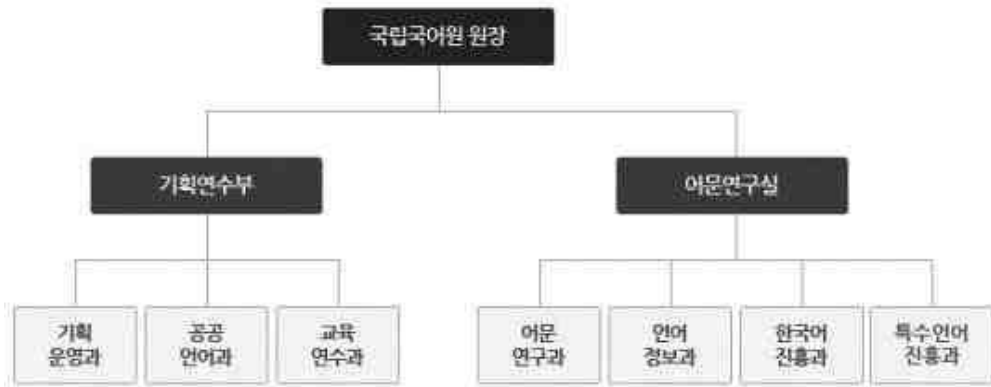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11월 11일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연구 중심 기관에서 정책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국어정책 및 연구 통합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9년 4월 17일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정책 집행 업무가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고,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과 연구 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어문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어생활에 필요한 어문규정을 관리하며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자유롭고 편리한 소통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고 있다.

나. 조직 및 예산

1) 조직

국립국어원은 1부(기획연수부), 1실(어문연구실), 7과(기획운영과, 공공언어과, 교육연수과, 어문연구과, 언어정보과, 한국어진흥과, 특수언어진흥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3명(연구직 32명)이며 현원은 51명(연구직 31명)이다.



[그림 1-2] 국립국어원 조직도

2) 예산

<표 1-8> 국립국어원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2021	2022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사업비	16,729	18,583	20,639	2,056	11.06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8,818	10,833	11,535	702	6.5
○ 국어원 청사관리	1,489	1,622	1,797	175	10.8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구축	1,301	1,196	1,293	97	8.1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4,515	4,340	4,554	214	4.9
○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정보화)	606	592	1,460	868	146.6
□ 인건비	3,784	3,602	3,863	261	7.2
□ 기본경비	376	380	385	5	1.3
합계	20,889	22,565	24,887	2,322	10.3

다.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278호, 일부개정 2020. 12. 22.) 제36조~제39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4호 일부개정 2020. 12. 22.) 제24조~제25조에 따른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9> 국립국어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업무
기획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및 관인 관리 -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국회 관련 업무, 예산·회계 및 결산 -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감사 관련 업무 -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보급 -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공언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어문연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등에 대한 조사·연구 -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국어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언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 조사 - 언어와 문자의 정보자원 구축·관리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이나 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 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한국어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 기관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부서	주요 업무
특수언어 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특수언어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에 관한 사항 - 특수언어에 대한 교육·연수, 교원 자격,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특수언어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 특수언어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특수언어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특수언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국민의 표준적 언어생활 지원과 한국어 자료 집대성

국립국어원은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어·언어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어정책 및 국어학 분야와 관련된 정책 통계를 생성·수집하여 변화하는 언어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언어와 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 말과 글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어문규범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문규범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국어 분야 학술 교류,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표준적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검색 시스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온라인가나다 등의 누리집과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어사전, 각종 외래어 표기 및 로마자 표기 등 언어 자료, 4대 어문규범, 언어 예절 등 국어 관련 자료 제공과 안내 서비스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의 언어문화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여 통합 관리하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말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한국어 자료를 110만 단어 규모로 수집·관리·제공하여 사용자의 언어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특화 사전 개발 및 문화 콘텐츠의 핵심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국어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급을 위해 대규모 국어 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 국민의 언어생활과 직결된 공공언어 지원 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언어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문, 안내문, 보도자료 등 각종 공문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수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서식과 문서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공공언어 감수, 전문용어 상담, 공공언어 국민제보, 다듬은 말 등의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정책 혼선 방지와 대국민 소통 기능 향상을 위해 각 부처 간 또는 부처 내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낱선 외래 용어를 신속하게 우리말로 다듬어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초·중·고 교과서 언어의 표현·표기 감수, 원활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 연구,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공용어 번역 표준안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소식지인 『섬표, 마침표』와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어에 관한 다양한 교양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국어 전반에 관한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는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5일간의 집중 과정인 전문교육과정인 대표적이다. 또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 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공공언어 향상 과정 등 대상별·내용별 단기(1~2일 과정) 특화 과정인 특별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스스로 국어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국어 강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4) 국내외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국어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등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민자·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 및 재외동포,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외국인 등 학습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교원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는 등 국내외 한국어 교수학습 수요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과 이를 11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이어, 프랑스어)로 번역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운영하고 있다.

5) 그 밖의 국민 언어생활 지원 서비스

언어 취약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점자 규정 정비, 온라인 점자 학습 콘텐츠 개발, 점자 표기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민 언어권 보장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수어사전 편찬, 한국수어 문화정보 해설 자료 제작,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한국수어 문법 및 교재 개발, 공공수어 통역 지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어 어문규정을 비롯하여 언어생활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전화 상담(가나다 전화, 1599-9979)’과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실(온라인 가나다)’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국어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는 등 국민의 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맞춰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3. 국립한글박물관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글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따라 2009년 12월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0월 9일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에 총면적 11,322㎡ 규모의 ‘국립한글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보존·확산·재창조하는 것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이야기가 있는 전시’로 한글문화의 이해를 넓히는 상설전시실, 한글문화와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실험하는 기획전시실, 어린이들이 한글의 원리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한글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한글 자료를 조사·수집·보존·전산화하는 한편,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을 미래 지향적으로 재창조하여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문화 사업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나. 조직 및 예산

1) 조직

국립한글박물관은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 3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41명(연구직 19명)이다.

2) 예산

<표 1-10> 국립한글박물관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2021	2022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사업비	11,942	15,160	12,711	△2,449	△16.2
○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4,139	3,934	5,216	1,282	32.6
○ 한글박물관 전시	2,766	6,518	2,001	△4,517	△69.3
○ 한글문화 연구·교육	1,655	1,491	1,422	△69	△4.6
○ 한글문화자원 확충	3,382	3,217	4,072	855	26.6
□ 인건비	2,706	2,686	2,917	231	8.6
합계	14,648	17,846	15,628	△2,218	△12.5

다.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278호, 일부개정 2020. 12. 22.) 제67조의 6~제67조의 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2호) 제40조의 4에 따른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11> 국립한글박물관 과별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업무
기획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추진 -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조직·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국회·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보안 및 관인 관리 -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홍보 및 홍보 자료의 발간 -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및 고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 박물관 문화사업 기획·운영 -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시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및 자료 수집·보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상설·기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 전시실의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관람 안내 종합계획 수립·전시 안내 및 전시 콘텐츠 개발·운영 -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 소장 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 소장 자료의 대여·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한글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운영 -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연구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발굴·고증 및 분석 -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 학술·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보급 - 한글 관련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 한글문화 자원의 조사, 수집, 보존, 관리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창제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글 및 한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영구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시·연구·교육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공유한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훈민정음 창제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대표하는 78,265점(구입 58,268점, 기증 19,997점)의 한글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보물 8점, 등록문화재 17점, 서울시 유형문화재 4점, 서울시 등록문화재 220점 등 총 18건 249점의 한글 관련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말모이 원고』와 「훈맹정음」 등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자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문화재들이다. 「훈맹정음」은 박두성(1888~1963) 선생이 창안한 국내 최초의 6점식 점자로, 일제강점기에 시각장애인들이 한글과 같은 원리를 통해 점자를 익히도록 한 것이다. 국문으로 발간된 「경향신문」(1906~1910년)은 한일합병 조약 이후 폐간되기 전까지 국민계몽과 국문 대중화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이 외에도 『선종영가집언해』(간경도감본), 『범망경』(고려시대 구결본), 『천지명양수륙잡문』(인경목활자본) 등 국가지정문화재급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수집한 한글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한글문화자원 포털 ‘디지털한글박물관’이 대국민 창구로서 소장 자료 원문 데이터베이스(2,737점)와 한글문화인물 구술 채록 자료(52명, 159시간), 각종 박물관 사업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소장 자료는 상태 조사 및 훼손도 등급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를 하고 있다.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온습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 유해 생물 관리(IPM), 훈증 처리 등을 실시하여 예방 보존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훼손된 자료의 경우 과학적 보존 처리를 실시하여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한글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류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 사업과 학습용 자료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2014년 이래로 훈민정음의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관련 보고서 22종을 발간하였으며, 이 중에서 『훈민정음 해설서』, 『쉽게 읽는

훈민정음』, 『초등학생용 멀티미디어 훈민정음 해설서 및 지도안 개발』 등 대중서는 별도 발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에 배포하였다. 한글 자체의 연구도 꾸준히 추진하여 『한글과 동아시아 문자 비교 연구』, 『근대 신어휘 연구』 등 지금까지 12종의 보고서도 발간하였다. 아울러 한글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글문화 관련 학술대회 지원 및 추진, 학술지 발간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소장자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관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장자료 총서』도 꾸준히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한편 기획 전시의 기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토대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시 주제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글꼴 연구와 산업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근대 시기 한글 출판물의 가치 제고와 관심 촉진을 위한 『한글 제호 자료집』을 3종 발간하였으며, 한글 폰트 검색과 자동 검사 기능을 제공하는 <한글꼴큰사전>을 2018년에 공개하여 운영 중이다.

3) 한글문화를 토대로 한 전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역사와 다양한 한글문화를 국내외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상설전시와 연간 3~4회의 기획 특별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상설전시 ‘한글이 걸어온 길’은 ‘1부: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2부: 쉽게 익혀서 편히 쓰니’, ‘3부: 세상에 널리 퍼져 나아가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시는 한글의 창제 배경과 과정, 한글이 전파되어 삶에 뿌리내린 모습과 현대 디지털 시대의 한글까지 한글의 지나온 역사를 실물 자료 중심으로 재조명함과 동시에 오늘날 한글문화의 다양성과 한글의 미래 가치를 조망하고 있다.

개관 이후 상설전시 각 부의 전시 환경을 꾸준히 개편하면서 그동안 수집한 중요 한글 자료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기획 특별 전시를 통해 개발한 ‘한글 문학’, ‘한글 디자인’, ‘한글 정보화’ 등의 다양한 한글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오늘날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 특별 전시는 ‘한글 문화사’, ‘박물관 소장품’, ‘한글실험프로젝트(한글 디자인)’ 3가지 분야로 특성화하여 한글과 한글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문자혁명: 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 <친구들이 잘 있었니? - 교과서 한글 동화>, <이내말삼 드러보소, 내방가사> 등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지역순회전 <노랫말-선율에 삶을 신다>를 부산박물관과 국립세종도서관에 이어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민에게 한글문화 향유 기회 확대하고 한글과 한글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였다.

4) 소통과 공감의 한글문화 교육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장애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글의 가치와 한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박물관의 소장 유물을 통해 한글문화를 만나보고, 읽기·쓰기·만들기·그리기 등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한글문화를 매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게 된다. 2021년 한글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2> 2021년 한글문화 체험 교육 운영 현황

(단위: 회·편/명)

구분	대상	연번	교육명	운영 회수	참여 인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1~12 원격 교육, 13 현장(국외) 교육)	초등 동반 가족 (방학)	1	역사로 온 한글 이야기	12회	1,041명
		2	소설로 온 한글 이야기	12회	336명
		3	예술로 온 한글 이야기	24회	1,699명
		4	우리 한글 멋지움	14회	769명
		5	친구들아, 잘 있었니?	8회	231명
	초등 단체 (학기중)	6	한글 보따리 1	35회	1,516명
		7	한글 보따리 2	35회	1,271명
		8	한글 보따리 3	36회	1,585명
		9	전설의 이야기꾼	19회	721명
		10	한글이 보이는 라디오	8회	190명
	중등 단체 (학기중)	11	반듯하게 쓰는 한글	12회	323명
	외국인 단체	12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	45회	961명
		13	한글×디자인	-	614명
영상 및 학습 자료 배포	중등 단체	14	붓으로 만나는 한글	55회	10,904명
	세종학당	15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국/영문)	-	539명
온라인 영상 콘텐츠	유아·초등 동반 가족	16	반짝 반짝 빛나는 한글	1편	775명
		17	우리 한글 멋지움	1편	1,295명
		18	박물관 속 한글 탐험	1편	3,160명
		19	박물관 속 한글 탐험(수어판)	1편	792명
		20	한글 숲에 놀러와	1편	1,127명
	21	조물조물 색깔놀이	1편	2,154명	
	외국인	22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국/영문)	2편	869명
합계				323	32,872

5)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하는 문화 서비스

국립한글박물관은 국민들이 친근하게 자주 찾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매년 한글을 기념하는 주요 기념일인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과 한글날(10월 9일)이 있는 주간은 한글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집중 행사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문화 공연, 체험 행사, 공모전,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한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람 환경 변화에 따라 집에서 편히 즐길 수 있는 상설전 주요유물 해설과 기획전 해설영상을 제공하는 등 한글문화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소장자료 강연회’를 개최하여 옛한글 자료를 쉽게 소개하고 음식, 문학 등 다양한 생활문화와 접목하여 청중들에게 한글과 한글문화의 의미를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공모전’을 진행하여 한글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전시·교육·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대내·외에 꾸준히 알리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체계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2014년 개관 이후부터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프랑스 리옹인쇄 그래픽 커뮤니케이션박물관 등 국내·외 12개 이상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시, 학술행사 등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유럽인쇄박물관협회(AEPM) 등의 국제회의 활동을 통해 한글과 한글박물관에 대한 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 라이프치히도서관 등과 대표적 전시 및 자료에 대한 영상을 상호 교환하여 SNS에 게재하는 등 교류 활동을 전개하였다.

4. 세종학당재단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관리하는 세종학당재단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한글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9년 7개 부처 합동으로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세종학당 관련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2012년 5월 23일에는 ‘세종학당재단’ 설립,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어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아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2. 8. 22.)되어 시행령 제14조의 2(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4조의 3(협의회의 운영), 제14조의 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가 마련되었다.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세종학당재단 임원 임명식 및 창립총회가 2012년 10월 11일에 열렸으며, 세종학당재단은 2012년 10월 24일에 공식 출범하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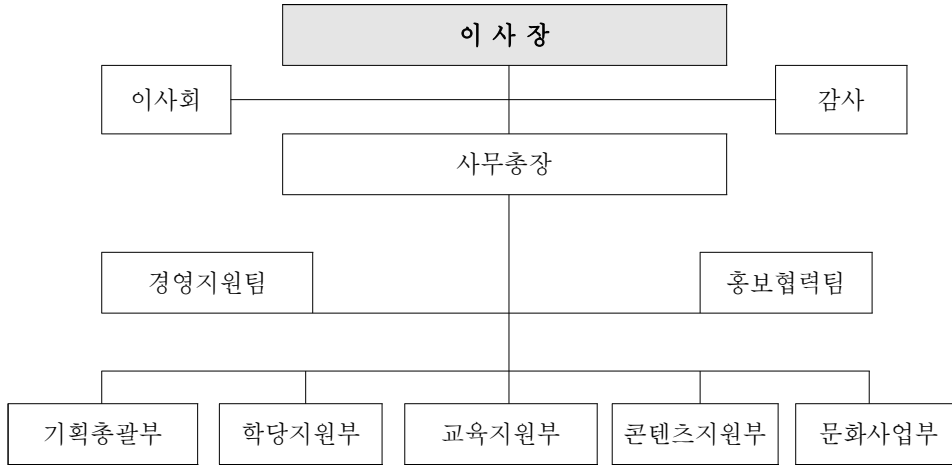
나. 조직 및 예산

1) 조직

세종학당재단은 경영지원팀, 홍보협력팀, 기획총괄부, 학당지원부, 교육지원부, 콘텐츠지원부, 문화사업부의 5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현재 정원은 45명(무기계약 한국어교원 및 직원 55명 별도)이다.

1) 2012년 10월 17일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등기를 함과 동시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해산되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 관계를 세종학당재단이 승계하였다.[법적 근거: 「국어기본법」(법률 제 11424호, 2012. 5. 23. 일부개정)의 부칙 제2조(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어세계화재단은 2001년 한국어 세계화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등록 법인인데, 그동안 한국어 학습용 교재 개발·보급, 한국어교육능력 인증시험(2002년~2004년) 시행,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시험(2005년 제1회~2007년 제3회) 위탁 시행, 한국어 학습자용 포털사이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1-3] 세종학당재단 조직도

2) 예산

<표 1-13> 세종학당재단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2021	2022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세종학당 운영 지원	31,841	37,716	39,618	1,902	5
○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내실화	10,725	11,569	14,231	2,662	23
○ 세종학당 교원 전문성 강화	9,665	11,666	13,443	1,777	15.2
○ 세종학당 문화교류 활성화	2,810	2,671	2,671	0	0
○ 세종학당 학습 지원 강화	8,641	11,810	9,273	△2,537	△21.5
□ 세종학당재단 운영 지원	3,549	4,788	5,221	433	9
□ 세계한국어대회 개최	600	-	-	-	이관
□ 신남방·신북방 한국어 확산기반 현지화	-	8,791	8,251	△540	△6.1
○ 현지교원 양성과정 운영 지원	-	910	1,261	351	38.6
○ 한국어 교원 현지화 지원	-	5,390	5,390	0	0
○ 세종학당 통·번역과정 개발 운영	-	2,491	1,600	△891	△35.8
□ 메타버스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	-	1,100	1,100	순증
합 계	35,990	51,295	54,190	2,895	5.6

다. 주요 사업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1-14> 세종학당재단의 주요 사업

기관	주요 업무
세종학당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외국인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외국인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세종학당 지원 및 운영 역량 강화

한류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외 한국어교육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에 세종학당을 지정하고, 세종학당의 안정적인 한국어 교육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총 82개국 234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현지 대학 등에 개설된 일반 세종학당이 172개소, 재외 한국문화원에 개설된 세종학당이 31개소,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세종학당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 따라 체계적인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전 세계 세종학당 어디서나 동일한 과정의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에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를 보급하고 있으며 현지 세종학당 학습자의 학습 수요 대응 및 내실 있는 교육운영에 기여하고자 『세종한국어 회화』, 『세종한국문화』 등 다양한 교재들도 보급하고 있다. 또한 표준 교재를 기반으로 언어권별로 번역본과 익힘책, 문화 교구 등 보조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 목적을 가진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행한국어』, 『비즈니스한국어』 등 특수 목적용 부교재도 함께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세종학당의 한국문화 보급 확대를 위해 ‘세종문화아카데미’를 추진하였다. 한국문화 전문가를 활용한 고품질 한국문화 보급

프로그램인 ‘세종문화아카데미’를 통해 35개국 46개소에서 총 14,837명의 수강생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비대면 환경에 대응하고 한국문화 보급을 다변화하기 위해, 세종문화아카데미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56개국 148개소 학당 및 총 14,313명의 일반 외국인들이 수강하였다.

세종학당 수강생의 장학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매년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선발을 위해 개최되는 “세종학당 말하기 대회”를 쓰기 분야까지 확장하였고, 세종학당 수강생 외에도 지역 사회의 한국어 학습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종학당 말하기·쓰기 예선 대회” 개최를 통해 244명의 우수학습자를 선발하고, 대회 부상을 제공하였다. 특히, 최종 결선 대회에 진출한 16명의 우수학습자에게는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종학당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세종학당에 대한 주기적인 운영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학당 운영 내실화와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전문성 강화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전 세계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표 1-15> 한국어 전문교원 파견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파견인원	24명	39명	50명	90명	119명	125명	140명	180명	232명
파견기관	15개국 22개소	17개국 32개소	22개국 36개소	31개국 65개소	35개국 75개소	40개국 79개소	41개국 83개소	52개국 103개소	58개국 117개소

매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를 통해 세종학당 교원 및 전 세계 한국어교육 관계자를 초청하여 세계 한국어교육자들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우수 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 행사를 2021년 8월 9일 ~ 12일 개최하여, 국내·외 한국어교원(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등 한국어교원/ 비대면) 1,048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해외 현지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교원 재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국내 사이버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해 온 현지교원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학위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 처음으로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20년 시범 사업을 거쳐, '21년 본격 시행된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사업으로 161명의 한국어교원을 현지에서 양성하였다.

3) 세종학당 학습자 지원 다각화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수요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하기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세종한국어 회화』,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세종한국문화』, 해외 한국 기업 취업 목적 학습자를 위한 『바로 배워 바로 쓰는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 여행자를 위한 『외국인을 위한 여행한국어』 등을 개발하였다. 2021년에는 2020년 개발한 온라인 학습 전용 『사이버 한국어』 교재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존 초중급 중심이었던 세종학당 교육과정에 읽기쓰기 영역 중심의 고급 과정 교재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2021년 국외 현지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어 통번역과정을 최초 개발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은 통번역과정 기본모형을 우선 개발하고 그에 따라 신남방, 신북방 12개 언어 학습자용 교재, 교원용 지침서 각 17권을 개발하였다. 해당 교재는 2022년 시범운영 이후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럽게 활성화된 비대면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은 비대면 한국어 교육 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한국어 입문 단계 교육자료 확충에도 주력하였다. 실제 교원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비대면 입문 단계를 위하여 입문 과정을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12개 언어로 다국어화하여 대면 교육과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다양한 학습자료들은 세종학당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어·한국문화 포털 누리 세종학당(nuri.iksi.or.kr)과 2019년 개발된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플랫폼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누리 세종학당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원에게 한국어 교육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언어(한국어, 영어)로 번역된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11개 한국문화 관련 공공기관의 콘텐츠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세종학당은 해외 소재 외국인 학습자들이 시간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 온라인으로 한국어·한국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021년 약 5만 6천여명의 이용자에게 온라인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외 8개 유관기관의 외국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한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2021년 말 기준 5종 9개 모바일 학습 앱을 출시(어휘(초·중급 / 고급), 문법(초급 / 중급), 회화·발음(초급 / 중급), 여행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세종학당 AI 선생님)하고 7개 언어(한, 영, 중, 러, 베, 스, 인)로 지원하며 누적 다운로드는 1,238,342건이다.

5. 국어심의회

가. 개관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조에 근거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법정 위원회이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국어·언어·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국어학·언어학·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언론·방송·출판 및 정보화 등 국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구성·운영되고 있다.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

나. 연혁

국어심의회는 1953년 3월 문교부령 제31호에 따라 처음 구성되었는데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는 실질적인 최고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64년 대통령령 제1977호(1964. 11. 10.)에 따라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 출범하면서부터이다.

1990년에 국어정책 업무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국어심의회 운영 업무도 함께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어심의회는 심의 역할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할 때, 국어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국어심의회 역할이 강화되었다.

1994년까지 국어심의회는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공포되고 1995년 7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이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 12월 23일에는 「국어심의회 운영세칙」(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을 제정하여 국어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5개 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로 통합·조정되었다. 이때 표기법분과와 한자분과가 어문규범분과로 통합되고

한글분과와 국어순화분과가 국어순화분과로 통합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 언어정책분과로 개편되었다.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는 삭제되고,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의 근거 법령도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1일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는데, 국어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전문성·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회의의 의결·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등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2014. 5. 16.)하여 국립국어원의 직제 개편에 따라 전체위원회 간사를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이 맡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과장(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연구과장(어문규범분과위원회), 공공언어과장(국어순화분과위원회)이 맡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행정기관 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강화를 위하여 국어심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서 작성 및 신규 위촉 위원의 직무 윤리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어심의회 위원 해촉 관련 조항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2016. 7. 11.)하였다.

2017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어심의회 회의록 서식을 정비하고, 회의 결과 및 의결 사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결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회의록 서식을 개정하고 의결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2017. 10. 31.)하였다.

2021년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위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기관 및 단체의 직위를 명시하고, 간사의 직위 등급을 정비하며,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2021. 11. 10.)하였다.

국어심의회 설치를 규정하는 법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표 1-16> 국어심의회 설치 등 관련 주요 연혁

시기	주요 내용	근거 법령
1953년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설치	문교부령 제31호
1964년	「국어심의회규정」 제정 - 문교부 장관 자문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977호
1976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제8279호
1990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문화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2895호
1991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으로 ‘조사·연구 기능 이관	대통령령 제13491호
1993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문화체육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3869호
1995년	「국어심의회규정」 폐지	대통령령 제14727호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법률 제4883호
1995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정	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
1998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일부개정	문화관광부훈령 제28호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및 분과 구성 변경	법률 제7368호
2009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1호
2014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31호
2016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93호
2017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8호
2021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53호

다. 기능 및 역할

국어심의회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와 연구 기능을 이관하고 심의만 전담하게 된 1991년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심의 범위가 확대되고 분과의 구성이 변경된 2005년에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있었다. 이 두 시점을 중심으로 국어심의회의 위상, 기능, 조직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7> 국어심의회의 위상, 기능, 조직 변천

시기	위상	기능	조직	직원	예산
1991년 이전	문교부장관 자문 기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학술용어분과, 표기법분과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지급
1991년 ~ 2005년	문화체육부장관 자문 기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정보화분과, 표기법분과, 국어순화분과	간사 및 서기 각 1명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지급
2006년 ~ 201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자문위원회)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전체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지급
2014년 5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자문위원회)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전체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 * 전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사 분리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지급

국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어심의회의 기능은 분과위원회별로 나누어 있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5개의 분과위원회가 3개로 통합되었다. 이전의 분과위원회는 독립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나 지금의 분과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능에 따라 설정되어 차이가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에 나오는 분과별 심의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8> 국어심의회의 주요 심의 사항

분과	심의 사항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분과	심의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 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3개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제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재 추세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 전문소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 밑에 두어 전문성을 살리면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심의회의 운영 방법 및 운영 실적

1) 심의회의 운영 방법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국어기본법」 제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정책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단체의 장, 또는 국어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분과 내 합동소위원회, 분과 간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국어심의회 운영 실적

국어심의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어문규범 제정·개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국어심의회는 1958년에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 1968년에 ‘인명·지명·숫자 표기법’,

1969년 11월에 ‘기관명의 준말 작성법’, 같은 해 12월 ‘외래어 한글 표기법’ 등을 심의했다. 1970년에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고, 1979년에 ‘어문 관계 표기법 개정안’(맞춤법안, 표준말안, 외래어 표기법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을 심의하였다. 1976년부터는 순화 대상 용어를 심의하여 국어 순화에 힘썼다. 1985년 12월에는 「외래어표기법」을, 1988년 1월 19일에는 새로 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을 심의·확정하였다.

국어심의회는 대표적인 실적으로 1988년 1월에 고시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의 심의를 들 수 있다. 1988년의 어문규범 개정은 1979년 문교부안, 1984년 8월 학술원안, 1987년 4월 국어연구소안 등의 시안과 1987년 6월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1987년 12월 국어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1988년 어문규정 개정 이후에도 ‘표준어 모음 제2집’(1990. 7.), ‘표준화법, 두음 표기, 아래아 표기’(1992. 10.), ‘국악 관련 용어 표준(안)’(1994. 9.), ‘한글맞춤법 일부 조항’(1994. 12.), ‘외래어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 여부’(1991. 5.), ‘외래어표기법 개정 및 국어의 로마자표기법’(1992. 4.), ‘북구 3개국 언어(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표기법’(1995. 1.),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안’(1996. 3.),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안’(1997. 6.), ‘한국 점자 규정안’(1997. 11.), ‘표준어 추가 사정안’(2011. 11. 39항목, 2014. 8. 13항목, 2015. 3. 2항목, 2015. 11. 9항목, 2016. 11. 6항목, 2017. 12. 5항목), ‘문장부호 규정 개정안’(2014. 8.), ‘국어사전과의 기술 내용 통일 및 오류 수정을 위한 어문규정 개정안’(2016. 11.) 등을 심의하였다.

국어 순화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요청한 행정용어 순화안’(1990. 7.), ‘일본어 투 표현 순화 자료’(1991. 6./1991. 7.), ‘건설용어, 미술용어’(1992. 2.~5.), ‘글자체 용어’(1992. 10.), ‘식생활용어’(1992. 11.), ‘행정용어, 신문·인쇄용어’(1992. 12.), ‘생활 외래어·전산기 기본 용어·행정용어·선거용어·정치용어’(1993. 12.), ‘임업·봉제용어’(1994. 9.~12.), ‘일본어 투 생활용어’(1995. 7.~8.), ‘행정용어 및 건설·미술·식생활·신문제작용어 사용 구분 표시’(1995. 12.), ‘임업용어’(1996. 11.~12.), ‘일본어 투 생활용어’(1997. 6.), ‘운동 경기 용어 순화안’(1997. 12.), ‘의류용어 순화안’(1999. 8.), ‘문화재용어 순화안’(2000. 11.), ‘언론 외래어 용어 및 운동 경기 용어 순화안’(2000. 12.), ‘운동 경기 용어 순화안’(2001. 7.), ‘농업용어, 철도용어, 언론 외래어 용어

순화안'(2001. 11.), '언론 외래어 용어 순화안'(2001. 12.), '연극·영화용어 순화안'(2002. 12.), '영화용어 순화안'(2003. 10.), '언론 외국어 및 외래어 순화안'(2003. 11.), '행정용어 순화어'(2012. 4./2012. 12.), '방송통신 전문용어 표준안(2013. 2.~2014. 3.), '외교부 유엔 관련 전문용어 표준안'(2014. 9.) 등의 심의를 수행하였다.

「국어기본법」에는 국어심의회 기능에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심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어심의회는 2011년 12월에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2016)'을, 2016년 11월에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7~2021)' 및 「한국점자규정」 개정안, 2021년 12월에 '제4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하였다.

2013년에는 문장부호 개정안, 방송·통신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등을 위해 국어심의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2014년에는 표준어 추가 사정안, 외래어표기법 및 로마자표기법 용례 오류 수정안, 외교부 유엔 관련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등을 위해 국어심의회가 7회 개최되었다. 2015년 1월~2021년 12월 국어심의회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1-19>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15년 1월~'21년 12월)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전체 회의	(2015년 3월 20일) ○ 2015년 국어정책 추진 방향, 어문규범분과/국어순화분과 결과 보고, 표준어 추가 사정 계획,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일부 개정 계획, 기타 어문규범 개선 계획 등 보고	○ 보고 안건 이견 없음
	(2015년 11월 25일) ○ 신규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15년 사업 성과 보고, 어문규범분과 회의 결과 보고	○ 서정목 위원장, 채완 부위원장 선출, 2015년 사업 성과 보고, 어문규범분과 회의 결과 이견 없음
	(2016년 11월 30일) ○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결과 이견 없음. 국어순화분과에서 의결한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안 고시 대상 33건 중 재심 필요 대상 1건 확정
	(2017년 12월 10일) ○ 신규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 2018년 국어정책 추진 방향 보고	○ 서정목 위원장, 채완 부위원장 선출, 분과회의 결과 이견 없음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2018년 12월 18일) ○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	○ 보고 안건 이견 없음
	(2019년 12월 16일) ○ 신규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 국어심의회 운영 방향·2020년 국어정책 추진 방향·국어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보고	○ 박창원 위원장, 구현정 부위원장 선출, 보고 안건 이견 없음
	(2021년 12월 22일~12월 27일/서면심의) ○ 신규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회의 결과보고 등	○ 구현정 위원장, 이정애 부위원장 선출, 보고 안건 이견 없음
	(2020년 11월 27일~12월 4일/서면심의) ○ 분과회의 결과보고, 2020 세계한국어 대회 추진계획 보고, 2021 국어정책 추진계획 보고 등	○ 보고 안건 이견 없음
언어정책 분과위원회	(2015년 11월 25일) ○ 분과위원장 선출, 언어정책분과 소관 업무 보고	○ 이삼형 위원장 선출
	(2016년 11월 30일) ○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안), 한국점자규정 개정안 심의	○ 원안 의결
	(2017년 12월 10일) ○ 분과위원장 선출, 대구도 말뭉치 구축 계획 보고	○ 이삼형 위원장 선출
	(2018년 12월 18일) ○ 지역어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안 보고	○ 보고 및 의견 청취
	(2019년 12월 16일) ○ 분과위원장 선출, 언어정책분과 운영 방향 논의	○ 이찬규 위원장 선출
	(2021년 12월 22일~12월 27일/서면심의) ○ 분과위원장 선출, 제4차 국어발전 기본 계획(안) 심의	○ 이정애 위원장 선출
어문규범 분과위원회	(2015년 3월 20일) ○ 표준어 추가 사정안 외래어표기법 개정 관련 민원	○ 표준어 추가 사정안 의결, 외래어 표기법 개정 관련 민원 불수용 의결
	(2015년 11월 25일) ○ 분과위원장 선출, 표준어 추가 사정안 심의	○ 채완 위원장 선출, 표준어 추가 사정안 심의·의결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2016년 11월 30일) ○ 표준어 추가 사정안, 어문규범 수정안, 외래어표기법 일부 개정안 심의	○ 원안 의결
	(2017년 12월 10일) ○ 분과위원장 선출, 표준어 추가 사정안 심의	○ 채완 위원장 선출, 표준어 추가 사정안 심의·의결
	(2018년 12월 18일) ○ ‘그러다’류의 불규칙 활용 인정 건 심의	○ 충분한 연구와 논의 후 재상정 하기로 함
	(2019년 12월 16일) ○ 분과위원장 선출, 어문규범분과 운영 방향 논의	○ 구현정 위원장 선출
	(2020년 9월 14일~9월 25일/서면심의) ○ 보조사 ‘이요’ 인정 건 심의	○ 보조사 ‘이요’ 인정 결정
	(2021년 12월 22일~12월 27일/서면심의) ○ 분과위원장 선출, 복합어 ‘펼앙금’의 표준성 인정 건 심의	○ 구현정 위원장 선출 ○ ‘펼앙금’을 표준어로 인정
국어순화 분과 위원회	(2015년 3월 20일)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용어 전문용어 표준화 94건 심의	○ 산자부 전력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요청 대상 94건 중, 고시 대상 92건, 고시 제외 대상 2건으로 심의 확정
	(2015년 11월 25일) ○ 분과위원장 선출, 국어순화분과 소관 업무 보고	○ 서정목 위원장 선출
	(2016년 11월 30일) ○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안 36건 심의	○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안 36건 중 고시 대상 33건, 고시 제외 대상 3건으로 심의 확정
	(2017년 12월 10일) ○ 분과위원장 선출, 국토교통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안 16건 심의	○ 서정목 위원장 선출, 국토교통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안 16건 중 고시 대상 15건, 고시 제외 대상 1건으로 심의 확정
	(2018년 12월 18일) ○ 가스·고층 민원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가스분야 표준화 안 29건 중 고시 대상 29건, 고층 민원 분야 표준화 안 12건 중 고시 대상 10건, 고시 제외 대상 2건으로 심의 확정
	(2019년 12월 16일) ○ 분과위원장 선출, 국어순화분과 운영 방향 논의	○ 박창원 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2020년 9월 4일~9월 18일/서면심의) ○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상청, 해경청, 권익위 등 7개 부처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외교부 소관 전문용어 11건 문체부 소관 전문용어 15건 농식품부 소관 전문용어 17건, 복지부 소관 전문용어 15건, 기상청 소관 전문용어 25건 해경청 소관 전문용어 8건 권익위 소관 전문용어 8건 심의 확정
	(2020년 11월 27일~12월 4일/서면심의) ○ 산림청 소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산림청 소관 전문용어 18건 심의 확정
	(2021년 4월 1일) ○ 권익위·농식품부·소방청 등 3개 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권익위 소관 전문용어 1건, 농식품부 소관 전문용어 17건, 소방청 소관 전문용어 9건 심의 확정
	(2021년 4월 30일)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문용어 102건 심의 확정
	(2021년 9월 29일) ○ 교육부, 국토부 등 2개 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교육부 소관 전문용어 37건 국토부 소관 전문용어 60건 심의 확정
	(2021년 12월 22일~12월 27일/서면심의) ○ 분과위원장 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	○ 조남호 위원장 선출 ○ 과기부 소관 전문용어 20건 심의 확정

6. 국어책임관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3월 21일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국어책임관 지정이 의무화되었으며, 2021년 6월 15일에는 국어책임관 의무 지정 대상이 공공기관등으로 확대되었다.

국어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직원 가운데 홍보·국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직원이 겸직하게 되어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표 1-20> 국어책임관의 임무(「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 해당 공공기관등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국어기본법」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요청하여 그 결과 54개 중앙 부처와 16개 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2008년과 2013년에 각각 정부 조직이 크게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대해 국어책임관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국어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17년 9월 22일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지정이 의무화되어 국어책임관 지정 숫자가 크게 늘었으며, 2021년 12월 16일에는 공공기관등의 국어책임관 지정이 의무화되어 다시 한번 국어책임관 지정 숫자가 크게 늘었다. 2021년 12월 현재 국어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50명)과 그 소속기관(1,348명), 지방자치단체(광역 17명, 기초 226명), 교육청(17명) 및 지원청(219명), 공공기관(350명), 특수법인(46명) 등을 포함하면 총 2,273명이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각급 기관에 지정된 국어책임관들은 공공 부문에서의 국어 오용과 잘못된 표현의 남용을 막고 올바른 국어 환경 조성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연혁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200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요청하였다. 이후 국어책임관의 사업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21>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6년 5월	제1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6년 7월	국어책임관 전용 누리집(www.korean.go.kr/klofficer) 개설

연도	주요 내용
2006년 8월	국어책임관 안내서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6년 9월	제1차 광역자치단체 국어책임관회의 개최
2007년 4월	54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및 160개 소속 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2007년 7월	제2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7년 9월	제2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년 11월	제3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년 11월	국어책임관 안내서 『2008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9년 12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년 3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년 5월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안동)
2010년 11월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서울)
2010년 12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년 4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1년 3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1년 5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서울)
2011년 7월	국어책임관 안내서 『국어책임관, 길잡이』 발간,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1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
2011년 12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2년 2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2년 5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경주)
2012년 7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2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2년 12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3년 3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3년 6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부여)
2013년 7월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3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4년 3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4년 6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광주)

연도	주요 내용
2014년 7월	국어책임관 대상 1차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4년 10월	국어책임관 대상 2차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4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5년 3월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
2015년 5월	국어책임관 대상 1차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특별 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5년 8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울산)
2015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6년 7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청주)
2016년 11월	중앙부처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 개선 방안 워크숍 개최(서울)
2016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7년 6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제주)
2017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8년 6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대전)
2018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9년 4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서울)
2019년 11월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개최되지 않았음.

다. 역대 주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등의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국어책임관 안내서를 만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에게 배포하였다(2006년·2008년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11년·2017년·2020년 『국어책임관 길잡이』 발간, 2018년 『국어책임관 길잡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둘째, 2006년·2007년에 중앙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인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이후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셋째, 매년 국어책임관의 지난해 업무 실적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연도별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 1-22> 연도별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

연도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2009년		경상남도, 충청북도		
2010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시		
2011년	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부산광역시		
2013년	국방부	경기도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전라남도 고흥군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순창군	
2016년	교육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여주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년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0년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광주 동구	
2021년	교육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원도교육청

* 2017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우수사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21년부터 교육청을 우수사례 선정에 포함함.

정책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구로 설치된 것이었다. 정책협의회는 2006년 27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으로 설치·구성되어, 같은 해 5월 제1차 회의에서 향후 활동 방향과 추진 사업을 협의하였고, 2007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정책협의회는 2008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과정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근거 법령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가 2008년 10월 20일부로 삭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활동을 지원하고 국어책임관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5년에 울산·세종·강원·충북·경남·전북 등 6개 지자체를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7. 국어문화원

가. 개요 및 현황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에 ‘국어상담소’를 지정함으로써 출발하였다.

국어상담소는 2008년에 「국어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조치는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어상담소가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상담만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어 관련 각종 교육·홍보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국어능력을 키우고 고품격의 언어문화를 널리 퍼트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0년에는 각 지역국어문화원의 총괄·지원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출범되었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상근 책임자 1명, 상근 상담원 2명 이상의 상담 전문 인력과 적절한 상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 사업 실적을 이듬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표 1-23> 전국 국어문화원 현황(2021년 12월 기준)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누리집
1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김덕호	2005년 10월	knukorean.knu.ac.kr
2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김민국	2005년 10월	ckc.gnu.ac.kr
3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영선	2005년 10월	kor.donga.ac.kr
4	세종 국어문화원	김슬옹	2005년 10월	www.barunmal.com
5	상명대학교(천안) 국어문화원	김미형	2005년 10월	smkorean.net
6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주지연	2005년 10월	klci.yu.ac.kr
7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임동훈	2005년 10월	eomun.ewha.ac.kr
8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양영희	2005년 10월	www.korjnu.kr
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미선	2005년 10월	www.koreanlab.kr
10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장충덕	2005년 10월	korean.chungbuk.ac.kr
11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김은성	2005년 10월	www.kbs.co.kr/speak
12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이래호	2007년 1월	kcc.kangwon.ac.kr
13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박기범	2007년 1월	korean.jj.ac.kr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누리집
14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배영환	2007년 1월	malgeul.jejunu.ac.kr
15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소래섭	2008년 12월	home2.ulsan.ac.kr/user/uoukorean/
16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장수익	2008년 12월	urimal.hnu.kr
17	한양대학교(안산) 국어문화원	김태경	2010년 5월	hkli.hanyang.ac.kr
18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박덕유	2011년 2월	www.inhakorean.or.kr
19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최운호	2014년 3월	mnukorean.blogspot.com
20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이건범	2014년 3월	www.urimal.o
21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박철우	2020년 5월	www.anyang.ac.kr
22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이창민	2021년 6월	sejong-urimal.korea.ac.kr

나. 연혁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10월에 전국 11개소의 국어상담소를 지정하였다.

2006년 1월, 국어상담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대국민 국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국어생활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펴기 위하여 전국 국어상담소 소장이 모여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를 결성하였다. 2007년에 강원, 제주, 전북의 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2008년 국어상담소의 명칭을 국어문화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울산과 대전 지역 2개소, 2010년 경기 지역, 2011년 인천 지역, 2014년에 서울 및 전남 지역 국어문화원을 새로 지정하였다. 특히, 국어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하여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다. 2020년 경기 지역 1개소, 2021년 세종 지역 1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2021년 12월 기준 전국 22개의 국어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표 1-24> 국어문화원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년 8월	선정 기준 마련 및 신청서 접수
2005년 9월	심사회의 개최 및 실사 실시
2005년 10월	국어상담소 지정(11곳)
2006년 1월	전국국어상담소 연합회 결성
2006년 6월	『국어상담』 창간호 발행
2007년 1월	전북, 강원, 제주 지역 3곳 추가 지정
2008년 3월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연도	주요 내용
2008년 12월	울산, 대전 지역 2곳 추가 지정
2010년 5월	경기 지역 1곳 추가 지정
2011년 2월	인천 지역 1곳 추가 지정
2014년 3월	서울 및 전남 지역 각 1곳 추가 지정
2020년 2월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 설립
2020년 5월	경기 지역 1곳 추가 지정, 총 21곳 지정 운영
2021년 6월	세종 지역 1곳 추가 지정, 총 22곳 지정 운영

다. 주요 사업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지역 주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일반 시민이나 공공기관의 국어 관련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언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문규범, 국어 문법 등 국어와 관련된 공금증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지도, 독서 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 사용을 위한 언어문화 개선 활동으로 공공언어 실태 조사, 보도자료 감수, 관광지 안내문 지역 표지판 조사 및 개선 등을 하고 있으며, 세종대왕 나신 날과 한글날 기념행사 등 국어 관련 행사도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표 1-25>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주요 업무	세부 사업
지역민 국어 능력 향상	국어생활 상담 및 교육, 공공기관 국어 상담 및 감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지역 전담, 국어 교실 운영, 실버세대를 위한 글쓰기 문화 학교, 다문화 가정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글쓰기 학교 등
언어문화 개선	순화어 활용, 공공언어 실태 조사, 보도자료 감수, 관광지 안내문, 지역 표지판 조사 및 개선 생활 밀접 분야 쉬운 우리말 용어 정비 사업, 우리말 가꿈이(대학생 언어문화 개선 활동 동아리)를 통한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 추진 등
국어 관련 행사	세종나신 날, 한글날 행사 개최, 글짓기 대회, 사투리 대회, 지역 대표 축제 참여 등



제2장 국어사용 현황

제1절 공공언어 사용 실태

제2절 국어교육 현황

제3절 한국어교육 현황

제4절 국외 한국어 사용 현황

제5절 국어 관련 민간 단체 현황

제2장 국어사용 현황

제1절 공공언어 사용 실태

1. 개요

쉽고 바른 공공언어의 사용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어려운 정책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지속적인 공공언어 개선을 위하여 공공언어 진단 평가·감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용어와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사용하도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언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공공언어 국민제보 창구’를 새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용어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 상담을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이 중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서 2011년부터 아래 표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왔다.

<표 2-1>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

1. 정확성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출처: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국립국어원, 2010년)

2018년부터는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더욱 집중하고자 이미 상당히 개선된 항목을 제외하는 등 아래와 같이 수정된 진단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2-2> 2021년 공공언어 진단 평가 기준

1. 정확성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2. 소통성	2.1. 공공성	2.1.1.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이 공공성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였다.
	2.2. 정보성	2.2.1. 핵심 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2.2.2. 보도자료의 전체 구성이 잘 되었다.
	2.3. 용이성	2.3.1. 각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적당하다.
		2.3.2.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다.
		2.3.3. 글씨체와 크기, 여백이 적절하여 보기에 편리하다.

2021년에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진단을 8회(4월~11월) 실시하였는데, 정확성 면에서는 통일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소통성 면에서는 통일부, 기상청, 행정안전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확성과

소통성 진단을 합산한 점수에서는 통일부,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공공언어 개선 사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공개될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널리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공공언어이다. 국립국어원은 보도자료에 나타난 어려운 용어를 개선하고자 보도자료 평가를 지속해 오고 있다. 2021년에 점검한 보도자료 중 개선이 된 일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공공언어 개선 사례

보도자료			개선 내용
날짜	제목	내용	
2021. 4. 7.	12개 부처 손 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추진	○ 물류 분야와 <u>지능형 도시</u> 분야로 2개 분야를 담당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지능형 자동화 및 해결법 개발, 유통정보 통신 기술(ICT) 등 융복합 생활물류 서비스 <u>창업기업</u> 을 선발하여, 기술인증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다듬은 말 사용 ① 스마트 도시 → 지능형 도시 ② 설루션 → 해결법 ③ 스타트업 → 창업 기업 ▶ 국어기본법 준수 및 다듬은 말 사용 ICT → 정보 통신 기술(ICT)
2021. 4. 28.	그린뉴딜 시동 건 '새만금'...성공전 략 모색	○ 새만금은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고, 대규모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되며, 철도·도로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기반시설)와 산학연 집적단지가 구축되는 등 미래 이동수단 실증사업을 위한 새만금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미래 이동수단을 도입한 2050년 새만금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 다듬은 말 사용 ① 클러스터 → 집적단지 ② 모빌리티 → 이동 수단
2021. 6. 7.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영상콘텐츠 분야는 미래학교 핵심 요소와 일상 등을 <u>손수 저작물(UCC)</u> , <u>영상일기(브이로그)</u> 형태로 제작하며, 교수학습설계 분야는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주제 중심 융합수업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작하여 출판하면 된다.	▶ 국어기본법 준수 및 다듬은 말 사용 UCC → 손수 저작물(UCC) ▶ 다듬은 말 사용 브이로그 → 영상 일기

보도자료			개선 내용
날짜	제목	내용	
2021. 7. 16.	IBK 기업은행 초대 직원권익보호관에 외부전문가 임용	○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은 공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이후 총 69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 다듬은 말 사용 정부헤드헌팅 → 정부 민간 인재 영입
2021. 8. 25.	게임 셋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 다듬은 말 사용 ① 미디어 리터러시 → 매체 이해력 ② 콘텐츠 → 매체
2021. 10. 19.	세상을 바꾸는 협력, 미래를 바꾸는 혁신 모두가 함께하는 「2021 산학협력 엑스포」 개최	○ 이밖에도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 경진대회, 드론 축구 대회,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가족·협약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행사, 중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가상(아바타) 진로 체험 등도 진행된다.	▶ 다듬은 말 사용 ① 크리에이터 → 1인 창작자 ② 아바타 → 가상 ▶ 국어기본법 준수 및 다듬은 말 사용 LINC+ →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 대학
2021. 10. 22.	누리소통망 체험기 이용 부당광고 행위 389건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한 게시물 890건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8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국어기본법 준수 및 다듬은 말 사용 SNS → 누리소통망(SNS) ▶ 다듬은 말 사용 리뷰 → 체험기

제2절 국어교육 현황

1. 국내 국어교육

국어교육은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하는 교육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국어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어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교에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국어교육은 일반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과 전문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교양 과정에서의 국어교육은 일반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고, 대학이나 대학원의 국어 관련 전공 학생에게만 실시하는 국어교육은 전문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다.

가. 초·중·고등학교의 일반 국어교육 현황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국어교육 비중은 국어 교과(의 수업 시수 비중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9. 23.)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관련 수업 시수를 다른 교과(군)의 수업 시수와 비교한 것이다.

<표 2-4> 초등학교 교과(군)의 수업 시수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예술(음악/미술)	즐거운 생활 384	272	272
	영어		136	204
	소 계	1,408	1,768	1,972
전체 교과(군) 중 국어 비율		31.81%	23.07%	20.68%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표 2-5> 중학교 교과(군)의 수업 시수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 계	3,060
전체 교과(군) 중 국어 비율		14.44%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표 2-6〉 고등학교 교과(군)의 단위 배당 기준

교과 영역	교과(군)	공동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94	
전체 교과(군) 중 국어 비율			10.63%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동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동 과목 단위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위의 표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국어과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중학교에서도 단일 교과로는 국어과의 위상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중학교의 경우 2016년도보다 전체 교과(군) 중 국어의 비율 소폭 상승). 전체 과목 중 국어과의 비율은 초등학교 1~2학년군에서는 약 32%, 3~4학년군에서는 23%, 5~6학년군에서는 20%(5~6학년군에서는 2016년 보다 소폭 감소), 중학교에서는 약 14%, 고등학교에서는 10% 정도로 집계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체 교과(군) 중 중

국어과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고등 사고 능력으로서의 국어 능력을 위한 시수 조정 및 교육 시간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 대학교 내 국어 관련 전공

전문 국어교육은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복수 전공 제도의 확대로 전문 국어교육을 받는 전공자 수가 더욱 늘었다.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국어 및 언어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국어 관련 전공 개설 학과 수(2022년 기준)

구분	학과명(전공명)	개설(수)
학부 대학원 등	국어국문/국어국문학과/국어국문학전공	136
	국어교육과/국어교육학과/국어교육 전공	120
	국제한국어전공/글로벌한국어과/글로벌한국어 전공	9
	동화·한국어문화학과/동화미디어창작학과/문예창작학과 /창작문학과	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문학학과	28
	초등국어교육과/초등국어교육전공	19
	한국어교육학과/한국어교육전공/한국어 교육협동과정	60
	한국어문학과/한국어문학부/한국어문학전공 /한국어전공/한국어학과	112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다문화한국어학과/한국어 다문화학과	4
	기타(KFL, KLC, KFLT)	3
	합계	496

*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위의 학과 개설 현황을 통해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개설 대학의 수를 고려할 때, ‘국어국문학과’가 단독 학과 및 전공으로서는 여전히 대학 및 대학원에서 대표적인 학과로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어교육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존의 학과 이름이

조금씩 바뀌면서 유사한 학과 명칭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국어국문학에서 창작이나 번역 관련 학과로 명칭이 변화된 양상도 많이 확인되었고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학부, KLC(Korean Language & Culture)학과, KFLT(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학과와 같은 영어 명칭으로 학과가 개설된 경우가 발견되었다.

다. 평생교육 문자 해독 관련 과정

국어와 관련한 평생교육 과정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문자 해독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8> 유·초·중등학교 부설 성인 기초 문자 해독 프로그램 수

구분	프로그램 수						
	전체	학력 보완	성인 기초 문자 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전체	37	0	5	3	18	9	2
초등학교	18	0	0	0	18	0	0
고등학교	8	0	3	0	0	5	0
초중등학교	3	0	0	0	0	1	2
중고등학교	8	0	2	3	0	3	0

<표 2-9> 유·초·중등학교 부설 시도별 성인 기초 문자 해독 프로그램 수

구분	프로그램 수						
	전체	학력 보완	성인 기초 문자 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합계	37	0	5	3	18	9	2
서울	26	0	5	3	18	0	0
대전	5	0	0	0	0	5	0
경기	3	0	0	0	0	3	0
경북	3	0	0	0	0	1	2

유·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인문 교양 과정의 수가 가장 많다. 성인 기초 문자 해독 과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개뿐이며 역시 모두 서울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표 2-10> 대학(원) 부설 시도별 성인 기초 문자 해득 프로그램 수

구분	프로그램 수						
	전체	학력 보완	성인 기초 문자 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전체	26516	12242	13	4433	2688	7109	31
서울	10078	7667	-	915	424	1069	3
부산	1957	711	1	384	201	657	3
대구	1111	423	-	213	137	334	4
인천	531	193	-	121	31	183	3
광주	655	55	-	181	91	327	1
대전	837	197	-	187	105	347	1
울산	131	8	-	22	40	61	-
세종	116	2	-	36	24	54	-
경기	3887	1941	-	823	302	815	6
강원	734	4	-	176	96	458	-
충북	633	93	-	145	147	248	-
충남	1229	403	7	290	185	342	2
전북	1277	119	-	258	221	678	1
전남	414	50	-	104	49	210	1
경북	953	108	1	259	151	429	5
경남	1791	260	-	273	463	794	1
제주	182	8	4	46	21	103	-

<표 2-11> 대학(원) 부설 학교급별 성인 기초 문자 해득 프로그램 수

구분	프로그램 수						
	전체	학력 보완	성인 기초 문자 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전체	26516	12242	13	4433	2688	7109	31
전문대학	3489	716	5	1234	400	1124	10
교육대학	597	79	-	109	97	312	-
4년제일반대학	21398	10964	8	2831	1990	5585	20
산업대학	28	21	-	3	2	2	-
대학원대학	546	293	-	90	124	39	-
사이버대학	317	94	-	140	68	14	1
전공대학	115	75	-	21	2	17	-
기능대학	26	-	-	5	5	16	-

대학(원) 부설 과정에서도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성인 기초 문자 해득 과정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개설되어 있는 17개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서울과 4년제 일반 대학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2-12> 원격 형태 시도별 성인 기초 문자 해득 프로그램 수

시도	프로그램 수	학력보완	성인기초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전체	90755	8369	4	57298	23367	1714	3
서울	82879	7260	4	53357	20670	1587	1
부산	605	60	0	509	34	2	0
대구	231	181	0	44	2	4	0
인천	205	68	0	104	27	6	0
광주	238	130	0	100	7	1	0
대전	84	32	0	27	25	0	0
울산	1	0	0	0	1	0	0
경기	5820	328	0	2827	2552	113	0
강원	23	0	0	14	7	1	1
충북	118	0	0	92	26	0	0
충남	171	85	0	80	6	0	0
전북	134	121	0	10	3	0	0
전남	8	0	0	7	0	0	1
경북	14	14	0	0	0	0	0
경남	220	90	0	123	7	0	0
제주	4	0	0	4	0	0	0

원격 형태로 이루어지는 성인 기초 문자 해득 프로그램의 수도 다른 과정에 비해 적은 편이다. 수강생이 대부분 노년층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업장 부설, 시민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학습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유형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성인 대상 문자 해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교육에 비해 미비한 실정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출처: 국가문해교육센터, 국가평생교육포털 늘배움, 교육 통계 서비스, 조사기준일: 2019. 5. 2. ~ 2020. 5. 1.)

2. 국외 국어교육

국외에서 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한국학교이다.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2021년 기준으로 현재 16개국에 34개의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중국이 13개로 가장 많다.

<표 2-13> 재외 한국학교 현황(2021년 4월 기준)

국가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일본	4	85	2,252	188
중국	13	282	5,402	622
대만	2	16	113	15
베트남	2	127	4,265	239
사우디아라비아	2	9	26	7
인도네시아	1	29	682	59
싱가포르	1	18	395	52
태국	1	12	113	20
필리핀	1	13	157	29
파라과이	1	9	71	10
아르헨티나	1	11	149	34
러시아	1	9	65	8
이란	1	3	6	4
이집트	1	6	25	7
말레이시아	1	8	40	9
캄보디아	1	6	30	7
계(16개국)	34	643	13,791	1,310

* 출처: 교육부

제3절 한국어교육 현황

1. 국내 한국어교육

가. 국내 한국어교육 기관 현황

국내 주요 한국어교육 기관으로는 1)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2)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 3) 국내 대학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 4) 국내 사설 한국어교육 기관, 5) 자원봉사 단체, 6) 정부 산하의 한국어교육 기관, 7) 기업체 내의 한국어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대학이다.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2021년 기준으로 212개 기관이며, 대학 등 학위 과정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은 525개 기관이다.

<표 2-14>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및 대학 내 한국어교육 기관 현황(2021년 12월 기준)

교육 기관	대학원	학부	사이버대학(원)	학점은행 기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단기)	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	계
기관 수(개)	136	59	14	63	253	212	737

* 출처: 국립국어원

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현황

1)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현황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다. 소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한국어진흥과)이며, 2006년~2008년에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시험을 주관했으나 2009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필기시험은 4개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을 하고 총점의 60%인 1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2차 시험인 면접시험에서는 주로 교사로서의 태도 및 소양, 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한다.

<표 2-15>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 시험(필기)	2차 시험(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영역 1. 한국어학(60문항, 90점)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20문항, 30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93문항, 150점) 4. 한국문화(20문항, 30점) ○ 합격 기준 -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내용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 한국어능력 - 교사의 적성 및 교직원 - 인성 및 소양 ○ 합격 기준 -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2006년 첫 시험이 실시된 후 2020년 12월 현재까지 15차례 실시되었다. 2006년 첫 시험의 응시자가 1,022명이었던 데 비해 2020년에는 2,209명이 응시하여, 14년 만에 약 2배가 넘는 인원이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였으며, 2021년 응시자수는 1,653명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응시자 수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표 2-16>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연도별 실시 현황(2021년 12월 기준)

연 도	필기시험			면접시험			총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06년(1회)	1,022	383	37.5%	373	342	91.7%	33.5%
2007년(2회)	1,662	504	30.3%	494	455	92.1%	27.4%
2008년(3회)	1,828	454	24.8%	448	439	98.0%	24.0%
2009년(4회)	2,196	1,148	52.3%	1,141	807	70.7%	36.7%
2010년(5회)	2,564	587	22.8%	587	551	93.8%	21.5%
2011년(6회)	2,825	673	23.8%	684	594	86.8%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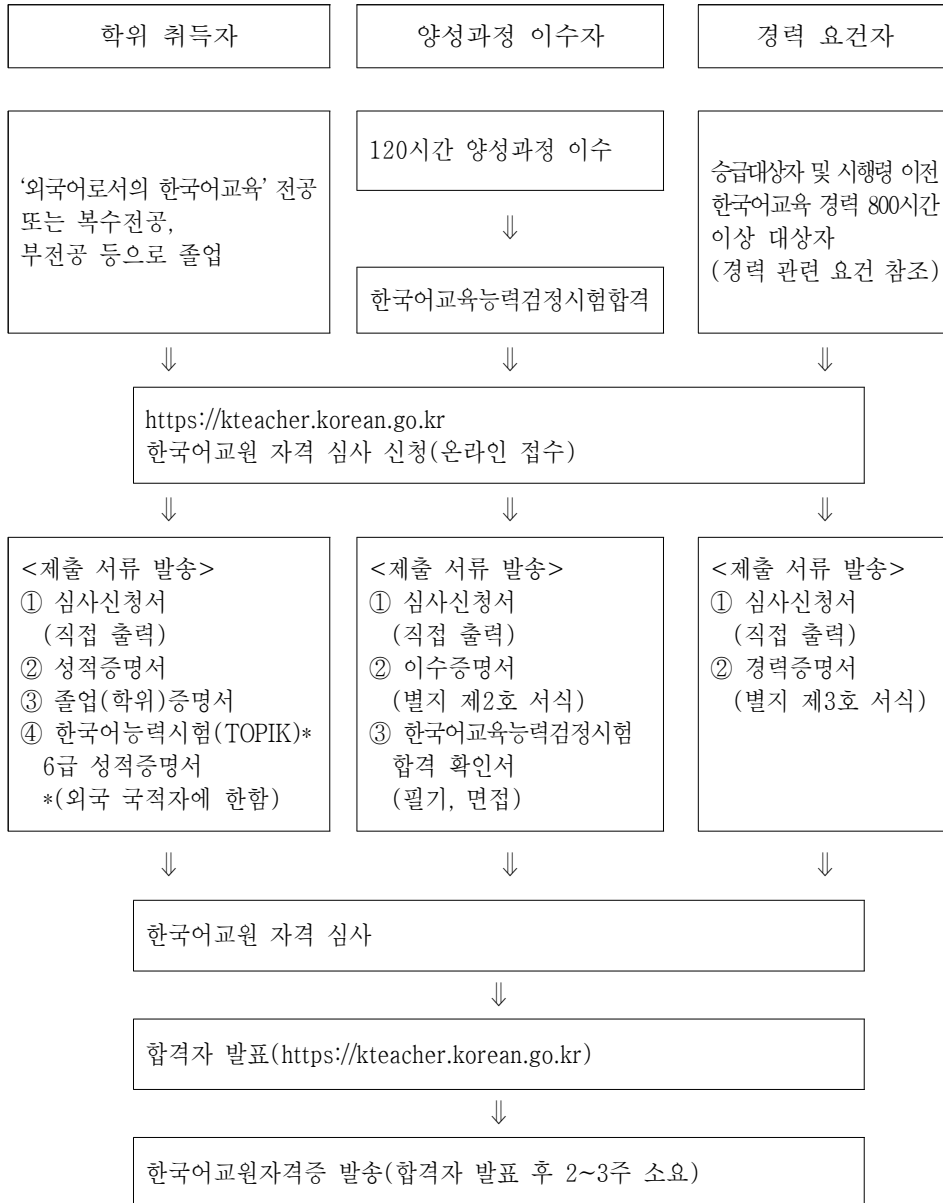
연 도	필기시험			면접시험			총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2년(7회)	2,945	1,020	34.6%	1,067	844	79.1%	28.7%
2013년(8회)	2,711	837	30.9%	999	794	82.5%	29.3%
2014년(9회)	3,167	875	33%	979	775	81.8%	24.5%
2015년(10회)	2,740	1,682	61.4%	1,744	1,323	76.4%	48.3%
2016년(11회)	3,101	721	23.3%	1,006	786	78.1%	25.3%
2017년(12회)	3,527	951	26.7%	1,009	812	80.5%	23.0%
2018년(13회)	3,118	859	27.5%	961	777	80.9%	24.9%
2019년(14회)	3,130	1,250	39.9%	1,324	1,111	83.9%	35.5%
2020년(15회)	2,209	1,055	47.8%	1,160	922	79.5%	41.7%
2021년(16회)	1,653	993	60.0%	1,085	879	81.0%	53.1%
계	40,398	13,992	34.6%	15,061	12,211	81.1%	30.2%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약 34.6%이며, 면접시험의 합격률은 약 81.1%로 총합격률 [(면접시험 합격자÷필기시험 응시자)×100]은 30.2%이다.

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현황

‘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통과했거나, 대학(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2-1]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수는 2009년에 1,000명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2월 현재 누계는 66,792명에 이른다.

<표 2-17>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및 교원 양성기관 현황(2021년 12월 기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계
자격증 취득자 수	1급	81	55	74	101	175	280	356	489	456	497	497	3,061
	2급	1,155	1,342	2,239	3,651	4,278	4,912	4,983	5,329	6,236	7,081	7,504	50,944
	3급	574	940	826	814	1,384	910	872	867	1,162	901	228	12,787
	합계	1,810	2,337	3,139	4,566	5,837	6,102	6,211	6,685	7,854	8,479	8,229	66,792
대학(원) 전공 학과 수	학부	1	4	6	5	6	3	6	2	5	2	2	59
	대학원	11	15	8	8	10	0	8	4	7	6	5	136
	사이버 대학 (원)	1	2	1	1	1	0	0	1	1	0	1	14
	학점 은행제	2	3	6	3	2	0	4	9	7	9	11	63
	합계*	98	122	143	160	179	182	200	216	236	253	272	272
단기 양성 기관 수*	131	154	160	178	188	202	213	221	227	243	253	253	

* 2006년 최초 자격을 발급한 이후의 누적 수치임. 2급과 3급은 2006년부터 발급되었고, 1급은 2011년 최초 발급됨.

* 해당 연도까지의 누계 수치를 나타냄

우리나라가 점점 다문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분위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교원의 적재적소 배치는 이러한 한국어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한국어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어교원들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국외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에서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여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해외 한국어교육

가. 한국어 보급 기관

한류 및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대륙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한국어 보급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어를 보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는 세종학당이고, 민간 자체적으로 설립된 한글학교도 한국어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여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초·중등학교와 한국학과 또는 한국어과를 개설한 해외 대학도 한국어를 보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1) 세종학당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 세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기관이다. 해외 한국어교육의 대표 기관인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세종학당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 개선 세부 실행 방안(2016. 7. 국무회의)’에 따라 한국교육원 31개소를 세종학당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현재 세종학당은 전 세계 82개국에서 234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26개국 129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유럽 27개국 55개소, 아메리카 15개국 34개소 순이다. 2012년에는 43개국 90개소, 2013년에는 52개국 120개소, 2014년에는 54개국 130개소, 2015년에는 54개국 138개소, 2016년에는 58개국 174개소, 2017년에는 54개국 171개소, 2018년에는 56개국 172개소, 2019년에는 60개국 180개소, 2020년에는 76개국 213개소가 운영되었다.

<표 2-18> 대륙별 세종학당 운영 현황(2021년 기준)

대륙	국가 수	학당 수
아 시 아	26	129
유 럽	27	55
아메리카	15	34
아프리카	12	12
오세아니아	2	4
계	82	234

2) 한글학교

한글학교는 재외 국민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 국민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재외공관에 등록된 비정규 학교를 말한다. 한글학교의 교육생은 주로 재외동포 2~3세나 지사·상사 주재원의 자녀 등으로 구성되며 일부 외국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한글학교는 주로 주말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업이 진행되며, 평균 수업 시간은 주당 2~6시간 내외이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116개국에 1,468개소의 한글학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곳에 등록된 교사는 13,114명, 학생은 83,662명에 이른다. 2009년에는 110개국 2,111개교의 한글학교에 14,870명의 교사와 128,046명의 학생이 등록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한글학교 수와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9> 지역별 한글학교 현황(2021년 5월 기준)

구분	국가	학교 수	교사 수	학생 수
아시아	19	300	2,257	17,000
대양주	4	70	894	6,048
북미	2	731	7,365	38,722
중남미	21	69	570	4,838
유럽	28	112	1,004	6,412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10	139	622	8,908
중동	10	14	184	886
아프리카	22	33	218	848
계	116	1,468	13,114	83,662

* 출처: 재외동포재단,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교육통계연보"

지역별로는 북미에 731개소로 한글학교가 가장 많고 다음은 아시아, 러시아·독립국가연합, 유럽 순이다. 한글학교 지원 업무는 1997년까지는 교육부에서 담당했으나 1998년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면서 예산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을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3) 한국어 채택 해외 초·중등학교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반의 최근 8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1,053개교(24개국)에서 2021년 1,820개교(44개국)으로 72.3%(767개교) 증가했고, 학생 수도 86,415명에서 170,563명으로 97.4%(84,148명) 늘었다.

<표 2-20> 해외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 수	24	26	28	27	28	28	30	39	44
학교 수	1,053	1,111	1,224	1,309	1,423	1,495	1,635	1,669	1,820
학생 수	86,415	93,144	107,199	115,335	14,303	134,102	145,309	159,864	170,563

<표 2-21> 해외 국가별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2021년 12월 기준)

지역	국가	한국어반	
		학교 수	학생 수
아시아	중 국	22	3,324
	일 본	566	16,981
	대 만	63	5,779
	태 국	175	46,446
	인도네시아	50	6,926
	베트남	34	4,569
	몽골	26	4,004
	필리핀	28	4,723
	인도	26	1,536
	말레이시아	11	1,653
	스리랑카	82	8,245
	라오스	3	366
	캄보디아	3	150
	요르단	2	50
아프간	-	-	
북미	미 국	191	19,614
	캐나다	46	2,444
중남미	파라과이	19	3,872
	아르헨티나	7	550
	브라질	19	1,202
	과테말라	10	752
	에콰도르	3	75

지역	국가	한국어반	
		학교 수	학생 수
독립 국가 연합 (CIS)	키르기스스탄	19	1,129
	카자흐스탄	19	666
	우즈베키스탄	52	7,980
	타지키스탄	4	485
	러시아	52	7,145
	우크라이나	11	907
	벨라루스	3	93
	투르크메니스탄	1	312
유럽	프랑스	53	1,616
	독 일	31	507
	불가리아	10	606
	영 국	45	681
	덴마크	1	7
	라트비아	1	23
	체코	1	1
	터키	17	348
	벨기에	-	-
	헝가리	4	87
오세아니아	호 주	70	9,312
	뉴질랜드	36	5,064
아프리카	남아공	3	78
	르완다	1	255
계		1,820	170,563

* 해외공관(한국교육원 등)의 제출 자료에 의함 - 지원국 중 자료 제출 국가 통계임

** 아프가니스탄은 현지 정세 악화로 인해 잠정 사업 중단(추후 안정 시 재개 예정)

*** 출처: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한국어반 개설 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566개교이고 미국(191개교), 태국(175개교), 스리랑카(82개교), 호주(70개교)가 뒤를 잇는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태국이 46,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국(19,614명), 일본(16,981명), 호주(9,312명) 순이다.

4) 해외의 한국학 강좌

해외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학 강좌 또한 한국어를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장 많은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377개)이고 중국(276개)과 미국(131개)이 뒤를 잇고 있다.

<표 2-22> 해외 한국학 강좌 운영 현황(2021년)

대륙별	국 가	개수
아시아	네팔	2
	대만	37
	동티모르	1
	라오스	4
	말레이시아	19
	몽골	21
	미얀마	3
	방글라데시	1
	베트남	33
	브루나이	1
	스리랑카	2
	싱가포르	6
	아프가니스탄	1
	인도	22
	인도네시아	15
	일본	377
	중국	276
	캄보디아	12
	태국	34
	파키스탄	2
	필리핀	13
소계(21개국)	882	
북미	미국	131
	캐나다	16
	소계(2개국)	147
유라시아·유럽	그리스	1
	네덜란드	3
	노르웨이	1
	덴마크	2
	독일	21
	러시아	37
	라트비아	2
	루마니아	4
	리투아니아	1
	몰도바	3
	벨라루스	2
	북마케도니아공화국	1
불가리아	3	

대륙별	국 가	개수	
	벨기에	2	
	세르비아	2	
	스웨덴	1	
	스위스	1	
	스페인	6	
	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1	
	아르메니아	2	
	아일랜드	3	
	아제르바이잔	6	
	에스토니아	2	
	영국	27	
	오스트리아	2	
	우즈베키스탄	14	
	우크라이나	5	
	이탈리아	6	
	조지아	1	
	체코	4	
	카자흐스탄	18	
	크로아티아	2	
	키르기스스탄	16	
	타지키스탄	3	
	터키	10	
	투르크메니스탄	1	
	포르투갈	3	
	폴란드	4	
	프랑스	19	
	핀란드	1	
	헝가리	5	
	소계(42개국)	249	
	중동 및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
		모로코	7
바레인		1	
사우디아라비아		2	
세네갈		1	
수단		1	
아랍에미리트		5	
에티오피아		1	
요르단	2		

대륙별	국 가	개수
	우간다	2
	이라크	4
	이란	1
	이스라엘	4
	이집트	2
	카타르	1
	케냐	2
	코트디부아르	2
	쿠웨이트	1
	탄자니아	3
	튀니지	1
	소계(20개국)	44
	중남미	과테말라
니카라과		1
도미니카공화국		1
멕시코		13
베네수엘라		3
볼리비아		5
브라질		5
아르헨티나		7
에콰도르		3
엘살바도르		1
온두라스		2
자메이카		1
칠레		5
코스타리카		3
콜롬비아		9
쿠바		1
트리니다드·토바고		1
파나마		1
파라과이		2
페루		7
소계(20개국)	72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1
	뉴질랜드	3
	소계(2개국)	14
계		107개국 1,408개 기관

*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현재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은 공인시험 2개와 민간 인증시험 10여 개가 있다. 공인시험으로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험을 주관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하였고, 2011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 2014.07.20.	시험 체제 개편(제35회~)
● 2011~2014.04.20.	국립국제교육원 제21회~제54회 시행
● 2011.01	사업주관기간 변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립국제교육원)
● 1999~20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38회 - 제20회 시행
● 1999.02	사업주관기관 변경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997~1998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회~제2회 시행

[그림 2-2] 한국어능력시험 연혁

* 출처: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누리집(<http://www.topik.go.kr>)

1997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합격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²⁾

2) 2006년 12월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과 구분하였으나 2011년에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 폐지되었다. 편 의상 표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 인원만을 보였다. 2015년부터는 연 6회 실시하고 있다.

<표 2-23>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합격자 현황

(단위: 명)

연도	회차	응시자	합격자
1997년	제1회	2,274	711
1998년	제2회	2,663	1,011
1999년	제3회	3,445	2,513
2000년	제4회	4,850	2,920
2001년	제5회	6,049	3,364
2002년	제6회	7,306	4,534
2003년	제7회	10,416	6,362
2004년	제8회	15,279	9,558
2005년	제9회	23,401	14,548
2006년	제10회	30,270	16,456
2007년	제11회	12,030	7,655
	제12회	31,783	19,112
2008년	제13회	26,864	17,449
	제14회	36,596	18,881
2009년	제15회	34,598	21,216
	제16회	40,543	21,525
2010년	제17회(국내)	3,211	1,840
	제18회	36,183	18,558
	제19회	41,418	18,368
	제20회(국내)	11,795	5,711
2011년	제21회(국내)	7,118	4,417
	제22회	40,016	24,065
	제23회(국내)	13,057	7,598
	제24회	43,718	24,972
2012년	제25회(국내)	14,072	7,018
	제26회	45,169	26,587
	제27회	17,305	10,432
	제28회	51,591	27,964
2013년	제29회(국내)	16,677	11,578
	제30회	48,750	30,418
	제31회(국내)	20,542	12,108
	제32회	56,099	31,766
2014년	제33회(국내)	20,572	12,287
	제34회	60,361	40,421
	제35회(국내)	20,341	15,577
	제36회	59,176	38,694
	제37회(국내)	18,481	12,946
2015년	제38회(국내)	13,783	10,016
	제39회	14,853	10,383

연도	회차	응시자	합격자
	제40회	49,947	34,840
	제41회(국내)	19,034	14,101
	제42회	55,439	43,059
	제43회	21,827	16,819
2016년	제44회(국내)	15,748	12,115
	제45회	16,240	11,553
	제46회	60,859	42,828
	제47회(국내)	22,883	17,489
	제48회	69,003	50,365
	제49회	25,921	17,743
2017년	제50회(국내)	17,287	11,940
	제51회	17,544	12,273
	제52회	70,316	50,852
	제53회	27,284	19,625
	제54회	75,338	56,145
	제55회	30,054	21,013
2018년	제56회	22,200	14,294
	제57회	76,037	51,981
	제58회	27,002	17,855
	제59회	30,727	22,612
	제60회	74,216	54,326
	제61회	34,660	24,553
2019년	제62회	25,888	17,556
	제63회	86,101	59,677
	제64회	30,948	21,085
	제65회	36,983	25,879
	제66회	81,421	56,717
	제67회	38,736	27,568
2020년	제68회(국내)	30,418	22,119
	제69회	4,198	3,690
	제70회	25,559	17,386
	제71회(국내)	(코로나19로 취소)	(코로나19로 취소)
	제72회	26,042	19,564
	제73회	47,244	37,620
2021년	제74회(국내)	15,021	10,638
	제75회	16,621	11,757
	제76회	18,375	12,793
	제77회	15,624	12,382
	제78회	15,302	12,059
	제79회	17,614	13,175

* 출처: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누리집(<http://www.topik.go.kr>)

제4절 국외 한국어 사용 현황

1. 한국어 사용자 수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한뿐이지만 재일 동포, 재중 동포, 구소련 지역(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동포, 북미·유럽·남미 등의 동포를 아우르는 전 세계의 동포 사회가 한국어 사용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외국어 또는 제2 외국어로 배워서 능숙하게 구사하는 일부 외국인들도 넓은 의미의 한국어 사용 인구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에는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8,800만 명으로 추산된다.(※2021년 2월 기준 『에스놀로그(Ethnologue)』에 따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세계 20위임. 국내 통계와 국제 통계의 시차 및 산출 방식의 상이함 등으로 통계 수치상 차이가 있음.)

<표 2-24> 언어별 사용 인구(2021년 2월 발표)

구분	제2언어 사용인구 포함	순위
영어	13.48억 명	1
중국어	11.20억 명	2
힌디어	6억 명	3
스페인어	5.43억 명	4
표준 아랍어	2.74억 명	5
벵갈어	2.68억 명	6
프랑스어	2.67억 명	7
러시아어	2.58억 명	8
포르투갈어	2.58억 명	9
우르두어	2.3억 명	10
⋮	⋮	⋮
한국어	8.8천만 명	20

출처: 『에스놀로그 Ethnologue』(<http://www.ethnologue.com/statistics/size>)

2. 한국어의 위상

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제43차 총회에서 18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다. 국제 공개어는 특허 출원된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국제 사회에 알릴 때 쓰는 특허계의 공용어로 현재 10개 언어로 되어 있다. 한국어 사용자의 절대 다수가 한반도에 국한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개어로 채택이 됐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는 사용자 수와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리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제어로서 상당히 높은 위상을 구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개별 국가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강화된 사례로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한 초·중등학교가 증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017년 9월부터 프랑스 초·중등학교에서는 ‘국제섹션’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되었다. 국제섹션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 문학, 역사, 과학, 수학 등의 교과목을 프랑스어와 외국어를 병행하여 교육하는 정규교과 체계다. 현재 프랑스 초·중등학교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17개 언어의 국제섹션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대학 입학 국가 자격 고사인 ‘바칼로레아’에 한국어 과목이 외국어 시험 교과목의 공식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는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 위상이 기존 ‘임의 선택 교과’에서 ‘필수 교과’로 격상되었으며 계열별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 비중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터키는 2017년에 초·중·고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제2외국어에 한국어를 추가했으며 2018년 9월부터 앙카라 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다. 태국은 2016년에 한국어를 대학 입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였으며, 2018학년도에 처음으로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가 시행되었다. 필리핀에서도 국공립학교 제2외국어 정규과목으로서 한국어를 채택하기로 한 양국 간 양해각서를 2017년 6월에 체결한 후, 2018년부터 마닐라 수도권 내에 우선적으로 10개의 중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를 한국어로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베트남도 2016년 9월 신학기부터 일부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시범 채택하였고 그 후 2년 만인 2019년에는 제2외국어로 선정하여 중고등학교로 확대, 2021년 초에는 제1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였다. 인도에서는 2019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취미반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듬해 2020년 7월에 전격적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빠른 속도로 채택 학교가 증가해 가는 중이다. 러시아도 2020년 10월 국가교육 정책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권장 과목으로 선정하여 85개 초중고교에서 약 9천 명의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3.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750만여 명(2019년 7월 기준, 외교부)에 이른다. 국립국어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외동포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2011년의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재중 동포(2012년), 독립국가연합 동포(2013년), 재미 동포(2014년), 중남미 동포(2015년), 재일 동포(2016년)를 대상으로 언어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중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결과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제3장 2011년~2016년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종합 및 분석, 국립국어원, 2016년)

<표 2-25>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응답 순위 \ 국가별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조선말	러시아어	한국어	한국어	일본어
2순위	한족말	고려말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조선어
3순위	한국말	기타	기타	-	-
4순위	북한말	한국어	-	-	-

<표 2-26> 제일 잘하는 언어

응답 순위 \ 국가별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조선말	-	한국어	영어	일본어
2순위	한족말	-	영어	포르투갈어	동포어
3순위	한국말	-	-	스페인어	-
4순위	-	-	-	한국어	-

<표 2-27>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국가별 응답 순위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 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조선말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2순위	한족말	고려말/사할린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동포어
3순위	한국말	한국어	-	스페인어	-
4순위	-	지역어	-	한국어	-

<표 2-28>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국가별 응답 순위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조선말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2순위	한족말	고려말/사할린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동포어
3순위	한국말	한국어	-	스페인어	-
4순위	-	지역어	-	한국어	-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부분에서 재중, 재미, 중남미 동포들은 한국어를 모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독립국가연합과 재일 동포는 거주국 언어를 모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제일 잘하는 언어와 관련해서 재중,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를 1순위로 선택한 반면에 중남미, 재일 동포들은 거주국 언어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가족 간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독립국가연합 동포들도 일상생활에서와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거주국 언어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활동 세대가 3~4세가 되면서,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 급속히 동화되어 가고 있다. 재외동포의 민족 문화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재외동포는 이중 언어 사용자로서 한국어와 더불어 현 거주 국가의 언어도 잘해야 하는 언어적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재외동포에 대한 더욱 세심한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제5절 국어 관련 민간 단체 현황

1. 국어 관련 법인

2020년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 등록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29> 국어 관련 법인 현황 및 주요 사업(2021년 12월 기준)

일련 번호	단체명	설립목적	주요 사업
1	국어고전문화원	올바른 국어 연구 및 한자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국어 연구 정립 ○ 한자 교육 및 한글의 성음법 비교 연구
2	국어순화추진회	한글 전용으로 글자 생활의 민주화와 민족 문화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전용을 위한 범국민적 활동 전개 및 강습회, 세미나 개최
3	국어정보학회	국어 정보 처리의 이론 체계 정립과 기술 향상을 통한 정보산업 성장 지원, 국어 정보 처리 기술의 보급 및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정보 관련 문제점의 조사·연구 발표 ○ 논문집, 출판물 편집·간행 ○ 국어 정보 관련 표준 및 규격의 제안
4	더플랜티코리아	해외 나후 지역에 한국학교를 설립 하여 한국어를 교육하여 한국문화를 널리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나후 지역에 한국학교를 설립하여 한국어교육 ○ 한국문화 전파 ○ 청소년 및 대학생 상호 방문 교류 및 나후 지역 봉사 활동
5	사단법인 국어생활연구원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어 진흥에 이바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 ○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진흥 ○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과 보수 교육
6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학술, 방송, 언론, 출판,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가꾸어,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잃어가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더 나아가 자랑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한글 문화를 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사업(한글 맞춤법 교실, 초중등 교사 대상의 특수 분야 연수, 한글문화 토론회, 2010년 14회 토론회 마침) ○ 문화사업(한글웃이 날개, 한글웃 맵시 자랑(패션쇼), 바른말 고운말 표어 공모전), 청소년 언어 순화 사업(변떡이는 새말을 찾아라 공모전, 건강한 신조어 발굴) ○ 계몽사업(우리말 사랑 책자 배포, 공공기관의 외래어 남용에 대한 우리말 지킴이 활동)

일련 번호	단체명	설립목적	주요 사업
7	사단법인 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	국립한글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회원의 기부·기증을 통하여 국립한글 박물관의 전시·연구·교육·문화사 업·편의 시설 등의 지원과 한글문화 확산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전시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 박물관 학술 자료 및 조사·연구 지원 ○ 한글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 교육 및 국제 교류 ○ 회원 및 관람자를 위한 공익적인 문화사업 ○ 박물관에서 위탁하는 목적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양 향상 ○ 한글 관련 연구자 등에 대한 장학 사업
8	사단법인 한국공공통 번역협회	공공 통역 및 번역 수행, 감수 및 평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통역 ○ 공공 번역 사업 ○ 공공 통역 감수 및 평가 사업 ○ 공공 번역 감수 및 평가 사업 ○ 공공 통역 및 번역 관련 연구 사업 ○ 공공 통역사·번역사 교육 및 인증 사업 ○ 유관 기구와 교류·협력 사업
9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세종대왕 상덕과 위업을 추모, 후손에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대왕에 관한 문헌 간행 ○ 세종대왕의 유물·유적 수집·보관
10	은누리 한글 문자화 협의회	우리 글자인 한글로 지구촌의 문맹 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계도
11	한국어문화	국어 전통의 계승 발전과 국한문 혼용 체제의 확립 및 국어 순화를 통한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정책 연구(상용한자 제정, 국어 순화 등) ○ 학술 연구 발표 ○ 어문연구, 어문 교육 교재 등 발간 ○ 한자능력검정시험 실시 ○ 한국어문화관 건립 및 운영 ○ 한자 교육 장학 사업 ○ 난정학술상 수여
12	한국언어문화 연구원	국어 교육의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 국어 정보화 사업, 국어 대중화 사업, 국어 능력의 평가 활동 등을 지원 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세계화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문화 창달을 위한 장기 간행물 발간 ○ 국어 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 고전의 발굴 및 대중화를 위한 디지털화 사업 ○ 국민들의 국어사용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사업
13	한글문화연구회	우리 고유의 이름다운 나라 말을 살려 내고 이를 다듬고 가꾸어 한글 문화 중흥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통한 국민정신 계도 ○ ‘한’ 정신 및 ‘한’문화의 연구 및 개발, 보급 ○ ‘한’ 정신 및 ‘한’ 문화 발전을 위한 인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및 출판

일련 번호	단체명	설립목적	주요 사업
14	한글재단	우리 말과 글을 갈고닦는 개인이나 단체 지원 및 한글의 국내외 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는 개인 및 단체 지원 ○ 우리 말과 글 관련 간행물, 저술, 논문 등 출판 및 지원 ○ 전통문화와 한국학 연구 지원
15	한글학회	국어·국문의 연구, 통일 발전과 한글의 기계화 연구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국문의 연구 ○ 표준말, 맞춤법 연구와 학술 및 전문 용어에 관한 연구 ○ 한글 글자꼴과 한글 기계화에 관한 연구 ○ 사전 편찬과 각종 조사·연구 및 발행 ○ 국어 정화에 관한 연구 및 실천 운동
16	한국어능력평가원	한국어 능력의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한 국내외 한국어 진흥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한 직업 개발을 지원하고 후원 ○ 한국어 교육의 공평한 기회 제공
17	한국문화국제교류 운동본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제 문화 교류 및 한국 이미지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보급 ○ 태권도 보급
18	한말글	바르고 쉽고 품격 있는 국어사용 운동을 실천하여, 건전한 우리말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쉬운말 쓰기 운동 ○ 생활국어 상담 및 한말글 일깨우기 ○ 국어 능력 향상 방안 연구 및 교육, 출판
19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	지역 국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력을 통해 국어의 보전과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 및 활성화 ○ 지역 국어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 공공언어 개선 지원
20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 사업회	문자 강국의 자긍심 전승 및 훈민정음의 우수성 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민정음 백일장, 훈민정음 국제 서예대회, 훈민정음서문임송대회 개최 ○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 시행 및 연수교육 ○ ‘훈민정음 과거시험’ 시행 ○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 ○ 훈민정음 관련 도서 발행 및 보급
212	사단법인 한국공공언어 연구협회	공공언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 및 공유함으로써 국내 공공언어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 국내 공공언어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여 국민의 공공언어 역량 강화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능별 공공언어의 특징 규명을 위한 연구모임 운영 ○ 공공언어 연구 성과의 학술대회 발표와 학술지 게재 및 단행본 출간 ○ (한)국어 공공언어 교육을 위한 콘텐츠 연구개발 및 보급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공언어 연구개발 관련 사업

2. 국어 관련 학술 활동 지원

현재 국내에는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등 어문 관련 분야에 90여 개의 학회가 있다. 이러한 국어 관련 학회 및 기관과 학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와 국어 관련 학술 단체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국어 정책 학술 대회 수행 계획을 공모하여 학술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어 정책 관련 학회 및 기관에서 주관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 대회를 대상으로 국어 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학술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민간 학술 단체와 협력하여 국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어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학회와 협력하여 2020 세계한국어대회를 개최하였다. 2021년에는 세계한국어한마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학술대회와 언어산업전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국어정책 관련 학술 행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0> 국어정책 관련 학술 행사 지원 내용

연도	날짜	구분	주제	주관 학회	장소
2013	6. 20.	포럼	문학과 언어학의 통섭	한국언어문학회	한남대학교 (대전)
	8. 9.	포럼	남북 언어 통합의 문제	국어문학회	춘향문화예술회관 (남원)
	9. 7.	포럼	어문규범 정책의 방향성	한국어문학회	대구경북디자인 센터(대구)
	10. 11.	전국학술대회	문화융성을 위한 국어정책의 방향	한국어문학술 단체연합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14	6. 13.	포럼	국어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적 검토	한국지명학회	진남대학교 (광주)
	8. 21.	포럼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중언어정책과 한국어교육의 방향성	우리말학회	동아대학교 (부산)
	11. 7.	포럼	한국어 문학과 한국어 교육학의 세계화 전략	한국국어교육학회	충북대학교 (청주)
	10. 10.	전국학술대회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문화 개선 운동	한국어문학술 단체연합회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5	5. 14.	포럼	광복 70돌맞이 말글 정책의 회고와 전망	한글학회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5. 30.	포럼	광복 70년, 통일과 창조를 위한 한국어문학	국어국문학회	고려대학교 (서울)
	8. 7.	포럼	국어사 자료의 현대화	국어사학회	충남대학교 (청주)

연도	날짜	구분	주제	주관 학회	장소
	10. 16.	전국학술대회	문화융성 시대의 우리 말글과 국어기본법	한국어문학술 단체연합회,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16	6. 24.~25.	포럼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의 성과와 연구 방향 모색	한국방언학회	목포대학교 (무안)
	9. 24.	포럼	한국어 듣기 능력과 듣기 교육	한국화법학회	전주교육대학교 (전주)
	12. 3.~4.	포럼	자기표현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한국어교육학회	신라대학교 (부산)
	12. 15.	포럼	국립국어원의 위상과 역할	국어학회	인하대학교 (인천)
2017	7. 6.	포럼	한국수어 연구의 현황과 전망	국어학회	청주대학교 (청주)
	8. 25.~26.	포럼	(한)국어교육의 세계화 - 어제, 오늘, 내일	국어교육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10. 20.	포럼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한 과학과 수학 융합 연구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11. 3.	전국학술대회	국의 한국어 문학의 과제와 진흥 방안	국어국문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18	6. 21.	포럼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	국어학회	경북대학교 (대구)
	5. 18., 8. 10., 12. 14.	포럼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과 성과 - 미래통일 교육과정을 위한 토대 구축	한국어교육학회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11. 28.	포럼	국어기본법 13년 그 성과와 과제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서울시청 (서울)
	12. 20.	전국학술대회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활용 방안	국어사학회	고려대학교 (서울)
2019	5. 17.	포럼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한국공공언어학회	국회의원회관 (서울)
	5. 17., 8. 9., 12. 13.	포럼	문식 환경 변화에 따른 국어 정책과 국어교육의 대응 - '국어기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6. 21.~22.	전국학술대회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연구	국어학회	전남대학교 (광주)
	6. 28.~29.	포럼	북한 언어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방언학회	서울대학교 (서울)
	11. 9.	포럼	통일 시대의 한국 사회언어학 연구	한국사회언어학회	대구대학교 (대구)
2020	12. 21.~23.	국제학술대회	(전체) 한국어, 한글 미래를 묻다 (1분과) 세계로 향하는 한국어학	13개 분야의 학회와 협업 (국어화법/소통, 말뭉치 언어학, 사회언어학/	온라인 개최

연도	날짜	구분	주제	주관 학회	장소
				방언학, 국어정책, 통사론, 음성학/음운론, 의미학, 국어사, 텍스트언어학, 담화 화용, 수어학, 문지학, 형태론)	
2021	10. 8.~9.	국제학술대회	새 일상 시대의 한국어 발전 방향	국립국어원에서 3개 분과 구성·운영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통번역학)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대면 및 비대면 진행 병행

* 2016년 이후의 학술 행사 지원은 국립국어원에서 공모를 통해 시행하였음.

* 2020년에는 학회와 협력하여 2020 세계한국어대회를 개최, 2021년에는 학술대회·언어산업전을 포함하여 2021 세계한국어한마당을 개최



제3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

제1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제2절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제3절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제4절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제3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

제1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 근거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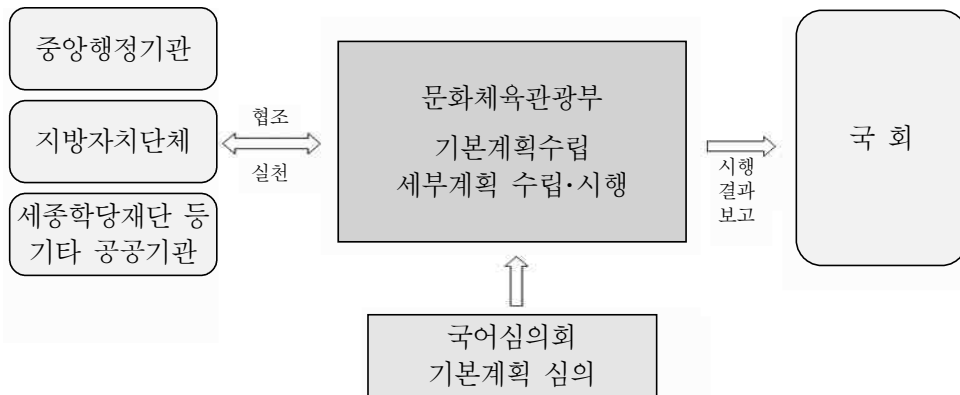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국어기본법」 제6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의 준거가 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되며 부문별 국어 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목적은 날로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언어 의식 및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 세계 속에서 우리말이 차지하는 위상 등에 부합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인 국어의 발전에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절차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세운 계획을 수집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며, 매년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07년~2011년)은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세계화·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이다. 3대 중점 추진 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3-1> 3대 중점 추진 과제

1.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국어전문교육기관’화 ▶ 맞춤형 국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내외 국어교원 재교육 및 연수 강화 ▶ 교육 대상별·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보급 ▶ 온라인 국어 교양 강좌 개설, 운영
2.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단계별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1차(2007년~2008년):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36개교 ◦ 1단계 2차(2009년~2011년):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64개교 ◦ 2단계(2012년~2016년): 동남아, 서남아 지역 100개교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기관과 교육 전문가 연결망 구축 ◦ 권역별·지역별 ‘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 결성 ◦ 언어정책 기관 국제학술회의 정례화 ◦ 정보 교류를 위한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구축 ▶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 체제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권별, 교육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 개발 ▶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국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재교육 실시 ◦ 현지 한국어교육 전문가 초청 중·단기 연수 실시 ◦ 국내 한국어교육 전문가 파견 현지 연수 지원 ▶ 민간 기업의 협력 유도, 민관 간 상승 전략 추진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 ▶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편찬
- ▶ 언어권별 대역사전 집필 및 웹사전 시스템 개발
- ▶ 실용 예문 구축 및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제공
- ▶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 순차 편찬
- ▶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는 「국어기본법」 및 정책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국어정책으로, 10대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3-2>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10대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1-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1-2 국어정책 추진 관련 지원 체제 운영 활성화 1-3 언어 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체제 강화 1-4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2.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2-1 남북 언어 교류 활성화 2-2 언어정책 및 정보 교류 국제 협력망 구축
3.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교육 확대 3-2 새터민 ³⁾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지원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4-1 국어 순화 사업의 강화 4-2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4-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4-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 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 제도 정착
5.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 여건 조성	5-1 국어능력 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5-2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 활용 5-3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6-1 국어사용 실태 조사 6-2 민족생활어 및 직업생활어 조사 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7-1 민족 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7-2 신어 조사 지속 실시 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3) 법률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임. 본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해 기술함

10대 추진 과제	세부 과제
8.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8-1 국어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8-3 국어능력 향상 학습 시스템 개발 8-4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8-5 국어 전문 도서관 구축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9-2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9-4 도시 언어 경관 정비 및 조성 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10.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10-2 국어정책 홍보 맞춤 서비스 체제 구축 10-3 국어생활 기획 총서 발간 10-4 국어운동 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2.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는 한국어 세계화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종학당 60개소를 개설하고 한국어 교재 초급, 중급 1·2 및 교원용 지침서를 개발하고 국내외 세종학당 및 주요 기관에 보급하였다. 특히 초급·중급 교재를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9개 언어로 현지화하여 발간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기초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외 한국어 학습자들의 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의 세종학당인 누리-세종학당을 2009년에 개통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된 누리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과 2011년 각 1회씩 온라인 75시간, 현장 교육 45시간으로 구성된 세종학당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2009년부터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 교수법 등 한국어교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하여(매년 20개국 내외 300여 명 참석) 한국어교원들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공공언어 개선 분야에서는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국어문화학교 특별반을 연 2회씩 운영하였고 한글사랑지원단(2009년), 우리말 가꿈이(2010년~2011년) 등 민간단체를

지원하였다. 또한, 공공언어 개선 토론회는 물론이고 방송 언어 개선을 위한 방송사 공동 토론회를 연 1회씩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감수 지원(연평균 1,500건),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지원(연평균 66건) 등 공공 부문의 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공무원 국어사용 지침서, 차별적 표현 개선 안내서, 방송 언어 안내 지침, 신문 언어 안내 지침, 통신 언어 교육서 등을 제작·배포하고 부처별 국어책임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 연수를 연 1회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다.

편리한 국어 사용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2011년에 복수 표준어 및 표기 관련 심의를 통하여 39개의 복수 표준어 및 표기를 추가·확정하였다. 2010년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평가, 외래어 표기법 영향평가, 문장부호 규정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2011년에 표준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어문 정책에 참고·반영하기 위한 어문규범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2010년 월드컵 선수명 한글 표기 표준안 920여 개를 발표하는 등 시사·시의적 외래어 표기를 즉시 확정·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펼쳤다. 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외래어 표기 용례 48,220건, 로마자 표기 용례 12,803건, 주요 어휘 용례 8,666건을 탑재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을 통해 연평균 45,000여 건의 어문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내용을 상담하는 등 국민의 일상에서의 언어생활을 지원하였다.

국민의 언어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인 국어사전 편찬 분야에서는 2008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개정하고 인터넷판을 개통하여 상시 현행화 환경을 확보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쉽고 체계적인 풀이와 현실 언어를 반영한 사용자 참여형 100만 항목의 『우리말샘』(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10종을 편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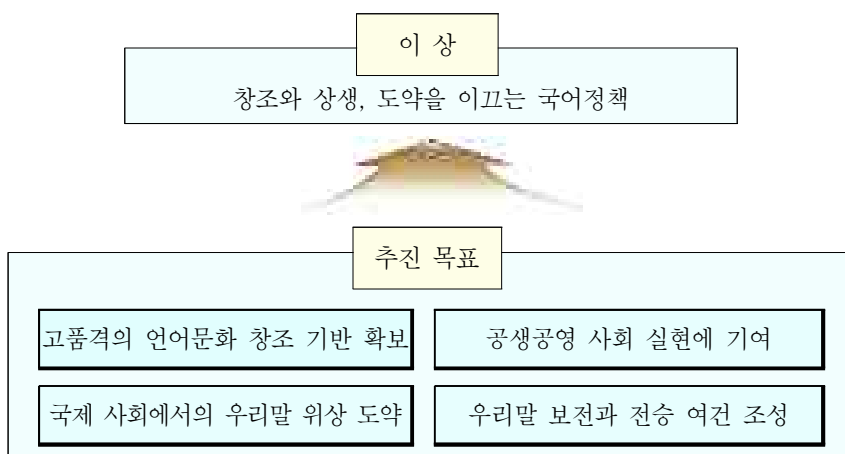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 2010년 5월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서 착공에 들어간 국립한글박물관 건립을 빼놓을 수 없다.

제3절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우리나라 국어 사용 환경을 살펴보면 직장인들의 말하기·글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청소년층의 비속어 사용이 일상화되고, 공공언어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오·남용, 정보통신 환경에서 비규범적 언어 사용 증가로 우리말 체계가 왜곡되는 등 언어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 공공언어 개선에 대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 계층이 급증하는 등 우리 사회가 다언어·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었으며, 한류 확산 등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년~2016년)은 창조와 상생, 도약을 이끄는 국어정책을 이상으로 삼아 고품격의 언어문화 창조 기반의 확보, 공생공영 사회 실현에 기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말 위상 도약, 우리말 보전과 전승 여건 조성 등을 추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체제로 구성되었다.



[그림 3-2]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5대 추진 과제’와 각 추진 과제별로 3개씩의 세부 과제가 설계되어 ‘15대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다.

<표 3-3>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5대 추진 과제	15대 세부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능력 향상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1-2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1-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2. 공생공영의 국어문화 확산	2-1 언어 소외 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2-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2-3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4-2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3 한국어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5-1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2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2.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국어정책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언어 소통의 방식이 다변화하고, 언어 사용의 주체도 다양해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어정책 시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아울러 한국어에 대한 국외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국립한글박물관의 건립으로 국어정책의 저변이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13년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도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를 추진 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분야에서는 어문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놀잇감, 이쁘다, 실뭉치’ 등 30항목의 복수 표준어를 추가하였고, 2014년에 문장부호 규정을 개정하고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용례 7만여 개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 창구를 다변화함으로써 상담 건수가 연평균 25%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상담 건수: 약 115,000건(2012년) → 약 247,000건(2016년)]

맞춤형 언어정책의 수립을 위해 표준발음법 영향평가(2012년), 제1차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2013년), 한글맞춤법 영향평가(2014년), 제3차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2015년), 한국어 발음 현황 조사(2016년)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언어·독서·화법·작문 등과 같은 실용 국어 분야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국어문화학교를 확대 운영하였다. [※ 국어문화학교 수강생: 42,243명(2012년) → 약 62,589명(2016년)]

둘째, 공생공영의 국어문화 확산 분야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두드러진다.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에 시행되었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점자법」은 2016년 5월 29일에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이어서 2016년 9월 27일에 국립국어원에 특수언어 사업을 전담하는 특수언어진흥과가 신설되어,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첫 해인 2017년부터 한국수어와 점자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기간에도 한국수어의 진흥을 위해서 농인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2년~2013년), 한국수어 전문용어 및 문화정보 구축(1,052건, 2015년~2016년), 『한국수어사전』 편찬(23,062항목, 2015년) 등을 추진하였고, 점자 사용의 촉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언어 사용 환경 실태 조사(2014년), 시각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2012년~2013년) 등을 추진하였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2013년),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 연구(2,200항목, 2015년~2016년), 제1차 남북 언어의식 조사(2016년), 북한어 말뭉치 구축(249만 어절, 2015년~2016년) 등을 추진하였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경우, 남북 공동편찬회의는 거의 열리지 못했지만 원고 집필 등은 꾸준히 진행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75%의 진척률을 보였다. 아울러 중국(2012년), 독립국가연합(2013년), 미국(2014년), 중남미(2015년), 일본(2016년) 등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도 조사하였다.

셋째, 공공언어 개선 분야에서는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 기관과 교육 기관, 한글운동 단체와 언론사 등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바른 언어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언어, 청소년 언어, 대중매체 언어 분야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보도자료 평가 및 우수 기관 표창(2014년~2020년), 공공기관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순회 강연(40개소), 신문 언어·재난 보도 언어·문화재 안내문 등 분야별 공공언어의 사용 길잡이를 제작·보급하였다. 아울러 국어책임관을 1,874명으로 확대하고, 국어 진흥 조례도 전국적으로 106건을 제정함으로써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하였다.

청소년 언어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외계어’와 비속어·축약어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2015년부터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공모전·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국립국어원 안에 바른 우리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말 꿈터’를 열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체언어 개선과 관련해서는, ‘방송언어 개선’ 사업을 통해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 개선안 마련, 연구 발표회 등을 실시하였다. 건전한 인터넷 언어문화 조성을 위해 2014년~2015년에 인터넷 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영상·만화영화 등 홍보물을 제작·방영하였고,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선플 캠페인’을 지원하였다.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부처에서 요청해 온 전문용어 표준안 10,122건을 검토·지원하였고,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별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고시한 표준안은 모두 454건에 이른다.[※ 표준안 고시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312개(2013년), 산자부 90개(2015년), 미래부 52개(2015년)] 2015년 12월에는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16년에는 공공용어 번역 통합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한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넷째, 한국어 보급 분야에서는 국외 한국어 보급을 선도하는 세종학당의 양적 성장과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첫 해인 2012년 당시 43개국 90개소였던 세종학당은 2019년에는 60개국에 180개소가 개설되었다. 대륙별로도 아시아 105개소(22개국), 유럽 38개소(19개국), 아메리카 29개소(13개국), 아프리카 4개소(4개국), 오세아니아 4개소(2개국) 등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여 운영 중이다. 수강생도 28,793명에서 72,713명으로 153% 넘게 증가하여 국외 한국어 보급의 저변이 크게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교육의 콘텐츠 개발과 강의 품질 개선, 교원의 역량 강화를 등을 통한 질적 성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세종학당 기본 교재인 『세종한국어 1~8』을 개발하여 전 세계 세종학당의 기본 교재로 활용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초·중·고 수준별로 『표준 한국어 1~2』(2013년~2016년),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6』(2013년),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2』(2013년), 한류 드라마를 활용한 『두근두근 한국어 1~4』(2012년~2015년)와 『짹짹 한국어 1~2』(2016~2017년) 등 학습자 유형과 교육 수요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였고,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 ‘한국어교수학습센터(kcenter.koreana.go.kr/)’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한국어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교원 연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매년 개최하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는 3개 부처 264 명의 한국어교원이 참석해 왔다.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체험 연수를 진행하였는데, 2012년 67명에서 2019년 140여명으로 그 수를 점점 늘려 나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하는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회에는 매년 20여 개국에서 30여 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반대로 국외 한국어교원 연수를 위해 국내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에는 매년 10여 개국 20여 명이 파견되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는 대학 한국어교육 기관 교원 공동연수회,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등을 매년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 분야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과 『우리말샘』 개통이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이 둘은 국어 정책사의 측면에서도 의의가 매우 크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하고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4년 한글날에 개관하였다. 2012년에 ‘한글박물관 종합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2년 12월에 개관 준비팀을 구성하였다. 2013년 4월 개관위원회 발족, 2013년 8월 박물관 준공을 거쳐 2014년 10월 9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것이다. 개관 기념으로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를 시작으로 한글 편지, 소설, 정보화, 글꼴, 광고 등을 소재로 10차례의 기획 전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유아, 어린이, 초등학생 자녀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20여 종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월인석보』와 『말모이 원고』 등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5,662점의 한글 자료를 보유하게 되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2016년 말까지 각종 연구, 전시, 교육 및 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564,000여 명의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었다.

2016년 10월에 개통한 『우리말샘』은 사전 이용자가 사전 집필, 즉 표제어 등재와 뜻풀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50만 항목에 실생활어 7만 5천 항목, 방언 9만 항목, 전문용어 35만 항목 등을 추가한 100만 항목 규모로 개통하였다. 기존의 국어사전은 발간 시점의 언어를 반영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말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되므로 현실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지식의 총합으로써 국어사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말샘』 개통과 동시에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본어휘 5만 항목을 탑재한 『한국어기초사전』을 개통하였고, 이 5만 항목을 10개 언어(베트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몽골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아랍어)로 대역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도 함께 개통하였다. 아울러 2012년에는 국립국어원이 그동안 구축해 온 언어 정보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정보나눔터(<https://ithub.korean.go.kr/>)’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한글문화의 확산을 위해 매년 한글날에 즈음하여 광화문 일원에서 한글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 계승과 민족문화 창달을 장려하고자 세종문화상,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화상, 한글발전유공자 포상 등을 지원하고 한글 산업화 공모전도 개최하였다.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과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2012년~2013년에 9개 권역 63개 지점의 구술 자료를 전사하였고, 어촌 지역 민족 생활어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2016년에는 9개 권역 35개 지점의 지역어를 보완 조사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지역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12년~2014년까지는 매년 지역 언어문화 축제,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지역어와 지역 언어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4절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배경

○ 언어 사용 환경 다변화와 국어 사용자의 언어의식 전환

현대사회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언어 대중이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되면서 국어 지식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규범 중심의 언어 정책은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언어생활의 편의와 국어 지식의 보급, 어문규범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문규범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어문규범을 현실화하고, 국어사전의 개방적 운영을 통해 언어 대중이 국어 지식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넓히고, 언어 정보 자원을 상시적으로 수집하여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국어 사용자가 올바른 국어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 공공언어 환경의 악화와 국민의 국어 능력 저하

과도한 축약어나 낱선 외래어가 공공의 영역에서까지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고, 과도한 욕설과 혐오 표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긴 글은 쓰는 것도 읽는 것도 버거워하고, 스마트폰이 독서 시간을 빼앗고, 어지간한 외국어는 그대로 가져다 쓰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인의 국어능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공언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두도록 되어 있는 국어책임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여 이를 국어문화학교나 국어문화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남북, 계층, 지역 간 언어 소통 단절 등 언어 문제 대두

진정한 통일은 남북의 언어 대중이 서로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 언어 통합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분야별로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준비하고, 북한의 언어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해 두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언어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저소득층 아동, 비문해 성인 등 국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국어교육 지원도 늘리고, 우리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지역어와 지역 언어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점자는 한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문자임을 천명한 「점자법」에 따라,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천명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한국어교육의 확대와 한국어의 세계화

한국어교육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세종학당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편, 지역과 계층에 따른 맞춤형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각급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에 편차가 있어 한국어교육이 품질 면에서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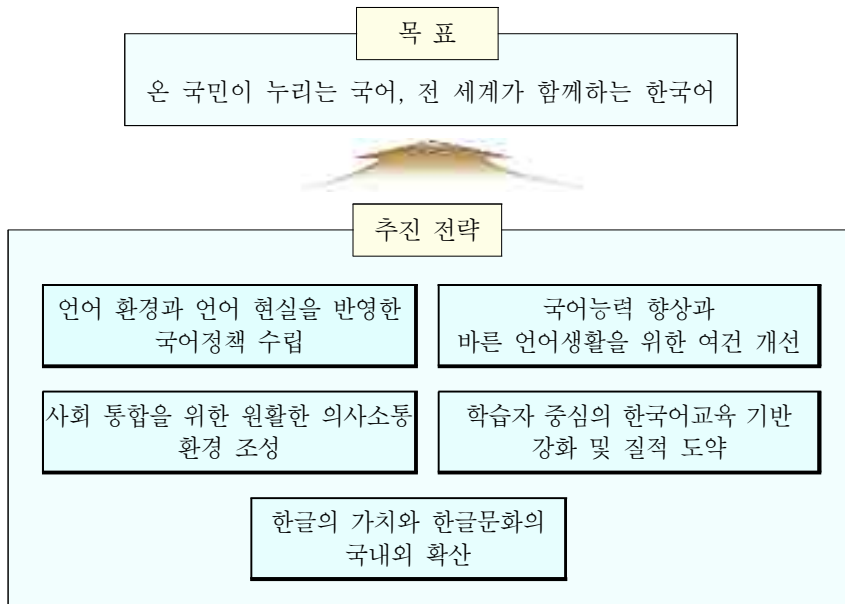
양적인 성장에 비해 내실을 다지는 데에 다소 미흡했던 세종학당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세종학당을 선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맞춤형 한국어 교재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한국어교육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여건 성숙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한글날 공휴일 지정 등으로 한글과 한글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아지고 한글문화 진흥의 기반도 탄탄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립한글 박물관은 개관 이후 소설, 광고, 글꼴 등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로 기획 전시를 개최하여 한글의 다양한 가치를 조명하고 한글 산업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글날에 즈음하여 열리는 한글큰잔치는 연인원 1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참여하면서 한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글문화 자원을 다양화하고, 한글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교육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글의 가치를 현대화·산업화할 수 있는 한글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품화에 이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2년에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문자를 통한 문화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2.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그림 3-3]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5대 추진 과제’와 각 추진 과제별로 4개씩의 실행 과제가 설계되어 ‘20대 실행 과제’로 이루어졌다.

<표 3-4>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5대 추진 과제	20대 실행 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 기반 조성	1-1 어문규범 현실화 1-2 국어사전의 개방적 운영 및 활성화 1-3 언어 정보 자원 구축 및 활용 1-4 국어 기본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2. 바르고 편리한 언어 환경 지원	2-1 공공언어 개선 활성화 2-2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2-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2-4 지역 언어문화 기반 국어문화원 활성화
3. 국민 언어 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	3-1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3-2 특수 언어 환경 개선 및 보급 확대 3-3 언어 취약 계층 지원 3-4 사회·지역 방언 정보의 구축과 활용
4. 한국어 확산과 교육 기반 강화	4-1 국외 한국어 보급 대표 기관으로 세종학당 육성 4-2 한국어교육 체계화 및 기반 강화 4-3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운영 및 교원 연계망 구축 4-4 한국어교원 연수 과정 운영
5. 한글문화 진흥 및 향유 확대	5-1 다양한 한글문화 자원의 수집 및 전시 5-2 한글문화 연구·교육 및 산업화 기반 구축 5-3 한글날 기념 및 한글문화 관련 포상 5-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3.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기간(2017~2021) 동안 케이팝(K-Pop)을 필두로 한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함께 상승하고,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정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누리소통망의 발달로 정보 생산자가 다양해지고 정보가 단시간 내 급속히 확산되었고,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해 다량의 외국어가 유입되었다. 이러한 급증하는 국내외 한국어 수요와 변화무쌍한 언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 등이 활발해졌고, 해외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새롭게 유입된 어려운 외국어를 신속하게 순화어로 대체하여 쉽고 바른 언어환경을 조성하고 국어기본법을 개정(2021.6.15)하여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등에 한글사용을 평가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1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2018~2022)> 및 <제1차 점자발전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며 ‘한국수어의 날’ 및 ‘한글 점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를 추진 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 분야’에서는 어문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어 규범정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의성에 맞는 어문규범을 정비하고, 외국 주요 인명·지명의 한글 표기를 31,000건 이상 구축하고, 3,685건 배포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전화, 온라인,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운영하며 2차 계획 대비 상담건수*가 28% 증가하였다.

* 상담 건수: 859,698건(2012~2016) → 1,100,754건(2017~2021)

또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 기반인 ‘4차 산업혁명 대비 말뭉치 구축’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모두의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를 통해 2021년 기준 21억 어절 규모(누적)의 말뭉치를 공개하였다.

둘째, ‘쉽고 바른 언어 환경 지원 분야’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2017년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알기 쉬운 용어 사용 의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 업무가 강화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기구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 협의회 등을 통해 5년간(2017~2021) 23,098건의 표준안을 검토·지원하였다. 2018년부터는 국립국어원에서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https://publang.korean.go.kr>)’에 정책 용어 상담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행정용어,

정책명, 보도자료 등의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된 문의에 대응하였고, 어려운 외국어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말다듬기 위원회를 새말 모임으로 개편하여 3차 계획 추진기간 동안 총 285개의 다듬은 말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공 용어 번역의 국가적 통일성을 위하여 2020년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제정·발표하였으며, 2021년 7월 22일에는 한식 이름 등을 표기할 때 우리말 원음을 살려 번역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공공언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쉽고 바른 언어로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1년부터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시작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을 통해 5년간(2017~2021) 1,014개교에 강의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제2차 국어 능력 실태조사(2018년) 및 202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등의 각종 국어 능력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22개소(2021년 기준)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국어 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바른 국어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였다.

셋째, 사회·문화적 언어 환경 구축 분야에서는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을 기반으로 2017년 9월 <제1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2018~2022)> 및 2018년 <제1차 점자발전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여 한국수어와 점자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0년 12월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개정에 따라 ‘한국수어의 날(매년 2월 3일)’ 및 ‘한글 점자의 날(매년 11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또한 농인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정부 정책발표, 코로나19 관련 발표 등 정부발표(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농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한민족 언어 통합을 위해 남북 교과 전문용어 통합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어 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832만 어절을 구축하고, 북한 자료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시범 구축하는 등 통일 대비 남북 언어통합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전국 155개 지점의 지역어를 바탕으로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누리집)’을 개통(2020년 2월)하는 등 지역어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한국어 확산 분야에서는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여 한국어 보급 및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처음 시작한 세종학당은 2020년 최초로 200개소를 돌파하였고, 2021년 12월 기준 전 세계 82개국 234개소에서 81,476명이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한국어 확산 중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9월 <한국어 확산계획(2020~2022)>를 수립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확충 및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도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다. 한국어 기초사전 및 한-외 학습사전(11개어)을 확충하여 보급하였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54호)’을 제정하여 이를 기반한 국외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육자료를 현지화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교육 요구에 발맞춰 2020년부터는 <사이버 한국어 초급>과 <사이버 한국어 중급>, <사이버 한국어 입문 및 심화과정> 등을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을 새롭게 구축하여 비대면 학습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제3차 계획 기간 동안 각 해외 현지로 파견된 한국어교원은 95% 증가(2017년 119명→2021년 232명)하였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는 87% 증가(2017년 35,545명→‘21년 66,395명)했다. 이렇게 증가하는 한국어 교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연 1회)’ 및 지역별 워크숍(지역별 연 1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개선’ 및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다섯째, 한글문화 진흥 분야에서는 한글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글주간」을 통해 국내외 한글 관련 다채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한글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2020년에 국제학술대회인 ‘세계한국어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의 위상 강화와 가치를 확산하였다. 2021년에는 세계한국어한마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언어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학술대회와 언어산업전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한글·한국어 관련 학자, 교육자, 산업 관계자 간 교류망을 형성하고 국내외 한국어 발전 및 확산 성과를 공유하였다. 한글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한 ‘한글

창의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지난 5년간(2017~2022) 총 63건의 작품을 선정하였고, 이중 총 13건은 상품으로 출시되어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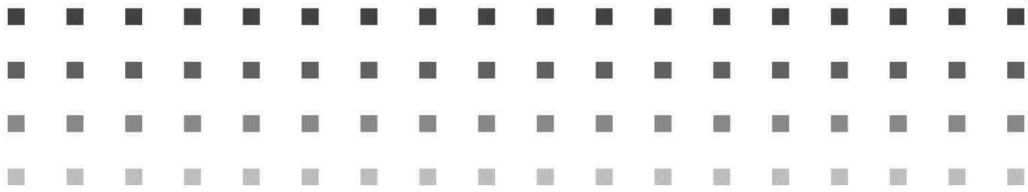
* 2015~2022 공모전 수상작 총 75점 및 '20년 기준 22개 상품화

한글문화의 중심기관인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를 국내외 확산, 공유하기 위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와 콘텐츠를 선보였다. 한글의 과거와 현재 등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 콘텐츠를 통해 한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한글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문화·예술로서 한글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전을 17회(2017~2021) 개최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현장 학습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학급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글문화 콘텐츠를 실시간 원격 교육으로 운영함으로써 쌍방향 소통교육을 실현하였다. 또한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를 주제로 한 교육 영상을 온라인 세종학당에 게시하고, 재외동포재단 및 재외한국문화원 등 유관기관에 한글 교육 영상과 교구재를 지원하여 세계속에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2019년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10만명, 1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 '17년 67만 명→'18년 69만 명→'19년 77만 명→'20년 10만 명→'21년 11만 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것도 3차 계획 상 큰 성과이다. 국립세계문자 박물관은 소통, 포용, 통섭의 매개인 문자를 통해 국민의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 문자 사에서 한글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하였다. 2017년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의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본·실시 설계 후, 11월 착공하였다. 2020년 10월 전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2월 전시·체험 설계를 완료하였다.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2017년, 2018년, 2019, 2020년 추진결과는 『2017, 2018년, 2019년, 2020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2018. 8월, 2019. 8월, 2020. 8월, 2021. 8월)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2021년 국어 정책 시행 결과는 제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4장 2021년 국어정책 시행 결과

제1절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 기반 조성

제2절 바르고 편리한 언어 환경 지원

제3절 국민 언어 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

제4절 한국어 확산과 교육 기반 강화

제5절 한글문화 진흥 및 향유 확대

제4장 2021년 국어정책 시행 결과

제1절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 기반 조성

1. 어문규범 현실화

변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일은 어문규범의 큰 과제이다.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와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유통되는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언어 변화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언어 현실과 어문규범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언어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 현실과 어문규범의 차이를 검토하고 국어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어 규범의 정비 및 보완을 위해 운영하는 ‘국어규범정비위원회’를 2021년에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하였다. 6월 1차 회의에서는 제5기 위원회를 출범하고 ‘테요’ 표기 인정, ‘만큼’의 보조사 쓰임 인정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12월 2차 회의에서는 ‘팔앙금’의 표준성 인정, ‘-고 보다’ 구성에서 보조 동사 인정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시의성 있는 외국의 인명, 지명, 용어의 한글 표기 또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외래어 규범 표기의 기초 자료로서 주요 지명을 중심으로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6,338건을 구축하였으며,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를 통해 419건의 시의성 있는 외래어 표기를 배포하였다.

국어정책의 객관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내외의 국어 정책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구축하고 있다. 국어 정책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국어정책 자료 시스템’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국어 관련 수치 자료 118건을 수집하여 ‘국어정책 자료 시스템’에 등록하여 총 626건의 국어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 국어 정책 자료 누리집

이와 함께 국어정책 및 바른 국어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식지 『섬표, 마침표』를 연 24회(매월 2회) 발간하였고 새로운 소통 환경에 발맞추어 누리소통망 매체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국어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림 4-2] 『쉽표, 마침표.』

2. 국어사전의 개방적 운영 및 활성화

2016년 10월 5일에 개통한,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은 국어 사용의 주체인 언어 대중이 직접 국어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개방형 국어대사전이다. 2009년 ‘쉽고 살아 있는 사전 편찬’ 계획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2009. 6. 24.)에 보고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개한 결과물이다. 일상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 100만여 개의 어휘를 수록하고 품사, 뜻풀이, 발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 더하여 어휘 역사 정보, 규범 정보, 수어 정보, 음성·사진·영상 정보, 어휘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언어문화 정보 집합체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 4-3] 『우리말샘』 개통 당시 수록 규모 및 구성 내용

『우리말샘』은 생생한 언어생활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전으로 일반인의 집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개통 이후 일반 이용자들은 꾸준히 『우리말샘』에 새로운 표제어를 등록하거나 기존 내용을 편집하는 등의 참여를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총 70,301건의 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일반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는 『우리말샘』이 개방형·참여형 국어대사전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일반인이 참여하여 집필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수를 거친 12,471건은 ‘전문가 감수 정보’로 사전에 반영되어 『우리말샘』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되고 있다.

<표 4-1> 『우리말샘』 연도별 일반인 참여 및 반영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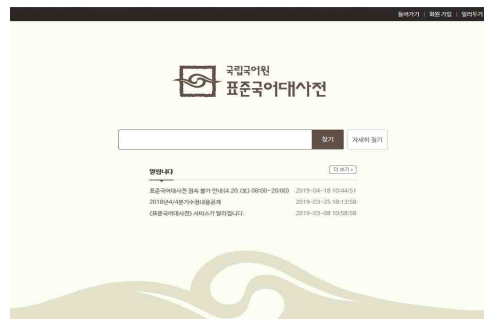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2016년 (10월 개통 이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인 등록 요청	3,006	7,467	36,162	56,619	79,941	70,301
전문가 감수 사전 반영	1,644	2,208	8,232	10,286	11,374	12,471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를 보완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기별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정보를 수정·보완하여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뜻풀이·띄어쓰기 수정 등 총 708항목의 정보를 수정·보완하였고, 2022년부터 추진하는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말샘』 화면



『표준국어대사전』 화면

[그림 4-4] 『우리말샘』 과 『표준국어대사전』 화면

3. 언어 정보 자원 구축 및 활용

‘21세기 세종계획’(1998년~2007년) 이후 언어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적인 언어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언어처리 시스템 개발의 기초 자원으로서 대규모 언어 자료인 말뭉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우리말 자료의 부족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한국어 서비스 수준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당시 공개된 국어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구축된 2억 어절에 불과했고,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한 자료는 소규모인 데다 저작권 문제 등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았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말뭉치가 민간에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국가 공공재로서의 국어 말뭉치 구축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인 대규모 말뭉치 구축에 대비하여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첫해인 2018년에는 ‘국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현대 언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어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저작권 문제를 감안한 구축 방안 마련과 적정 규모의 말뭉치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말뭉치 구축에 대비하여 시범적으로 현대국어 문어 원시 말뭉치 2,650만 어절과 구어 원시 말뭉치 500만 어절 등 총 3,150만 어절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8년 국어 자원 구축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말뭉치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축 지원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였다.

인공지능 언어처리 시스템의 개발에서는 학습할 수 있는 말뭉치의 분량이 많을수록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다. 한국어 처리를 위해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말뭉치는 세종계획을 통해 구축된 2억여 어절의 말뭉치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9년에는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2억여 어절의 말뭉치에 7억6천9백만 어절을 추가로 구축하여 언어처리 학습자료로 시급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인 10억 어절을 관련 산업 발전과 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신문, 책, 보고서 등의 문어와 일상 대화, 구어, 준구어, 메신저 대화,

누리소통망(SNS), 댓글, 블로그, 게시판의 글 등 웹에서 사용된 다양한 언어 자료를 모아 한국어 원시 말뭉치 18억여 어절을 구축하였다. 이 원시 말뭉치는 분량 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원문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말뭉치의 산업적 활용의 제약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8억여 어절의 원시 말뭉치 외에도 형태, 어휘의미, 개체명, 상호참조 해결, 주격 무형 대용어 복원, 구문, 의미역 분석 정보를 부착한 분석 말뭉치와 술어 격틀 정보, 문서 요약, 어휘 관계 자료, 문법성 판단 자료 등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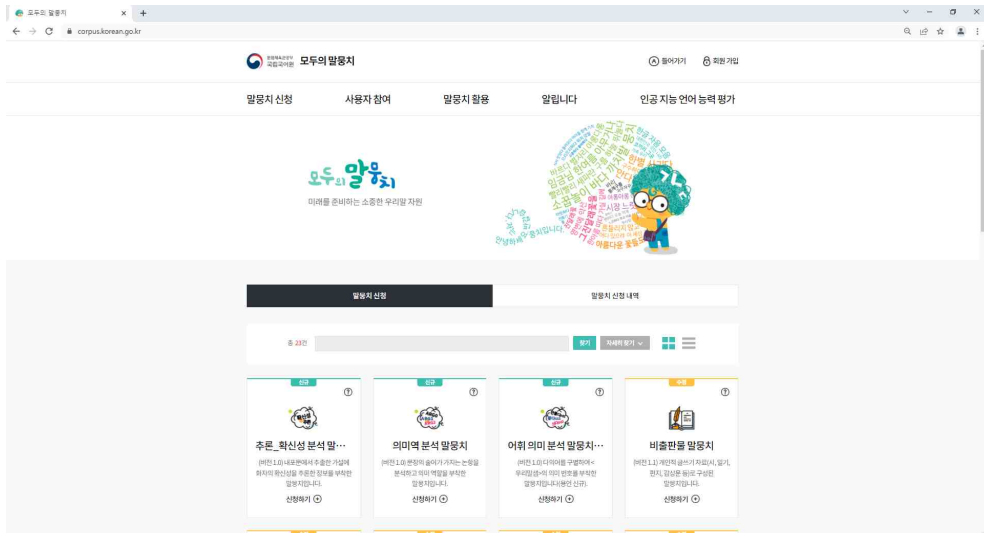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이 최신의 언어 자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신문 기사와 일상 대화 원시 말뭉치는 매년 구축하고 고도화된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여 공개하는 상시 구축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약 1억 어절의 신문 자료와 500시간 이상의 일상 대화 자료를 원시 말뭉치로 구축하고, 구문 분석 말뭉치, 무형 대용어 복원 말뭉치, 개체명 분석 말뭉치, 의미역 기술 모형 자료, 감성 분석 말뭉치, 함의 분석 말뭉치, 메신저 말뭉치를 활용한 어휘 의미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2020년 8월 25일에 ‘모두의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를 통해 언어 연구 및 인공지능 한국어 처리 관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초 개방하기 시작하여 2021년 말 현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된 말뭉치 23종 21억 어절을 배포하고 있다.

<표 4-2> ‘모두의 말뭉치’ 공개 자료

구분	종류	내용
원시 말뭉치 (8종)	신문 말뭉치 2종	'09년~'19년 작성된 43개 매체의 신문 기사 411만여 건
	문어 말뭉치	책, 잡지, 보고서 등 문어 자료 20,188종
	구어 말뭉치 4종	일상 대화(음성, 텍스트), 방송 자료 등 구어 전사 자료 26,355건(15,600시간 분량), 드라마 대본 자료 4,102건
	비출판물 말뭉치	초등학생부터 80대 성인까지 총 5,937명이 작성한 글쓰기 자료 10,735건
분석 말뭉치 (15종)	형태 분석 말뭉치	품사 등 형태 표지를 붙인 자료 300만 어절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	단어(체언 용언)에 세부 의미 번호를 붙인 자료 300만 어절
	개체명 분석 말뭉치 2종	고유 명사 등 개체명 경계를 표시하고 의미 분류 표지를 붙인 자료 800만 어절
	구문 분석 말뭉치	문장 내의 의존 관계 표지를 붙인 자료 200만 어절

구분	종류	내용
	무형 대용어 복원 말뭉치	문장 내 생략된 주어와 목적어를 맥락에 따라 복원한 자료 300만 어절
	상호 참조 해결 말뭉치	한 문서에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상호 참조 또는 공지시 관계) 것들을 서로 연결한 자료 300만 어절
	문서 요약 말뭉치	신문 기사 4,389건을 대상으로 주제문을 선택하고 요약문을 작성한 자료
	문법성 판단 말뭉치	한국어 사용자가 19,940개 문장에 대한 문법성을 평가한 자료
	유사 문장 말뭉치	17,959개 문장에 의미가 유사한 10개 내외의 문장(기계 생성, 사람 작성)을 생성, 추가한 자료
	어휘 관계 자료	한국어 사용자가 20만 어휘 쌍의 어휘 관계(비슷한말, 반대말, 상위어, 하위어 등)를 평가한 자료
	추론_확신성 분석 말뭉치	회자가 내포문에서 추출한 명제(기설)에 대해서 확신 정도를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 '모순' 표지를 부착한 자료 478건
	의미역 분석 말뭉치	문장의 술어가 가지는 논항을 분석하고 의미 역할을 부착한 자료 200만 어절
	감성 분석 말뭉치	웹 말뭉치를 대상으로 작성자의 주관성이 드러나는 표현(감성 표현)에 감성 분석 정보를 부착한 자료(문서) 2,081건
	의미역 기술 모형	문어 분석 말뭉치 내 상위 술어 대상으로 의미역을 기술한 자료 3,660건



[그림 4-5] '모두의 말뭉치' 공개(2021. 12.)

2021년은 2020년에 발간된 신문 기사 1억 어절, 일상 대화 1,000시간, 온라인 대화 15만 대화 등의 원시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개체명 분석 말뭉치, 개체 연결 말뭉치, 감성 분석 말뭉치, 합의 분석 말뭉치, 회의록 요약 말뭉치, 유사문장 생성 말뭉치, 맞춤법 교정 말뭉치 등의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어 확산을 위해 한국어-외국어(베트남어, 태국어, 인도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캄보디아 크메르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어) 병렬 말뭉치 구축 작업에 착수하여 2022년 상반기에 800백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말뭉치 등 국어 자원 구축 및 통합 관리, 유통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말뭉치 통합 시스템은 2018년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에 더하여 2019년에는 말뭉치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20년에는 구축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말뭉치 배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021년에는 대량 말뭉치의 구축 관리, 배포, 유통 기능 등을 보완하고 추가 개발하였다.



[그림 4-6] 말뭉치 통합 시스템 개념도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최근에는 사람과 유사하게 언어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을 경쟁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언어처리 연구자들은 미국의 글루(GLUE), 슈퍼글루(SuperGLUE) 등이 제공하는 공통된 과제를 성능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들(BERT, GPT-3 등)을 발전시켜 왔다. 국립국어원은 이와 같은 체계가 국어를 기반으로도 운영되어야 한다는 민간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 ‘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계기에 ‘2021년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대회’를 시범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대회의 참가자들은 ‘문장 문법성 판단’, ‘동형이의어 구별’, ‘인과 관계 추론’, ‘판정 의문문’ 등 4개의 문제의 정답을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찾아야 했다. 예선에는 총 30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팀)들은 제출한 시스템의 성능을 매일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누리집 (<https://corpus.korean.go.kr>)’에서 확인하고 개선하였다. 본선에서는 예선 상위권 참가자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공개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예선 및 본선 합산 점수와 시스템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총 9개 팀이 수상하였다. 대상은 예선 및 본선 점수 합산 1위(83.20점)인 팀비시(Team_BC)가 차지하였다.

2021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합수기간 2021년 9월 15일(수) - 11월 1일(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2021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를 개최합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인공지능의 한국어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과제** - 문장 문법성 판단, 동형이의어 구별, 인과 관계 추론, 판정 의문문 (총 4개 과제 모두 해결) (GLUE의 CoLA, SuperGLUE의 WIC, COPA, BoolQ 과제 참조)
- 참가 자격** - 국어 정보처리 또는 국어 인공지능 관련 개인, 단체 ※ 중학 제출 가능하나, 중학 수상은 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일정**

9/15(수)	과제 데이터 세트(Train, Dev, Test) 공개
9/15(수) - 11/1(월)	대회 신청서 접수 및 테스트 세트 예측 결과 제출, 리더 보드 게시
11월 초	리더 보드 상위권 출품작 비공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모델 검증(2차 심사)
11/19(금)	시상식
- 제출 방법** -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http://corpus.korean.go.kr>)에서 제출
- 시상 내용**

시상	내용	기준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	1등
관상	국립국어원장상 및 상금	1등
준상	국립국어원장상 및 상금	2등
동상	국립국어원장상 및 상금	3등
특별상	단체상장 및 상금	비정
- 문의**
 - * 수상자 특전: 2022년 NLP AI Fellowship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 * 관련 단체 지원 시 소거 전형 면제 또는 일부 수상 금액으로 확대(내역 미정)

~ 2021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사무국 연락처: ai.contest.2021@gmail.com
 ~ 대회 운영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http://corpus.korean.go.kr>)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후원: NAVER, 연세대학교, SK Telecom, iocomex, NHN, diquest
 후원: NCS, 연세대학교, SK Telecom, iocomex, NHN, diquest

[그림 4-7] 2021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대회 포스터

국립국어원은 언어자원 표준화의 추진을 위해 문자코드 표준화 위원회(SC2) 및 국제한자특별위원회(IRG)의 일원으로 국제회의에 참여해 왔다. 한자특별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추진하는 국제문자세트(Universal Multiple-Octet Coded Character Set)에 포함될 통합 한자 코드를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2020년은 코로나 19 여파로 국제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국립국어원은 2019년 제52차 회의에 제출되었던 작업목록인 ‘2017(확장 영역 H(Ext. H))’에 제출된 약 40여 자 검토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언어자원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에도 온라인 문자코드 표준화 국내회의와 제57차 온라인 국제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문자가 컴퓨터상에서 원활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하였다.

제2절 바르고 편리한 언어 환경 지원

1. 공공언어 개선 활성화

공공언어란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가리킨다. 「국어기본법」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언어에는 어려운 한자어, 불필요한 외래어, 비문법적인 표현, 장황하고 권위적인 표현 등이 다수 포함되어 국민과의 소통에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언어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들어 공공 부문의 언어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언어 개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제도적 보완,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 사업 내용 다각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언어 개선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7년 9월 22일에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6년 769명이었던 국어책임관이 2021년 말에는 2,27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2021년 12월 기준으로 총 130개(광역시자치단체 16곳, 기초자치단체 104곳, 교육청 10곳)의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다.

2017년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알기 쉬운 용어 사용 의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 임무가 강화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기구로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되었다. 이에 맞춰 국립국어원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 운영 편차 문제 등 표준화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 의한 전문용어 발굴을 유도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검토 단계부터 실무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관 합동의 다각화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기관인 기상청과 해양경찰청의

전문용어 표준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금융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4개 기관의 재난 안전, 금융, 교육, 과학 기술 관련 전문용어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총 256개의 표준안 목록을 만들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2020 전문용어 표준화 안내서』(500부)를 발간하여 전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2021년에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개 기관의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용어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총 65개의 전문용어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표 4-3> 2021년 전문용어 민관 합동 총괄 지원단에서 마련한 표준안(일부)

부처	대상 용어	표준안
교육부	업사이클	새^활용
	LMS	학습^관리^시스템
	마이크로디그리	최소^학점^학위
	홈쿨링	재택^교육
	모듈러^교사	조립형^학교^건물, 임대형^이동식^학교^건물
	데이터^리터러시	데이터^문해력, 데이터^문식성
	온라인^튜터	온라인^지도^교사
	마스터클래스	명인^강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통합보안관제센터, 보안운영센터, SOC	보안^관제^센터
	PET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 개인^정보^보호^기술
	개인정보^라벨링	개인^정보^처리^표식
	SSL	보안^소켓^계층
	프로파일링	개인^성향^분석
	DPIA	개인^정보^영향^평가
	옵트아웃	사후^거부^설정, 사후^거부
	옵트^인, opt^in	사전^동의^설정, 사전^동의

한편, 용어를 통합 구축하고 총괄 관리, 보급 하는 플랫폼의 부재로, 각 기관·단체들이 제각각 용어 자료를 구축해 왔다.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정보(분야, 정의문, 사용 예시, 원어, 관련 용어 등)가 누락되는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용어 자료가 없었으며, 지식을 표상하는 전문용어에 대한 국가적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찍이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에서는 전문용어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에서 전문용어를 관리하며, 특히 캐나다에서는 400만 개의 전문용어를 구축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분야별 용어를 체계적으로 구축·정비·보급하는 용어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말로 과학 기술 등의 지식을 창출·공유·확산하고,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소통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020년에는 용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어려운 공공용어 분석 및 개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에는 용어 구축, 보급,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용어, 법제처 법령용어를 에이피아이로 연결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서 고시한 표준전문용어, 한국정보통신협회 정보통신용어,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 한국전력공사 전력용어 등 기관·단체별 용어 20종 80만 건을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분류·정비하고 있다.

2.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부터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 ‘안녕! 우리말’을 추진하여 바른 언어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과 민간 중심의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지원해 왔다. 2015년 실태조사에서 성인의 88%가 ‘우리 사회 언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92.1%가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 부문의 노력에 더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에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파급력이 큰 방송을 통해 한글날 기념 기획 다큐멘터리 ‘말의 미래’(문화방송)를 제작·방영하여 언어문화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전망을 예측하며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언어문화개선 기획방송 ‘노래가 된 시’(한국방송)를 제작·방영하여 글이 지닌 감동을 노래로 표현하며 아름다운 우리말을 소개하였고, 세대 간 언어 갈등을 극복하는 내용의 ‘우린 통역이 필요해’(문화방송)를 제작·방영하여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도모하였다.



[그림 4-8] 한글날 특집방송 ‘노래가 된 시’(한국방송, 2021. 10. 9.~10. 방영)

또한, 청소년이 언어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언어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다. 찾아가는 언어문화개선 문화예술공연사업 ‘안녕! 우리말’ 사업을 진행하였고(‘21년 12개 학교 대면·비대면 공연), 전국 초등·중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21년 399개 학교)을 지원하여 쉽고 바른 우리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대학생 중심의 언어문화개선 활동을 펼치는 ‘우리말 가꿈이’를 양성하였다(‘21년 726명).

2016년 10월에 개관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운영 중인 ‘우리말 꿈터’ 체험 프로그램은 2021년에 143회(3,130명 참여) 운영하였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체험 꾸러미를 체험 활동이 활발하게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4-4> 최근 5년간 우리말 꿈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참여 인원	4,665명	4,102명	3,727명	1,340명	3,130명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개발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초등용: ‘바르게 곱게 함께’, 중등용: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2019년과 2020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초·중교 12개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강사연수를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표 4-5> 2021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주요 내용(중등)

차시	수업 내용	주요 내용
1-2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열 의식 인식하기 • 서열 의식에 담긴 문제점 이해하기 • 서열 의식이 담긴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3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적 표현을 일상 대화 상황 속에서 찾기 • 성차별적 표현의 문제점 이해하기 • 성차별적 표현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4	지금, 마음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화와 태도 인식하기 • 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기 • 부모님께 고마움과 사랑 표현하기
5-6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및 대화 상황 인식하기 • 예의를 갖추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표현 방법 이해하기 •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언어 표현 사용하기
7-8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언어 활동의 파급력과 영향력 이해하기 • 댓글의 다양한 목적과 기능 인식하기 • 바람직한 온라인 언어 활동 실천하기
9-10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경청하기 •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네기 •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며 말하기



[그림 4-9]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교재(초등, 중등)

한편, 2020년부터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을 전개하여 외국어 도입 초기에 신속하게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마련하였다. 대체어는 ‘새말모임(회의)’ 및 국민수용도 조사를 거쳐 2020년에 145개, 2021년에 71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30개)의 보도자료 및 기사에서의 외국어 사용 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유도하였다.

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국어능력은 의사소통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다. 국어능력이 부족하면 생각을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치르는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사회는 소통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개개인이 새로운 언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국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종합적인 국어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은 2013년에 이어 2018년에 ‘제2차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의 제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공통 문항을 기준으로 동등화 과정을 거친 결과, 전체적으로 201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150점 만점을 기준으로 듣기 영역이 2.0점(96.2→98.2), 말하기 영역이 0.2점(89.9→90.1), 읽기 영역이 2.6점(116.4→119.0), 쓰기 영역이 1.1점(120.2→121.3), 문법 영역이 2.2점(103.3→105.5) 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에서는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직업군, 학력군에 따른 국민의 국어능력의 양상도 파악하였다. 남성과 여성은 두 집단 간 국어능력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직업, 학력 등의 변인은 국어능력 총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변인을 살펴보면 국어능력의 평균 점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20대~50대와 60대의 점수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뿐,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의 평균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직업군의 경우 정신노동 직업군을 가진 집단이 육체노동 및 기타 직업군을 가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학력군의 경우 대학 재학 이상 학력군이 고졸 학력군에 비해, 고졸 학력군이 고졸 미만 학력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 5년간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이

꺾을 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국어능력이 상당히 저조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국어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어원에서는 2018년도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어르신 국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지방문화원 등과 협조하여 13개소 11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및 일반 성인 대상의 국어 연수 프로그램인 ‘국어문화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국립국어원 내부에서 운영되는 ‘원내 국어문화학교(전문 과정, 특별 과정)’와 외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일반 과정, 기획 과정)’가 있다.

‘원내 국어문화학교’에서는 교사, 공무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어문규범, 공공언어의 이해, 공문서 바로 쓰기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였고 2021년에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중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총 26회 1,371명이 교육을 수강하였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교육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법제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획 과정을 확대하는 등 기관 맞춤형 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총 157회 8,587명이 2021년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의를 수강하였다.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집합교육의 비중이 줄어들어 따라 온라인 교육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전년(3,420명) 대비 82% 증가한 28,103명이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강좌를 수료하였다. 향후 온라인 교육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여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적극 개발 보급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표 4-6>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2017년~2021년)

구분(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원내과정	횟수 (회)	28	26	27	17	26
	인원 (명)	2,507	2,125	2,194	812	1,371
찾아가는 과정	횟수 (회)	530	567	463	107	157
	인원 (명)	47,227	51,659	35,839	6,771	8,587
온라인 과정	인원 (명)	2,808	2,164	2,912	3,420	28,103
인원 총계(명)		52,542	55,948	40,945	11,003	38,061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국어를 사용하며 생겨나는 궁금한 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국어 생활을 돕기 위한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의 상담 건수는 총 193,453건이었으며, 상담 매체별로는 가나다전화 59,139건, 게시판(온라인가나다) 37,960건, 누리소통망을 통해서는 96,35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분야는 어문 규범과 국어 문법, 언어생활, 국어 교육, 사전, 국어 정책 등 다양한데, 한글 맞춤법 관련 문의와 국어의 형태론, 어휘 의미 등 국어 문법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 상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상담원과 어문규범 및 사전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담원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4-7>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상담 건수(2017년~2021년)

구분(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화	72,924	91,920	76,744	70,228	59,139
게시판 (온라인가나다)	41,537	42,044	35,107	38,354	37,960
누리소통망	116,435	115,087	104,859	106,623	96,354
총계	230,896	249,051	216,710	215,205	193,453

4. 지역 언어문화 기반 국어문화원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역에 있는 국어문화원과 협력하여 국민의 언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수행하고, 지역의 언어환경 및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각 지역 언어문화 자원의 보전과 홍보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 연계하여 지역의 공공언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지역별·수요자별 특성을 반영한 국어교육 및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공무원·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을 위한 문해교실, 이민자 대상 단계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군부대 대상 병영 언어 예절, 장애인 대상 국어 소통능력 교육 등 다양한 수요자 대상 맞춤형 국어능력 향상 교육을 지원하였다. 일부 국어문화원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지역민의 국어생활에 관한 상담을 수행하였다.

국어문화원에서는 지역의 언어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사연구 및 지역어 진흥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대 국어문화원은 대구 지역의 토박이말 관련 언어·문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목포대 국어문화원은 전남 방언사전을 전산 자료화하여 사전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상명대 국어문화원은 충청남도 토박이말 200여개를 조사하여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제주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사라져가는 제주어 보존을 위해 구술 자료집을 발간하는 ‘제주어 생애 구술 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하여 세종나신 날, 한글날 등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국어 문화 확산 및 국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한글날을 계기로 경상대 국어문화원은 학술대회 ‘한국어 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개최하였고, 세종국어문화원에서는 세종나신 날 계기 국민들이 참여하여 퀴즈를 푸는 ‘세종문답’ 행사를 개최하였다. 울산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손편지 쓰기’와 ‘삼행시 공모전’을 개최하고, 제주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온라인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 연계하여 공공언어 실태를 파악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별 문화재 안내판 문구를 쉽고 바르게 다듬는 사업도 적극 수행하였다.

<표 4-8> 국어문화원 주요 추진 사업(2021년)

구분	세부 사업
국어능력 향상	국어생활 상담 및 교육, 공공기관 국어 상담 및 감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지역 전담, 국어교실 운영(어르신을 위한 글쓰기 문화학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글쓰기 학교) 등
지역 특성화	지역 방언 자료 정리·보존, 지역어 말하기 대회 개최 등
언어문화 개선	순화어 활용, 지방자치단체 공공언어 실태 조사, 관광지 안내문·지역 표지판 조사 및 개선, 우리말 가꿈이(대학생 언어문화 개선 동아리)를 통한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 추진 등
국어 관련 행사	세종대왕 나신 날·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글짓기 대회, 지역 축제 참여 등

제3절 국민 언어 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

1.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2018년 남북 정상 회담 등으로 남북 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그러나 남북 언어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남북 간 소통과 이해를 앞당기는 일이므로 남북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 마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개 분야의 전문용어 9,540항목을 비교·분석하여 3,305항목의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동안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를 비교대조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 기준(문법성, 윤리미학성,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을 보완하고, 기준별 우선 적용 순서를 정하는 등 '남북 전문용어 통합 지침'을 정비하였다.

<표 4-9> 2015년~2019년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연도	분야	검토 개수	통합안 개수
2015	수학	352	146
	과학(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	1135	249
2016	체육	1,173	935
	수학	483	265
	과학(물리, 생물)	548	215
2017	국어(문법, 문학, 기능교육)	2,200	801
2018	역사	2,049	363
2019	음악	1,124	200
	미술	476	131
합계	12개 분야	9,540	3,305

또한 남북 언어 통합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북한어 말뭉치 구축 사업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93만 어절(문어 40만 어절, 구어 53만 어절)을 구축하여서 지금까지 834만여 어절을 구축하였다.

<표 4-10> 북한어 균형 말뭉치 구축 현황

(단위: 어절)

연도	문어		구어		합계
	원시	분석	원시	분석	
2015년	312,961	54,117	100,076	10,105	477,259
2016년	1,002,061	627,529	301,218	100,590	2,031,398
2017년	1,004,284	501,478	301,222	100,711	1,907,695
2018년	1,000,000	500,000	100,000	100,000	1,700,000
2019년	800,000	300,000	100,000	100,000	1,300,000
2020년	200,000	200,000	330,000	200,000	930,000
합계	4,319,306	2,183,124	1,232,516	611,406	8,346,352

2021년에는 북한 자료 활용 방안 연구 및 시범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북한 언어 자료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탈북민 및 탈북민 접촉자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 자료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북한 언어 자료 구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는 남북 공동편찬회의가 중단되는 동안 자체적으로 사전 원고를 집필하고 새 어휘 발굴, 말뭉치 구축, 삽화 제작 등을 진행하여 2021년 12월 현재 최종 목표 대비 81.1%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2. 특수언어 환경 개선 및 보급 확대

2016년 8월에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점자법」이 2017년 5월에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문자로서 공인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한국수어와 점자의 원활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기초 자료 구축과 연구를 진행하며, 교육과 홍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종합적,

체계적 계획 수립과 착실한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어와 점자의 진흥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에 ‘제1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는 ‘제1차 점자 발전 기본계획 (2019~2023)’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 발전 시행계획’과 ‘점자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점자 발전 기본계획’은 “어디서나 만나는 점자, 점자로 넓어지는 우리말”을 목표로 삼아 3대 추진 과제와 10대 실행 과제를 선정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1> 제1차 점자 발전 기본계획 개요

(추진과제 1) 점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점자 규범 정비 및 보급
- 점자 전문인력 양성 환경 개선
- 점자 전문가 위원회 운영

(추진과제 2) 점자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

- 점자 사용 실태 조사
- 점자 교육자료 연구 개발
- 교과용 도서의 점자 제작 및 보급
- 점자 국제 교류 및 남북 점자 연구

(추진과제 3)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

- 점자 출판 시설 지원
- 정보화 기반 점자 자료 보급 활성화
- 점자 인식 개선 및 점자문화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2018년에는 시각장애인 교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점역 교과용 도서에 지도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점자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18. 6. 13.)하였고, 2020년에는 매년 11월 4일을 한글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는 「점자법」 개정·시행(2020. 12. 8.)을 통해 점자 관련 법정기념일을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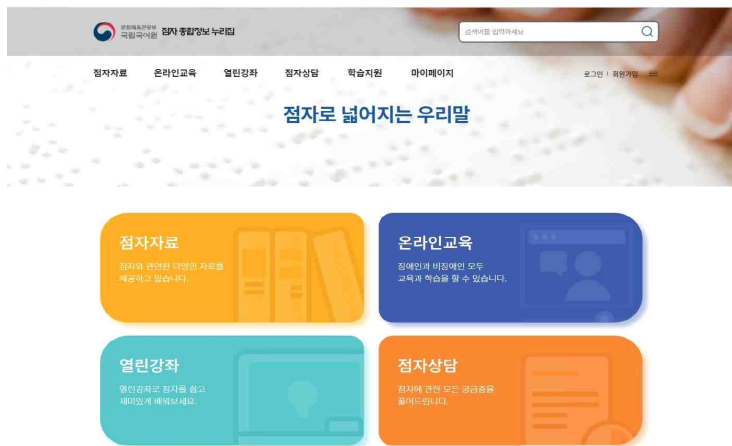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 사용 촉진과 점자 출판 시설의 역량 강화, 점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점자 출판 시설(7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점역·교정사 양성 교육, 점자 출판 실무 교육, 점자 인식 개선 활동, 시각장애인의 언어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점자 자료(점자 스티커, 전문분야 점역 도서 등) 제작·보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점자규범 정비와 연구를 위해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국외 점자 자료 3종(일본 수학 점자, 스페인 점자, 미국 점자 문서 편집 양식(Braille format))을 번역하였다. 점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및 교육 자료(50종)와 선거 공보물(점자형 선거공보 102종, 점자투표안내문 3종)의 점자 표기 양상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고, 점자 정보화 사업으로 목자-점자 병렬말뭉치를 구축(100만 어절)하고 온라인 점자 콘텐츠 등 점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을 개발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점자 자료 제작 지침’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점자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전자 점자도서(54건)와 전자 점자악보(73건)를 제작하고, 점자도서 125건과 점자악보 27건에 대한 출력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수권 보장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의 보급(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사용 450책 3,761부) 및 학습 보조 자료 개발·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다.



[그림 4-10]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 대표 화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한국수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한국수어교원은 2018년에

농인 13명이 포함된 35명이 처음으로 배출된 이후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까지 355명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19년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 시작된 후 2021년에는 ‘제3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25명이 응시하여 56명이 합격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에 따라 2017년에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2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한국수어 전문가 양성과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존에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2개소(경기, 강원)에 대한 재지정과 함께 한국수어교육원 1개소(전남)를 신규 지정하였다.

또한 2020년 12월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에 따라 한국수어의 날(매년 2월 3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2021년에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하고 한국수어주간(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운영하여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수어 연구 기반의 확충을 위해 한국수어 문법서를 발간하였다. 2019년에는 한국수어 음운·형태 분야를, 2020년에는 통사·의미 분야의 문법을 기술하였으며 2021년에는 각 분야의 기술 내용을 정비하여 발간 및 배포하였다.

한국수어 교육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과 한국수어사전 편찬 사업도 지속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강원, 서울, 전남, 전북 지역의 언어제공자 82명을 대상으로 146시간 분량의 원시 말뭉치와 123분 분량의 주석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수어 사전과 관련하여 기존 《한국수어사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한국수어에 기반한 새로운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편찬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1년에는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의 수어 표제어 450개를 집필하였다.

한편 농인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하여 2019년 12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코로나19 관련 발표 등 정부 발표(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지원하였다(총 555건). 현장 수어 통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보급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농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내용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코로나19 관련 새수어에 대하여 수용도가 높은 수어 표현을 구축·보급하는 새수어모임(3회)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수어 통역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10회).



[그림 4-11] 수어 통역 제공 화면

3. 언어 취약 계층 지원

국립국어원은 언어 취약 계층 아동의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8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강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4,107개소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4,407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체 이용 아동은 10만 여명이 넘는다.



[그림 4-12] 전국 지역아동센터 현황
(출처: 아동권리보장원(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누리집)

국립국어원은 2021년에 전국 2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교재, 동화책 등을 제공하고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국어교육을 지원하였다. 교육 강사를 파견한 20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개 반을 개설하여 각 20차시, 총 400차시의 교육을 운영하여 248명의 아동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표 4-12> 2021년 지원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	기관명
인천	남구지역아동센터
	꿈자람지역아동센터
경기	의정부 은혜지역아동센터
	의정부 한빛지역아동센터
대전	도담도담지역아동센터
	송강지역아동센터
	예찬지역아동센터
경남	원원지역아동센터
	꿈샘지역아동센터
대구	로템나무지역아동센터
	선유지역아동센터
전북	개정지역아동센터
	해님지역아동센터
울산	여럿이함께지역아동센터
	꿈자람지역아동센터
경북	비타민지역아동센터
	참사랑지역아동센터
충북	증평지역아동센터
	영운지역아동센터
충남	성환지역아동센터

4. 사회·지역 방언 정보의 구축과 활용

지역어는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언어문화와 지역민들의 정서가 담겨 있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며, 국어의 역사이자 현재의 국어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한 부분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 매체의 발달, 표준어 보급 정책 등으로 지역어의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평소에 표준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2010년 47.5%에서 2020년에는 9.2%가 증가한 56.7%로 나타났다. 지역어의 마지막 사용처인 일상생활에서도 지역어의 사용 비중이 10년 사이에 9.2%나 축소된 것이다. 제주 지역어의 경우, 유네스코(UNESCO)가 지난 2011년에 소멸 직전 단계의 언어로 지정했을 정도이다.

지역어의 소멸은 그 언어 체계에 반영된 사고와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역어 사용 비중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우리 국민의 50.9%는 지역어는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이므로 보호가 필요하고, 지역어 사용자의 정체성 및 정서 형성에 중요하므로 유지·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는 소멸해 가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 단위의 지역어를 조사하는 한편, 2015년부터는 일반 국민이 지역어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을 개발하였다. 소멸 위기의 지역어 조사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어 조사가 불가능한 수도권 14개 시군을 제외한 전국 155개 지점(149개 시·군)의 지역어를 조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표 4-13> 국내 지역어 조사 지점 현황(2004년~2020년, 총 155지점)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 (7)	용인시	삼척시	-	공주시	완주군	-	경주시	고성군	제주시 건입동
2005 (9)	화성시	원주시	제천시	대전시	남원시	곡성군	상주시	창원시	제주시 북제주군 한경면
2006 (9)	포천시	양양군	청원군 (현 창주시)	논산시	무주군	진도군	청송군	창녕군	서귀포시 호근동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9)	파주시	홍천군	충주시	서천군	군산시	영광군	고령군	산청군	서귀포시 표선면
2008 (9)	양평군	평창군	옥천군	예산군	고창군	보성군	청도군	남해군	제주시 구좌읍
2009 (9)	이천시	인제군	보은군	서산시	임실군	영암군	의성군	울산시	서귀포시 색달동
2010 (1)						신안군			
2011 (8)	강화군	정선군	영동군	천안시	-	광양시	봉화군	하동군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2015 (20)	-	철원군, 화천군, 강릉시	단양군, 괴산군	당진시, 보령시, 금산군	진안군, 부안군, 정읍시	강진군, 고흥군, 여수시	울진군, 김천시, 영천시	함천군, 함양군, 거제시	-
2016 (15)	-	고성군, 횡성군	음성군	연기군 (세종시), 홍성군	익산시, 장수군	담양군, 구례군, 완도군	문경시, 안동시, 영덕군	밀양시, 통영시	-
2017 (10)		춘천시	진천군	부여군	김제시	무안군, 해남군	예천군, 포항시	사천시, 김해시	
2018 (10)	연천군	양구군	-	아산시	순창군	순천시, 장흥군	영양군, 군위군	거창시, 진주시	-
2019 (20)	가평군, 시흥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평택시	영월군		청양군, 태안군		광주광역시,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구미시, 성주군, 영주시, 칠곡군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2020 (19)	서울특별시, 수원시, 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인천 광역시, 용진군 (인천 광역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증평군	계룡시	전주시	목포시, 함평군	경산시, 달성군 (대구 광역시), 울릉군	기장군 (부산 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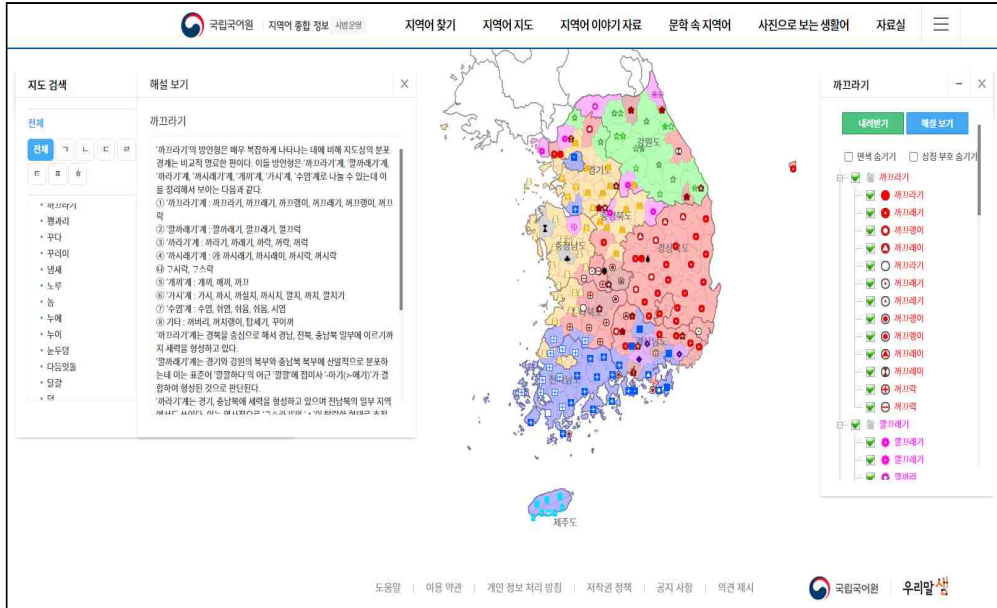
※ 2010년, 2012년, 2013년에는 기초사 자료를 전사하였음.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한 지역어 정보는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지역어 약 23만 항목을 비롯한 각종 지역 언어문화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일반 국민이 지역별 어휘 정보와 지역민의 이야기 자료, 전국의 지역어 지도 등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0년 2월에 개통하였다.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에서는 지역어 어휘 찾기, 지역어 지도, 지역어 이야기 자료, 문학 속 지역어,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 등의 지역어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어 어휘 찾기’에서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155지점(149개 시군)의 지역어와 음성 파일 약 23만 건을 제공하고, 일반 국민들이 지역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다. ‘지역어 지도’에서는 특정 어휘의 전국적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어 지도 155장과 전문가 해설을 제시하고, 일반 국민도 자신이 사용하는 지역의 방언으로 지역어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지도 작성 도구를 지원한다. ‘지역어 이야기 자료’에서는 전국 9개도의 지역어 화자의 구술 발화 100시간 분량의 음성과 지역어, 대응 표준어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어로 표현되는 지역의 언어문화를 공유하고, ‘문학 속 지역어’에서는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지역어 1,855항목과 작품 속 예문 4,713개를 제공한다.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에서는 46종의 전통적인 직업에서 사용하는 직업생활어 2,868항목과 관련된 사진 4,069장을 제공한다.

<표 4-14>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탑재 정보

구분	지역어 찾기	지역어 지도	지역어 이야기 자료	문학 속 지역어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
내용	전국 155개 지점 지역어, 음성	지역어 지도, 해설	구술발화 지역어, 음성, 표준어역	문학작품 속 지역어, 예문	지역어, 사진
항목 수	231,759항목	155장	100시간	1,855항목 (예문 4,713개)	2,868항목 (사진 4,069장)

한편, 국립국어원에서는 전국의 지역어 분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지역어 지도를 제작하였다. 지역어 지도는 그동안 축적한 전국 시군의 지역어 정보를 지도에 옮겨 시각화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5장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지역어 지도마다 전문가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3] '까끄라기'에 대한 지역어 지도

2021년에는 한국어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대별·지역별 변인에 따라 분화된 지역어를 조사하고 자료로 구축하는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존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는 소멸 위기의 지역어 보존을 위해 지역어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80대 이상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1년부터 시작된 언어 다양성 조사는 지역 변인뿐만 아니라 세대 변인을 고려함으로써 한국어의 변화 추이 분석 등의 언어 관측을 통해 언어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사업의 첫해인 2021년에는 앞으로 5년간의 언어 다양성 조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언어 다양성 조사 질문지, 조사-전사-정비 지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질문지와 각종 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5> 2021년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조사 지점	· 전국 10지점(9개도 각 1지점+대도시1지점) (고양시, 춘천시, 청주시, 아산시, 전주시, 목포시, 경주시, 창원시, 제주시-해안, 대전광역시)
조사 대상 (제보자)	· 인원: 10지점*3세대(20대, 50대, 80대 각 1명) 총 30명 대상 · 조건: 해당 지역 3대 이상 거주, 토박이 화자
조사 내용	· 어휘·표현 1,000항목(사용/이해/인지 여부 조사) · 주제별 구술 발화: 4시간
결과물	· 음성, 형태음소전사, 지역어-표준어 대역 전사

제4절 한국어 확산과 교육 기반 강화

1. 국외 한국어 보급 대표 기관으로 세종학당 육성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한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 2에 근거하여 지난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되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이 국외 한국어 보급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한국어교원 양성 및 파견 지원,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학당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일정에 따라 지정되며, 운영 평가 결과가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될 수 있다.

<표 4-16> 세종학당 지정 절차 및 일정

①	지정신청 안내, 공고 (전년도 11월)	◦ 재단 홈페이지(www.ksif.or.kr), 재외공관을 통해 공고
②	지원 신청서 접수 (전년도 11월~1월)	◦ 신규 세종학당 온라인 신청 시스템(apply.ksif.or.kr)내 입력 및 제출
③	공관 의견 조회 (2월)	◦ 신청 기관 지역 재외공관으로 의견 조사 협조 요청
④	1차 서류 심사 (3월)	◦ 공관 의견 및 1차 서류 심사를 통한 예비 후보 선정
⑤	현지 실사 (4월~5월)	◦ 예비 후보 기관 대상 현지 실사(화상면접) 실시
⑥	최종 심사 및 결과 발표 (6월)	◦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심사 및 선정
⑦	업무위탁계약 체결 (6월~7월)	◦ 재단과 신규 지정 기관 간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⑧	신규 운영자 교육 (7월)	◦ 신규 학당 운영자 대상 세종학당 운영 교육

2021년 세종학당은 전 세계 82개국에서 23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 신규로 지정된 세종학당은 미지정 국가 5개국의 5개소를 포함한 18개국 26개소이다. 일반 세종학당은 172개, 문화원 세종학당은 31개, 교육원 세종학당은 31개이다.

<표 4-17> 연도별 세종학당 지정 증가율(2021년 기준)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종학당 수	43개국 90개소	52개국 120개소	54개국 130개소	54개국 138개소	58개국 174개소	54개국 171개소	56개국 172개소	60개국 180개소	76개국 213개소	82개국 234개소
전년 대비 증가율	50%	33.3%	8.3%	6.2%	26.1%	△1.2%	0.6%	4.7%	18.3%	9.9%

대륙별로는 아시아 26개국 129개소, 유럽 27개국 55개소, 미주 15개국 34개소, 아프리카 12개국 12개소, 오세아니아 2개국 4개소이다.

<표 4-18> 대륙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국가 현황(2021년 기준)

대륙	일반 세종학당(수)	소계 (172개)	문화원 세종학당(수)	소계 (31개)	교육원 세종학당(수)	소계 (31개)	합계 (234개)
아시아	네팔(1), 라오스(2), 말레이시아(3), 몽골(4), 미얀마(1), 바레인(1), 베트남(20), 스리랑카(2), 아랍에미리트(2), 아제르바이잔(2), 요르단(1), 우즈베키스탄(6), 이란(2), 인도(7), 인도네시아(6), 중국(19), 카자흐스탄(1), 키르기스스탄(4), 캄보디아(2), 타지키스탄(1), 태국(3), 투르크메니스탄(1), 파키스탄(1), 팔레스타인(1), 필리핀(5)	98	베트남(1), 아랍에미리트(1), 인도(1), 인도네시아(1), 일본(2), 중국(3), 카자흐스탄(1), 태국(1), 필리핀(1)	12	베트남(1), 우즈베키스탄(1), 일본(14), 카자흐스탄(1), 키르기스스탄(1), 태국(1)	19	129개소 (26개국)
유럽	덴마크(1), 독일(1), 라트비아(1), 러시아(6), 루마니아(1), 리투아니아(2), 벨기에(1), 벨라루스(1), 불가리아(1), 세르비아(1), 스웨덴(1), 스페인(2), 슬로바키아(1), 슬로베니아(1), 아르메니아(1), 에스토니아(1), 영국(3), 우크라이나(1), 조지아(1), 체코(1), 크로아티아(1), 터키(4), 포르투갈(1), 폴란드(1), 프랑스(2), 헝가리(2)	40	독일(1), 러시아(1), 벨기에(1), 스페인(1), 영국(1), 이탈리아(1), 터키(1), 폴란드(1), 프랑스(1), 헝가리(1)	10	러시아(4), 영국(1)	5	55개소 (27개국)

대륙	일반 세종학당(수)	소계 (172개)	문화원 세종학당(수)	소계 (31개)	교육원 세종학당(수)	소계 (31개)	합계 (234개)
아메리카	과테말라(1), 미국(8), 볼리비아(1), 브라질(3), 아이티(1), 에콰도르(2), 엘살바도르(1), 우루과이(1), 칠레(1), 캐나다(2), 코스타리카(1), 콜롬비아(1)	23	멕시코(1), 미국(2), 브라질(1), 아르헨티나(1), 캐나다(1)	6	미국(3), 브라질(1), 파라과이(1)	5	34개소 (15개국)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1), 모로코(1), 보츠와나(1), 알제리(1), 에스와티니(1), 에티오피아(1), 우간다(1), 케냐(1), 탄자니아(1), 코트디부아르(1)	10	나이지리아(1), 이집트(1)	2	-	-	12개소 (12개국)
오세아니아	호주(1)	1	호주(1)	1	뉴질랜드(1), 호주(1)	2	4개소 (2개국)

2021년 기준 국가별 세종학당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9> 국가별 세종학당 설치 운영 현황(2021년)

① 일반 세종학당-아시아(25개국 98개소)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	네팔	카트만두 세종학당	응용경영대학-배재대학교
2	라오스	비엔티안 세종학당	라오스국립대학교-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3	라오스	폰사반 세종학당	삼동인터내셔널(라오스지부)-원광디지털대학교
4	말레이시아	말라카 세종학당	멀티미디어대학교
5	말레이시아	방이 세종학당	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
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세종학당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코리아플라자
7	몽골	다르한 세종학당	몽골국립생명과학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
8	몽골	울란바토르1세종학당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9	몽골	울란바토르2세종학당	몽골국립대학교인문대학-공주대학교
10	몽골	울란바토르4세종학당	후레정보통신대학교
11	미얀마	양곤 세종학당	양곤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12	바레인	마나마 세종학당	국립바레인대학교-주바레인대사관
13	베트남	건터1 세종학당	건터대학교-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14	베트남	건터2 세종학당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15	베트남	꾸이년 세종학당	용산구청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6	베트남	다낭 세종학당	다낭외국어대학교
17	베트남	달랏 세종학당	달랏대학교-진주보건대학교
18	베트남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
19	베트남	비엔호아 세종학당	락홍대학교
20	베트남	빈즈엉 세종학당	빈즈엉대학교-조선대학교
21	베트남	짜빈 세종학당	짜빈대학교-서정대학교
22	베트남	타이응우옌 세종학당	두선 베트남
23	베트남	하노이1 세종학당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24	베트남	하노이2 세종학당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25	베트남	하노이3 세종학당	더샘에듀케이션(KASE&C교육센터)
26	베트남	하이퐁 세종학당	하이퐁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27	베트남	호찌민2 세종학당	호찌민사범교육대학교
28	베트남	호찌민3 세종학당	호찌민시기술대학교-경운대학교
29	베트남	호찌민4 세종학당	호찌민교통대학교-동국대학교
30	베트남	호찌민5 세종학당	호찌민시산업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31	베트남	후에 세종학당	후에대학교-(사)BBB코리아
32	베트남	흥옌 세종학당	흥옌커뮤니티컬리지-경성대학교
33	스리랑카	캔디 세종학당	페라데니아대학교-주스리랑카대사관
34	스리랑카	콜롬보 세종학당	랑카 한글 학교
35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종학당	재아랍에미리트연합국한인회
36	아랍에미리트	아즈만 세종학당	아즈만대학교-주두바이총영사관
37	아제르바이잔	바쿠 세종학당	바쿠국립대학교-경운대학교
38	아제르바이잔	흐르달란 세종학당	바쿠공과대학교-인하대학교
39	요르단	암만 세종학당	요르단대학교-주요르단대사관
40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세종학당	코리아베스트아카데미
41	우즈베키스탄	데나우 세종학당	데나우 기업가 정신 및 교육학대학교-전북대학교
42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세종학당	사마르칸트경제대학교-우석대학교
4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1 세종학당	타슈켄트세종한글학교-순천향대학교
4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2 세종학당	타슈켄트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
45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세종학당	페르가나한국국제대학교-선문대학교
46	이란	이스파한 세종학당	이스파한대학교-주이란대사관
47	이란	테헤란 세종학당	주이란대사관
48	인도	바라사트 세종학당	웨스트벵골주립대학교-안양대학교
49	인도	벵갈루루 세종학당	코트라 벵갈루루 무역관
50	인도	임팔 세종학당	인도디엠(DM)대학교-주인도한국문화원
51	인도	첸나이1 세종학당	인코센터-상명대학교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52	인도	첸나이2 세종학당	힌두스탄과학기술대학교-주인도한국문화원
53	인도	파트나 세종학당	인도에이엔대학-주인도한국문화원
54	인도	푸네 세종학당	바라티 비디아피트 대학교
55	인도네시아	반둥 세종학당	인도네시아컴퓨터대학교-와이즈유(영산대학교)
56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세종학당	페트라크리스천대학교-동서대학교
57	인도네시아	육아카르타 세종학당	가자마다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58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
5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세종학당	DCU 인도네시아 센터, SEAMOLEC -대구가톨릭대학교
60	인도네시아	탕으랑 세종학당	야야산 이페카-한동대학교
61	중국	다롄 세종학당	다롄대학교-대구과학대학교
62	중국	린이 세종학당	린이대학교-강남대학교
63	중국	스자좡 세종학당	허베이과기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
64	중국	시안 세종학당	시안외국어대학교
65	중국	옌뽤2세종학당	연변대학교
66	중국	옌청 세종학당	염성사범대학교
67	중국	옌타이 세종학당	루똥대학교-남부대학교
68	중국	우한 세종학당	화중사범대학교
69	중국	원저우 세종학당	절강동방직업기술대학-조선대학교
70	중국	청두 세종학당	쓰촨사범대학교
71	중국	치지하얼 세종학당	치지하얼대학교-동신대학교
72	중국	칭다오1 세종학당	중국해양대학교
73	중국	칭다오2 세종학당	청도민해대학교
74	중국	쿤밍 세종학당	윈난남방청년진수학원-선문대학교
75	중국	하얼빈 세종학당	하얼빈사범대학교
76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	절강관광대학-호남대학교
77	카자흐스탄	심켄트 세종학당	남카자흐국립대학교-상명대학교
78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세종학당	희망의 노래 어학센터
79	캄보디아	포이펫 세종학당	종로구청
80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세종학당	국립아라바예바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
81	키르기스스탄	소쿨루크 세종학당	키르기스국제대학교
82	키르기스스탄	오시1 세종학당	오시기술대학교-호남대학교
83	키르기스스탄	오시2 세종학당	오시국립대학교-백석대학교
84	타이완	가오슝 세종학당	고웅시한인회
85	타이완	타이난 세종학당	쿤산과학기술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
86	타이완	타이베이 세종학당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코리아플라자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87	타지키스탄	두산베1세종학당	타지키스탄국립외국어대학교-계명대학교
88	태국	마하사라캄 세종학당	마하사라캄대학교-상명대학교
89	태국	방콕 세종학당	까셈 반딧 대학교
90	태국	치앙마이 세종학당	치앙마이대학교
91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세종학당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학교-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92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종학당	파키스탄국립외국어대학교
93	팔레스타인	라말라 세종학당	주팔레스타인대한민국대표사무소
94	필리핀	까인따 세종학당	쉐마지도자훈련원
95	필리핀	발랑가시티 세종학당	바탄페닌술라주립대학교
96	필리핀	산후안 세종학당	홍천군청
97	필리핀	세부 세종학당	원광글로벌교육센터
98	필리핀	일로일로 세종학당	센트럴필리핀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

② 일반 세종학당-유럽(26개국 40개소)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	덴마크	코펜하겐 세종학당	코레안스크 쿨투르센터
2	독일	튀빙겐 세종학당	튀빙겐 에버하르트 칼스대학교
3	라트비아	리가 세종학당	리가공과대학교
4	러시아	모스크바1 세종학당	모스크바원광교육센터-원광디지털대학교
5	러시아	모스크바2 세종학당	국립연구대학교동경제대학교-경희대학교
6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세종학당	상트한국문화센터
7	러시아	아스트라한 세종학당	아스트라한국립대학교-동서대학교
8	러시아	야쿠츠크 세종학당	북동연방대학교-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9	러시아	울란우데 세종학당	부랴트국립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10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세종학당	디미트리에 칸테미르 크리스천 대학교
11	리투아니아	빌뉴스 세종학당	미콜라스로메리스대학교-동서대학교
12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세종학당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교
13	벨기에	브뤼셀 세종학당	벨기에 한국문화교육협회
14	벨라루스	민스크 세종학당	벨라루스국립대학교국채관계대학-대구가톨릭대학교
15	불가리아	소피아 세종학당	소피아대학교-주불가리아대사관
16	세르비아	노비사드 세종학당	노비사드대학교 철학대학
17	스웨덴	예테보리 세종학당	예테보리 한국문화센터
18	스페인	라스팔마스 세종학당	라스팔마스대학교
19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종학당	바르셀로나국립대학교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20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세종학당	코메니우스대학교-주슬로바키아대사관
21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세종학당	류블라나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22	아르메니아	예레반 세종학당	브루소브국립대학교
23	에스토니아	탈린 세종학당	탈린대학교
24	영국	런던 세종학당	리치먼드대학교
25	영국	스테퍼드셔 세종학당	버튼 앤 사우스 다비셔 컬리지 -전주기전대학교
26	영국	프레스턴 세종학당	센트럴랭커셔대학
27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세종학당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인하대학교
28	조지아	트빌리시 세종학당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
29	체코	올로모우츠 세종학당	팔라츠키대학교-주체코대사관
30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세종학당	자그레브대학교-중앙대학교
31	터키	부르사 세종학당	앙카라대학교-주터키한국문화원
32	터키	앙카라 세종학당	앙카라대학교-주터키한국문화원
33	터키	이스탄불 세종학당	이스탄불대학교-주터키한국문화원
34	터키	이즈밀 세종학당	앙카라대학교-주터키한국문화원
35	포르투갈	리스본 세종학당	신리스본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36	폴란드	포즈난 세종학당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교
37	프랑스	라로셀 세종학당	라로셀대학교-경희대학교
38	프랑스	캥페르 세종학당	이엠비에이(EMBA)대학
39	헝가리	데브레첸 세종학당	데브레첸여름대학교(언어교육원)
40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종학당	외트뢰시 로란드 대학교

③ 일반 세종학당-아메리카(12개국 23개소)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세종학당	산카를로스국립대학교-주과테말라대사관
2	미국	미국 거점 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
3	미국	블루밍턴 세종학당	인디애나대학교
4	미국	샌안토니오 세종학당	세인트메리대학교-동서대학교
5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종학당	코리안센터
6	미국	아이오와시티 세종학당	아이오와대학교-경희대학교
7	미국	어바인 세종학당	한미문화센터
8	미국	업랜드 세종학당	테일러대학교-한동대학교
9	미국	오번 세종학당	오번대학교-계명대학교
10	볼리비아	라파스 세종학당	아야쿠초기술대학-원암문화재단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1	브라질	브라질리아 세종학당	브라질리아연방대학교-(사)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12	브라질	상레오폴두 세종학당	유니시노스대학교-배재대학교
13	브라질	캄피나스 세종학당	캄피나스주립대학교-울산대학교
14	아이티	카라콜 세종학당	(주)글로벌세아
15	에콰도르	과야킬 세종학당	해안폴리텍대학교(ESPOL)
16	에콰도르	키토 세종학당	에콰도르센트럴대학교-주에콰도르대사관
17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세종학당	엘살바도르기술대학교-주엘살바도르대사관
18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세종학당	오르트대학교-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19	칠레	산티아고 세종학당	칠레센트럴대학교-주칠레대사관
20	캐나다	몬트리올 세종학당	퀘벡한민족재단
21	캐나다	워털루 세종학당	워털루대학교 레니슨컬리지
22	코스타리카	산호세 세종학당	코스타리카대학교
23	콜롬비아	보고타 세종학당	아시아이베로아메리카문화재단

④ 일반 세종학당-아프리카(10개국 10개소)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세종학당	안타나나리보국립대학교
2	모로코	라바트 세종학당	마루문화원
3	보츠와나	가보로네 세종학당	보츠와나국립대학교-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4	알제리	알제 세종학당	알제리 한국학교
5	에스와티니	음바바네 세종학당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
6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세종학당	코테베메트로폴리탄대학교
7	우간다	쿠미 세종학당	쿠미 대학교
8	케냐	나이로비 세종학당	케냐타대학교-주케냐대한민국대사관
9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세종학당	한국국제협력단 코트디부아르사무소
10	탄자니아	디르에스살람 세종학당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⑤ 일반 세종학당-오세아니아(1개국 1개소)

연번	국가	학당명	운영 기관
1	호주	애들레이드	남호주대학교 - 주시드니한국문화원

⑥ 문화원 세종학당(27개국 31개소)

연번	대륙	국가	개수
1	아시아	베트남	1
2		아랍에미리트	1
3		인도	1
4		인도네시아	1
5		일본	2
6		중국	3
7		카자흐스탄	1
8		태국	1
9		필리핀	1
10	유럽	독일	1
11		러시아	1
12		벨기에	1
13		스페인	1
14		영국	1
15		이탈리아	1
16		터키	1
17		폴란드	1
18		프랑스	1
19	헝가리	1	
20	아메리카	멕시코	1
21		미국	2
22		브라질	1
23		아르헨티나	1
24		캐나다	1
25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
26		이집트	1
27	오세아니아	호주	1

⑦ 교육원 세종학당(13개국 31개소)

연번	대륙	국가	개수
1	아시아	베트남	1
2		우즈베키스탄	1
3		일본	14
4		카자흐스탄	1

연번	대륙	국가	개수
5		키르기스스탄	1
6		태국	1
7	유럽	러시아	4
8		영국	1
9	미주	미국	3
10		브라질	1
11		파라과이	1
12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
13		호주	1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한국어 전문 교원을 세종학당에 파견하여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58개국 117개소에 232명의 교원을 파견하였으며, 파견 전 국내 교육으로 현지 적응 능력을 높이고 파견 후에는 재교육을 통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현지에서 최대 5년 파견 근무가 가능한 현지화 교원을 총 40명 선발하여 22개국 29개소에 파견하였다.

<표 4-20>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인력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파견인원	24명	39명	50명	90명	119명	125명	140명	180명	232명
파견기관	15개국 22개소	17개국 32개소	22개국 36개소	31개국 65개소	35개국 75개소	40개국 79개소	41개국 83개소	52개국 103개소	58개국 117개소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 입문 과정을 세분화하고 연습 단계를 추가하여 「사이버 한국어 입문 심화 과정」을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거나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로 세종학당 온라인 서비스로 유입된 학습자를 위하여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 “K-WAVE KOREAN”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시각장애인도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를 개발하였고, 해외에서 한국 및 한국어 관련 자료가 부족한 교원 및 학습자를 위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풍부한 한국어, 한국문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학당재단은 외국인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누리 세종학당(nuri.iksi.or.kr)과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누리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교육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 및 원격 교육을 지원해왔으며, 더욱 고도화된 온라인 학습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온라인 세종학당 개발 후, 202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누리 세종학당의 교육 기능을 2021년 온라인 세종학당으로 이관하였으며, 누리 세종학당은 한국어·한국문화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개편해 11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표 4-21> 누리-세종학당 이용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A)	2021년*(B)	증 감 (B-A)	
							%
누적회원 수 (연도)	120,241	166,719	200,916	261,437	403,767	142,330	54.44
방문 수 (세션 수)	793,363	926,295	971,684	1,672,544	1,784,887	112,343	6.72
페이지뷰 수	6,220,184	6,229,907	7,366,929	11,873,643	13,041,452	1,167,809	9.84

* 2021년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실적

세종학당재단은 해외 현지의 한국문화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한국문화 전문가의 현지 파견을 통해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세종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12개국 15개소, 2018년에는 20개국 30개소, 2019년에는 18개국 35개소로 확대 운영되어 총 12,625명이 참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2020년은 14개국 21개소, 2021년은 35개국 46개소의 세종학당이 세종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나아가 세종문화아카데미를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여, 세종학당 학습자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생과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문화아카데미가 전 세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한국문화를 보급하고, 해외 한국문화 대표 보급 프로그램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에 대한 세종학당 수강생의 장학 수혜도 지원하고 있다. 세종학당 말하기쓰기 대회를 통해 선발된 전 세계 세종학당의 우수 학습자를 초청하여 한국문화 연수 및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43개국

172명, 2014년 47개국 119명, 2015년 46개국 148명, 2016년 54개국 146명, 2017년 52개국 134명, 2018년 50개국 145명, 2019년 47개국 140명의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가 참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국내 초청이 어려움에 따라 개인별 부상을 제공하였다.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62개국 127개소 244명의 우수학습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우수학습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세종문화아카데미(벨기에 브뤼셀 세종학당, 민화)



2021 세종학당 우수학습자대회(비대면)

[그림 4-14] 세종학당 한국문화 교육 현장(2021년)

세종학당재단은 해외 한국어교원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2021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 외교부가 함께하는 범부처 공동 행사였으며, 이에 대회 첫째 날은 전 세계 한국어교원 대상 ‘K-선생님 이음 한마당’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종학당 교원은 물론, 국내·외 한국어교육자를 대상(1,048명/비대면)으로 한국어교육 현장 사례를 나누고, 한국어 교수법을 연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1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이야기 콘서트



2021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사례 발표

[그림 4-15] 2021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해외 한국어 교육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학당 지역별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2021년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권역별 비대면 워크숍으로 추진하였다. 아시아·오세아니아 권역(‘21.6.29.~7.1.), 아메리카 권역(‘21.8.25.~27.), 유럽·중동·아프리카권역(‘21.11.10.~11.12.)으로 개최가 되었고, 총 1,779명이 참가를 하였다. 이를 통해, 권역별 한국어 교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한국어·한국문화의 보급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21 세종학당 비대면 지역별 워크숍 사례발표 2021 세종학당 비대면 지역별 워크숍 문화연수

[그림 4-16] 2021 세종학당 비대면 지역별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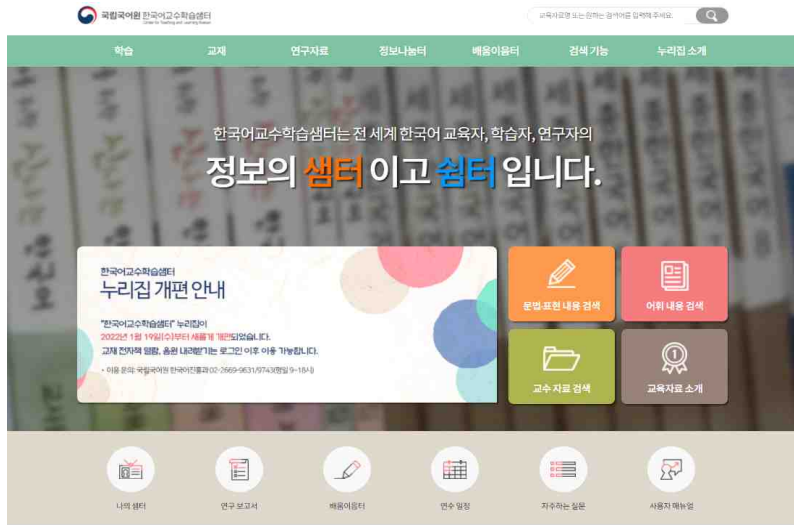
2. 한국어교육 체계화 및 기반 강화

초창기 한국어 보급은 드라마, 대중가요 등 대중 예술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의 수도 크게 늘고, 그만큼 학습 동기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한국어 보급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함께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보급 기반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한국어 학습 수요는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비해 한국어교육 콘텐츠는 늘어난 수요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의 전략이라면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개발된 교육자료를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립국어원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기준으로 참고할 표준 교육과정과 이를 토대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한국어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다양한 교육 현장과 학습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54호, 2020.11.27.)’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외 한국어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에 실질적인 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10여 년간 연구해 온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2010~2011, 2016~2017)’ 과 후속 연구의 결과물로서 국가 수준에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철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6~8학년의 인도 한국어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현지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2016년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는 한국어 과정의 교재를 전담하여 개발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국외 한국어 대표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기본 교재 <세종한국어>를 개정 집필하였다. 세종학당용 표준 교육과정(초급 2단계, 중급 2단계)에 맞춘, 단계별 교육 자료(주교재, 교사용 지도서, 학습자용 익힘책, 어휘와 표현 자료집, 문법 자료집) 형태로 구성, 개발하였다. 다양한 세종학당의 운영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개정되었으며, 출판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하반기에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교원 및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kcenter.korean.go.kr)’에 탑재하여 보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문법 표현 내용, 어휘 내용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 등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고도화하여 사용자가 더 쉽게 접근하고,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17] 개편한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국립국어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용 웹사전인 『한국어 기초사전』과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이하 『한-외 학습사전』)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한-외 학습사전』은 2016년 10월 10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 『한-외 학습사전』을 먼저 개통하여 운영해 오다가 2020년 5월에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을 개통하여 현재 총 11개 언어 『한-외 학습사전』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어 기초사전』 및 『한-외 학습사전』에 접수된 사용자 의견을 검토하고, 8개 언어의 화용 정보 수정 3,292건을 포함하여 뜻풀이 및 대역 정보 등 총 27,891건을 수정·보완하였다. 『한-외 학습사전』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여 2021년 하반기부터는 태국 유명 포털인 ‘사눅(Sanook)’에서 『국립국어원 한국어-타이어학습사전』을 지원, 일본 메신저 ‘라인’에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일본어학습사전』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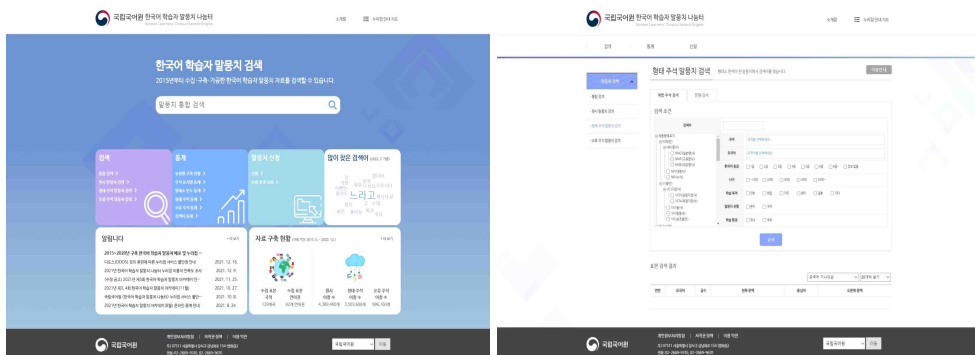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학습 현장의 과학화를 위해 2015년부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다.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용 어휘 및 문법 항목의 등급화와 과학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평가 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의 습득 과정에 대한 실제적 관찰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어교육 연구 및 정책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2021년에는 언어권별·수준별·자료 유형별 ‘균형성’을 확보한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총 1,000만 어절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수준 대규모 학습자 말뭉치 구축 2차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제2차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5개년의 구축 사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표 4-2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2차 중장기계획(2021~2025)

구분	기초 연구	구축 1단계		구축 2단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동 구축	대규모 구축(국내 + 이주민 + 국외)				
기획 구축	대상의 초점화 (학문 목적 학습자)				
		언어권별 균형성 확보 (5개 주요 언어권)			
				매체·장르의 초점화 (비디오 말뭉치)	

또한 2020년까지 1차 중장기계획에 따라 6개년 동안 총 440만 어절의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 공개하였으며, 2021년에는 학습자 말뭉치 약 80만 어절을 구축하여, 2015년부터 총 520만 어절을 누적 구축하였다. 구축된 말뭉치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https://kcorpus.korean.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4-18]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3.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운영 및 교원 연계망 구축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가 66,792명을 넘어섰다. 2006년 당시 86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5년 동안 약 77배가 늘어난 것이다.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도 학부 59개, 대학원 136개, 사이버대학(원) 14개, 학점은행제 63개, 단기 양성과정 253개 등 총 525개에 이른다. 이처럼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이 증가하고, 한국어교원이 많이 배출되면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내실화와 교원의 전반적인 능력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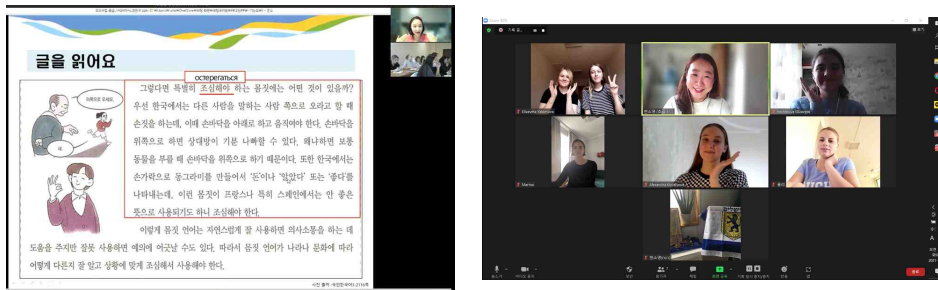
한국어교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최신 한국어교육의 동향을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 국내외 연계망 구축의 일환으로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NAKS) 집중 연수회’와 ‘서일본 지역 한국어교원 연수회’를 지원해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인해, 국외 연수회 개최가 전면 취소되었다가, 2021년에는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NAKS) 집중 연수회’를 ‘비대면 한국어 교실’이라는 주제로 구성하여, 온라인 개최로 전환하여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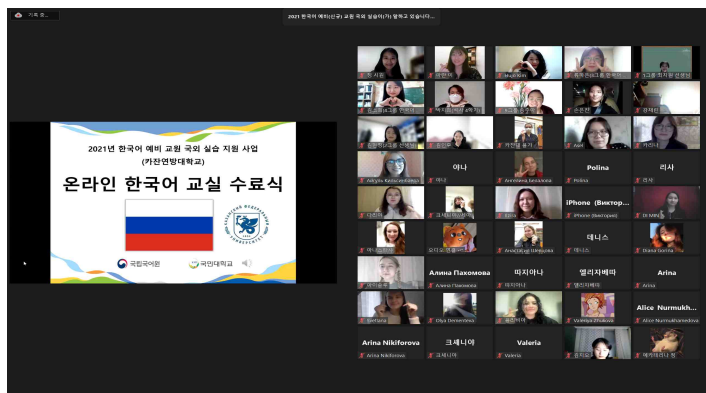
[그림 4-19] 2021년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NAKS) 집중 연수회 온라인 개최 영상

또한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7년에 일본과 중앙아시아 등 4개 지역에 예비 교원 및 경력 교원 47명

과견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알마티(카자흐스탄), 사할린(러시아), 도쿄·오사카(일본) 지역의 한글학교, 대학 및 한국학교, 민간단체(일본 노다시 국제교류협회) 등에 예비 교원 및 경력 교원 73명을 파견한 바 있다. 2019년에는 국외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의 요청과 한국어 교육 열기에 부응하고자 2018년도 실습 지역에 중앙아시아 타슈켄트·사마르칸트(우즈베키스탄), 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 3개 지역을 추가하여 각 지역의 대표 한국어 교육기관(한글학교, 한국학교, 대학, 세종학당 등)에 예비 교원 및 경력 교원 96명을 파견하였다. 2021년도에는 전년도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예비 교원 및 경력 교원 63명을 현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 지원하였다.



[그림 4-20]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사업 활동 영상(2021년)



[그림 4-21]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수료식(2021년)

4. 한국어교원 연수 과정 운영

한국어 확산과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외의 다변화하는 한국어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수업 현장의 유형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게다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 연수로 전향하여 진행되면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공급 환경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외 현장 연수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2021년 배움이음터(국립국어원 주최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연수회 명칭)도 온라인 연수로 전환되어 실시간 화상연수로 진행되었다. 집합 연수와 같은 만족도를 위해 내용 면에서는 연수 대상별로 개별화하여 진행하되, 운영 면에서는 통합적체계적 연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연수회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어교원 온라인 연수의 질적인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배움이음터 운영을 온라인콘텐츠 개발·배포로 사업 내용을 전환함으로써 신규 온라인콘텐츠 2종(‘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소개 및 활용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연수 참여 기회가 제한되었던 한국어교원들에게 더 많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콘텐츠 공개 운영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다문화 관련 교원 연수회는 주관 부처별로 나누어 개최하였는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원 보수 교육과 연계하여 방문교육 한국어지도사 대상 연수회(3회, 127명 수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2회, 60명 수료), 교육부 초·중·고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KSL) 교원 연수회(2회, 55명 수료) 및 교육부 한국어(KSL) 교육과정 담당 교사(1회, 28명) 대상 연수회 등을 실시간 화상 연수로 개최 완료하였다. 또한, 맞춤형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규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 2종을 시범 공개하여, 기관 방문으로 운영해 오던 ‘찾아가는 배움이음터’를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 온라인 수강으로 전환, 실시하였다(온라인콘텐츠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소개 및 활용법’ 법무부 소속 교원 136명,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대학 언어교육원 소속 교원 79명 이수).



[그림 4-22] 배움이음터 실시간 화상 연수 운영 구성(2021년)



[그림 4-23] 찾아가는 배움이음터 온라인콘텐츠 2021년 개발 사례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를 위한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최대 6주 과정으로 진행하여 15개국 25명이 수료하였다. 이 연수는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최신 한국어 교육 동향 및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등을 알리고, 각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2021년에는 특히 2017년부터 5년간 참가한 연수생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가상확장세계(이하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동문회를 개최하였다. 온라인 화상회의와 메타버스를 도입하여 세계 각국의 연수 참가자들을 한자리로 모아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그림 4-24]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2021년)



[그림 4-25]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 학술대회 및 동문회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전문가 파견 현지 교원 연수회’는 권역별로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외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연수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 재외공관(문화원, 교육원, 한글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연초에 일괄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매년 약 10여 개국에 20여 명의 연수 전문가를 파견해 왔다. 이 사업은 현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세부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10개국에 22명을, 2016년에는 10개국에 23명을, 2017년에는 11개국에 26명, 2018년에는 9개국에 24명을, 2019년에는 8개국에 16명을 파견한 바 있다.

<표 4-23> 한국어 전문가 파견 현지 교원 연수회 개최 내역

연도	국가(지역)	인원
2014년	중국(충칭), 프랑스(파리/리옹), 미국(인디애나폴리스/하와이), 일본(오사카/후쿠오카/도쿄), 베트남(호찌민/하노이), 인도(뉴델리), 필리핀(마닐라)	18명
2015년	필리핀(마닐라), 중국(시안/북경), 터키(앙카라), 이란(테헤란), 호주(시드니), 일본(후쿠오카/오사카), 미국(뉴저지), 러시아(사할린),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독일(오버베젤/본)	22명
2016년	덴마크(코펜하겐),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베트남(하노이), 이란(테헤란), 미국(덴버), 일본(오사카/삿포로), 몽골(울란바토르), 폴란드(바르샤바), 중국(우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3명
2017년	인도(뉴델리), 러시아(이르쿠츠크), 일본(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태국(방콕, 랑싯), 미국(애틀랜타), 이집트(카이로), 벨라루스(민스크), 필리핀(마닐라), 카자흐스탄(알마티), 아제르바이잔(바쿠)	26명
2018년	캄보디아(프놈펜), 태국(사뭇 송크람), 중국(서주), 미국(시카고), 일본(히로시마/시모노세키/오사카),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싱가포르, 몽골(울란바토르), 리투아니아(빌니우스)	24명
2019년	터키(앙카라), 태국(방콕), 말레이시아(푸트라자야), 캄보디아(프놈펜), 미국(괌/사이판/시애틀),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오사카), 러시아(이르쿠츠크)	16명

아울러 국립국어원에서는 집합형 연수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한국어교원들을 위해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s://kcenter.korea.go.kr/>)에 온라인 연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제5절 한글문화 진흥 및 향유 확대

1. 다양한 한글문화 자원의 수집 및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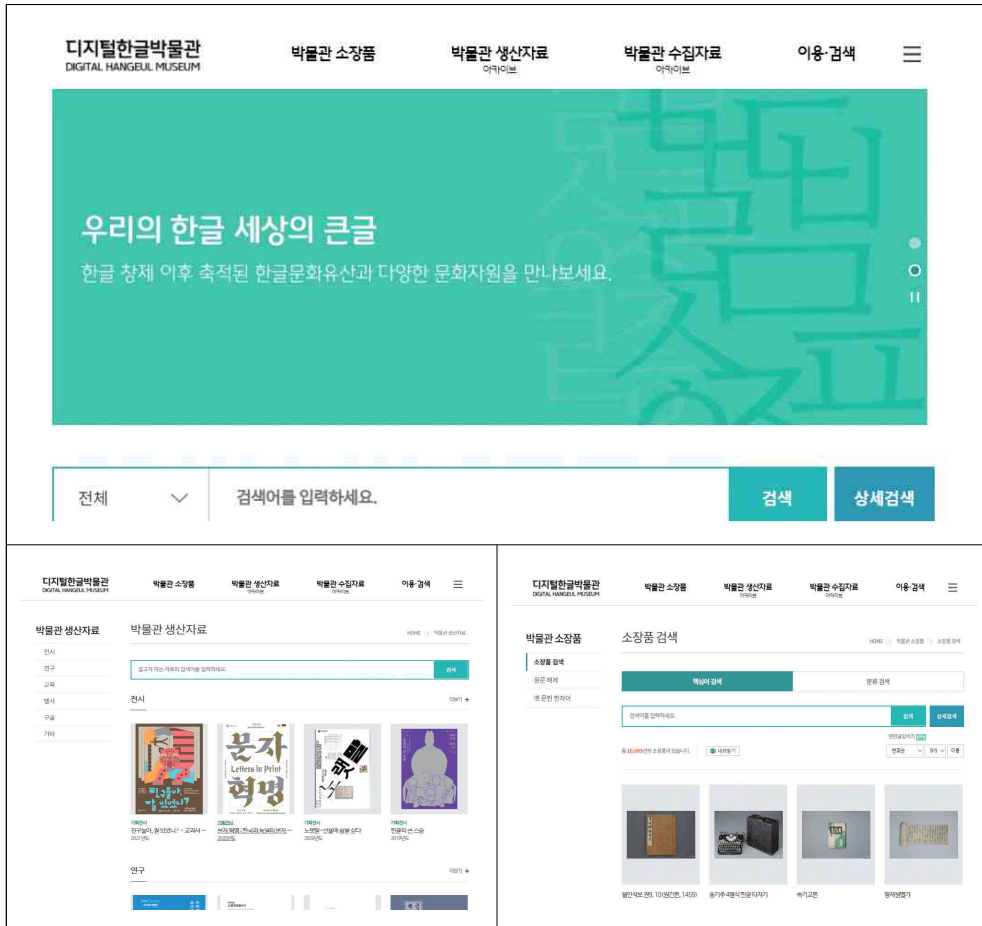
2014년 10월 9일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 자원의 수집과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에 산재한 한글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고 한글문화 자원의 다양한 가치, 즉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발굴해 내고, 이를 전시 콘텐츠나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연결하여 국민들이 한글문화 자원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1년에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창제 이후의 중요 언해본 및 활자본과 특별전시를 위한 규방가사 자료, 지정문화재급 한글 관련 자료 등 3,176점(구입 1,729점, 기증 1,447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수집 자료로는 『속침흥무정운 상』, 『노자권재구의』(경자자), 『상설고문진보대전』(경오자), 『대학을곡선생언해』(무신자본), 『서궁일기』, 이규영의 『한글 적새』 등이 있는데 모두 한글 창제 이후의 한국어·한글 및 어문 의식과 사회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그 외에 국립한글박물관은 유관기관 및 개인 소장자와 협력하여 한글 문화유산을 수집하기도 했다. 특히 프랑스 샤넬을 대표하는 디자이너故갈 라거펠트(Karl Lagerfeld, 1933~2019)의 한글 패턴 재킷(2015)을 샤넬로부터 기증받아 한글 디자인 전시에 다양하게 활용하였고, 이 밖에도 중앙대 국문과 명예교수인故유목상(1928~2020)의 근현대 한글 자료 519건 552점과 천주교의 교리를 한글로 보급한 『주년침례광익』(19세기), 각종 질병의 처방 및 구급법에 대한 의서인 『단방신편』(20세기) 등과 같이 한글박물관의 전시, 교육, 연구 등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수집한 한글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고 자료의 검색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한글박물관(<http://archives.hangeul.go.kr>)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한글박물관은 2020년에 데이터 구축 체제를 정비하고 2021년에는 다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맞춰 반응형 웹을 적용·개선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새롭게 정비한 디지털한글박물관은 이용자 중심으로 기존의 메뉴를 신설, 통합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형별, 주제별, 시대별, 출처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카이브 기록물뿐 아니라 국립한글박물관의 소장품도 검색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하였다.



[그림 4-26] 디지털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과거와 현재 등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 콘텐츠를 통해 한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한글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문화·예술로서 한글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 전시를 개최하였다. 2021년에는 한국과 독일의 인쇄술과 문자 문화를 비교한 <문자혁명: 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2020년 12월~2021년 4월), 옛이야기를 담고 있는 근·현대 초등 국어 교과서와 그 유래를 보여주는 자료를 소개한 <친구들이 잘 있었니? 교과서 한글 동화>(2021년 5월~11월),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

창작 향유된 내방가사 속 여성들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이내말삼 드리보소, 내방가사>(2021년 12월)를 개최하였다.

한글과 한글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국·내외 순회전 또한 개최하였다. 국외순회전으로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2021년 9월)은 (주)프랑스파리 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글의 철학과 형태적 특징을 현대 디자인, 패션, 공예, 시각 등의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통해 한글조형 작품들을 선보였다. 지역순회전으로는 대중가요 노랫말 속 시대와 문화상을 조명한 <노랫말-선율에 삶을 신다>를 부산박물관(2020년 11월~2021년 1월), 국립세종도서관(2021년 3월~6월), 부평역사박물관(2021년 7월~12월)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글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림 4-27]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2021년)

2021년에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110,07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관람객 만족도는 88.4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4-24>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 및 관람객 만족도(2015년~2021년)

연도	관람객 수	관람객 만족도
2015년	532,566명	82.9점
2016년	564,393명	84.0점
2017년	672,332명	85.5점
2018년	695,378명	88.1점
2019년	776,570명	89.3점
2020년	104,348명	88.4점
2021년	110,074명	88.4점

2. 한글문화 연구·교육 및 산업화 기반 구축

학문, 예술, 산업 분야 등에서 시각 기호로서의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발전·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려면 한글 및 문자의 가치와 특성에 대한 분야별 연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외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글꼴이나 타이포그래피 등 문자와 디자인을 접목한 한글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글문화 상품의 발굴·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올바른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한글문화 지식 사전 편찬 (2)」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 보고서 1종을 발간하였으며, 훈민정음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서 「쉽게 읽는 훈민정음(개정판)」 1종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 이외에도 한글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관련 논문을 모아 학술지 『한글과 박물관』을 창간하였다. 또한 한글과 한글문화에 일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강좌 <화요 한글문화강좌>를 온라인으로 12회 운영하였으며 상시 시청이 가능하도록 기관 SNS에 게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도 기획전시 ‘한글 동요(가제)’의 전시토대연구를 수행하여 전시 기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 및 연구 결과를 내부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표 4-25> 국립한글박물관 ‘화요 한글문화강좌’ 운영 내용(2021년)

회차	제목	강연일자
1화	지방에서 쓰인 한글 문헌 속의 지역 문화	5. 11.
2화	충청 지역 한글 편지 속 옛말과 삶의 모습 - 은진 송씨 가문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 -	5. 25.
3화	경북지역 한글 편지 속 옛말과 생활 문화 - 현풍 락씨 언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	6. 8.
4화	판소리 문학에서 발견하는 지역의 흔적들 - 심청전, 춘향전을 대상으로 -	6. 22.
5화	『반찬등숙』에 담긴 청주 반가의 음식 문화와 어휘	7. 13.
6화	한글 민체에 나타난 문자 조형과 이체자	7. 27.
7화	일제강점기 전설, 민담 속 식민 문화의 흔적과 극복 방향	8. 10.
8화	영호남 민요의 교섭과 문화적 의미	8. 24.
9화	빈순애 구연 신중타령의 어문생활사적 가치와 의미	9. 14.
10화	조선 후기 가사문학에 표현된 평양의 풍경들	9. 28.
11화	‘흔저우서예’ 제주 방언으로 만나는 제주의 주거 문화	10. 12.
12화	클래식 성악곡 노랫말에 담긴 역동적 서울 문화와 언어 - 조선 후기 서울 지역의 가곡을 중심으로 -	10. 26.

전시와 유물을 연계한 체험 기반 한글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별·목적별로 총 22종, 323회 운영하였으며 총 32,872명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박물관 현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 동반 가족, 학교 단체,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공간적 제약이 없는 쌍방향 소통 교육을 실현하였다.

<표 4-26>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년)

(단위: 회·편/명)

구분	대상	연번	교육명	운영 횟수	참여 인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1~12 원격 교육, 13 현장(국외) 교육)	초등 동반 가족 (방학)	1	역사로 온 한글 이야기	12회	1,041명
		2	소설로 온 한글 이야기	12회	336명
		3	예술로 온 한글 이야기	24회	1,699명
		4	우리 한글 멋지움	14회	769명
		5	친구들이야, 잘 있었니?	8회	231명
	초등 단체 (학기중)	6	한글 보따리 1	35회	1,516명
		7	한글 보따리 2	35회	1,271명

구분	대상	연번	교육명	운영 횟수	참여 인원
		8	한글 보따리 3	36회	1,585명
		9	전설의 이야기꾼	19회	721명
		10	한글이 보이는 라디오	8회	190명
	중등 단체 (학기중)	11	반듯하게 쓰는 한글	12회	323명
		외국인 단체	12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	45회
	13		한글×디자인	-	614명
	영상 및 학습 자료 배포	중등 단체	14	붓으로 만나는 한글	55회
세종학당		15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국/영문)	-	539명
온라인 영상 콘텐츠	유아·초등 동반 가족	16	반짝 반짝 빛나는 한글	1편	775명
		17	우리 한글 멋지움	1편	1,295명
		18	박물관 속 한글 탐험	1편	3,160명
		19	박물관 속 한글 탐험(수어판)	1편	792명
		20	한글 숲에 놀러와	1편	1,127명
		21	조물조물 색깔놀이	1편	2,154명
	외국인	22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국/영문)	2편	869명
합계				323	32,872

<표 4-27> 국립한글박물관 교육 참여 인원(2014년 10월~2021년 12월)

구분	'14년10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운영 종수	7종	23종	24종	23종	27종	27종	25종	22종
운영 횟수	48회	338회	351회	373회	415회	404회	120회/편	323회/편
참가자 수	1,190명	16,148명	22,460명	26,527명	26,330명	23,154명	26,058명	32,872명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글꼴 연구와 산업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주요 소장 자료인 덕온공주의 ‘자경전기’의 글꼴을 연구하고 복원하여, 디지털 글꼴(폰트) 2종을 개발하였다. 또한 디지털 한글 글꼴 자원 확충과 국민의 한글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한글꼴큰사전 누리집 개선> 및 <글꼴 아카이브ISP> 사업을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국립한글박물관)는 한글을 활용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한글과 다른 분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문자적 가치 이상의 새로운 한글 상품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한글에 대한 독창적인 시선과 해석으로 한글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다. 이 공모전에는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21년에는 270개의 작품을 접수하여 그 가운데 10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시상하였다.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국제 전시행사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한글날 기념 및 한글문화 관련 포상

2013년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한글의 가치를 한 단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문화 축제와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기리는 포상을 실시하여 한글 창제의 의의와 한글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한글주간(10.4.~10.10.)’에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우리의 한글, 누리를 잇다”를 주제로 한글날 전야제(10.8.) 및 한글주간 대표행사(10.9.)를 비롯하여 공연, 전시, 경연, 학술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그림 4-28] 2021년 한글주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에 포상을 추진하였다. 2021년 9월 8일에는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을 시상하였으며, 2021년 10월 8일에는 ‘세종문화상’과 ‘한글발전유공자 포상’을

실시하였다.

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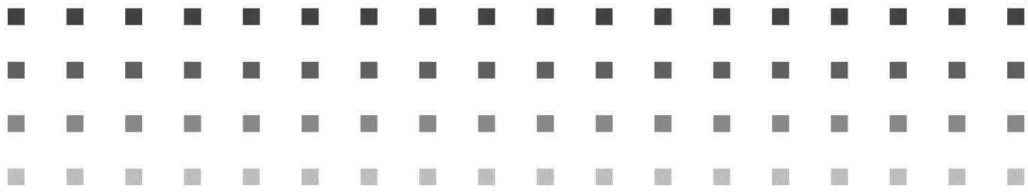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문화 다양성 증진과 사회 통합 및 상호 존중 등을 위한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와 한글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화하기 위한 복합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에 따라 소통, 포용, 통섭의 매개인 문자를 통해 국민들의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 문자사에서 한글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인천 송도가 건립 대상지로 결정되었고, 201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3월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4월에 건립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2020년에는 본위원회 1회·소위원회 7회, 2021년에는 본위원회 1회·소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다. 건립위원회는 국립세계문자 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문자·언어, 박물관, 문화·예술,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에 공모를 통해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의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설계를 진행하여 2018년 1월에는 계획설계를, 9월에는 중간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이다.



[그림 4-29]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6년에 전시 콘텐츠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에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세부계획과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기본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2020년 10월 전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전시·체험 설계 및 제작·설치」를 발주, 2021년 12월 전시·체험 설계를 완료하였다.



제5장 2022년 국어정책 주요 추진 계획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정책 기반 조성

제2절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제3절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제4절 한국어 생태계 확장

제5절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제5장 2022년 국어정책 주요 추진 계획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정책 기반 조성

1. 인공지능 개발 언어문화 산업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립국어원은 국가 공공재로서 국어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의 대규모 구축(원시 말뭉치 18억여 어절 등)에 이어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이 최신의 언어 자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신문 기사와 일상 대화 원시 말뭉치는 매년 구축하고 고도화된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개발에 대응한 다양한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여 공개하는 상시 구축 체제로 전환하였다. 2022년에도 활용성이 높고 언어 변화를 반영하는 신문, 일상 구어 자료와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 말뭉치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 인공지능의 언어능력 평가를 위한 말뭉치(5종)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외국어 병렬말뭉치를 1,000만 어절 규모로 확장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말 현재 ‘모두의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된 말뭉치 총 23종 21억 어절이 배포되고 있는데 2022년에도 2021년에 구축한 신문 기사, 일상 대화, 온라인 대화 등의 원시 자료와 개체명 분석 말뭉치, 개체 연결 말뭉치, 감성 분석 말뭉치, 함의 분석 말뭉치, 회의록 요약 말뭉치, 유사문장 생성 말뭉치, 맞춤법 교정 말뭉치 등의 분석 말뭉치를 검증하여 1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말뭉치 등 국어 자원 구축 및 통합 관리, 유통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말뭉치 통합 시스템은 2018년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2019년~2020년에 말뭉치

검증 시스템과 대량 말뭉치의 구축 관리, 배포, 유통 기능을 개발하였다. 2022년에는 말뭉치별 저작권 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다양한 활용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배포, 유통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 시범 운영 결과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어 능력 상시 평가체계를 말뭉치 통합 시스템에 도입할 계획인데, 이 평가체계는 소규모 과제 등을 사용한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한국어 능력 진단 기준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국어 이해추론 능력을 경쟁할 수 있도록 과제를 다양화하고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훈련용 말뭉치(학습자료) 및 진단용 말뭉치(평가문제) 구축하여 적용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수시로 자신의 시스템을 검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국어 능력 상시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말뭉치상의 오류를 상시로 점검·정비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고(연 2회), 말뭉치 형식 및 기본 정보 정의·자료 간 연계 방안 연구와 말뭉치 만족도 조사(연 1회)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어자원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언어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산·학 협업 체계 구축하고 연구·발굴→구축·배포→현장 활용의 환류 체계 유관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과의 정보 공유 및 개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2022년 3월 14일~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국제한자특별위원회 회의(IRG: 제58차)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진행하는 회의(일정 미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은 이 활동을 통해 문자 코드 및 한자 등의 언어자원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상의 한국 한자 중 국제문자세트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한자를 대상으로 표준화[수직확장(신규 문자코드 할당), 수평확장(기존 문자코드에 한국 출처 정보 및 글꼴 등록)]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서 옛 문헌 등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 한자가 컴퓨터상에서 원활하게 표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다양한 언어현실을 반영한 국어정책 기반자료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다변화된 언어 환경에 따른 어문규범 정비 및 다양한 국어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국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국내의 국어정책 통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자원 통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어문규범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통하여 어문규범의 현실성을 강화해야 하는바, 국립국어원은 국어규범정비위원회를 지속 운영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비문법적 쓰임이나 비표준적 표기들에 대한 표준성 인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의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문규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문규범 정보 보급 및 관리, 어문규범 개선 내용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어 정책 관련 자료를 총괄하여 제공하는 ‘국어 정책 자료’ 누리집을 통해 국어 관련 자료를 상시 구축하면서, 자료의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어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관련하여, 기초어휘는 일상적 언어생활에 꼭 필요한 어휘로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 범위가 넓으며 다른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어휘를 말한다. 기초어휘는 한국어 어휘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면서 국어능력 진단이나 공문서 어휘의 적합성 평가, 사전 편찬, 교육 수준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기초어휘는 한국어 어휘 사용 양상을 잘 보여주는 대용량 언어자료를 기반으로 어휘 전문가와 해당 어휘 사용자의 정성적 평정 절차를 거쳐 최종 목록을 확정한다. 언어자료는 대표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연령별, 수준별, 분야별 어휘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분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초어휘에 대한 전문가와 사용자의 어휘 평정을 통해 말뭉치를 활용한 정량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는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2021년까지 2단계 과정을 마무리하였고 2023년까지 3단계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2~3등급 어휘 목록을 구축하기 위해 객관적 어휘 평정 방법론을 보완하고 지침을 정교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말뭉치 분석과 전문가사용자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2~3등급 기초어휘 목록을 제시한다. 또한 연령별, 학령별 기초어휘 목록 분류를 위한

발달 단계별 언어 자료와 말뭉치의 균형성 확보를 위해 문어구어 자료 비율 및 시대별 언어 자료를 보완하여 기초어휘 목록의 타당성을 높일 예정이다.

<표 5-1> 국어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단계별 추진 내용

1단계 <기초 연구>	• 기초어휘 선정 기초 연구	
	어휘 사용 실태 분석 방법론 수립	기초어휘 선정 및 등급화 방법론 수립
2단계 <조사 및 분석>	• 기초어휘 선정 및 등급화를 위한 언어자료 구축	
	적정 규모의 균형말뭉치 구축	기초어휘 예비목록 추출 및 빈도 분석
3단계 <선정 및 등급화>	•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전문가와 사용자 어휘 평정 실시	전체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4단계 <활용>	• 어휘 목록 검색 시스템 구축운영	
	국민의 어휘 능력 진단 도구로 활용	시험, 평가, 집필 등 분야별 적정 수준의 어휘 활용

3. 이용자 수요에 맞는 국어사전 기능 강화와 언어자원 구축

국립국어원은 2016년 10월 개방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의 개통 이후로 『표준국어대사전』 과 함께 두 가지 국어사전을 운영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은 현행 어문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 언어생활의 지침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우리말샘』 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사전이라는 목표로 우리말 언어자원을 집대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두 개의 사전이 공존하는 가운데 앞으로 『표준국어대사전』 과 『우리말샘』이 더욱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두 사전이 언어 환경과 사용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차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2008년 개정 이후 보완·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표준국어대사전』을 언어생활의 기준으로서의 사전 기능을 강화하고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존의 종합 사전적인 성격은 약화하고 규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모 및 내용을 조정하고, 뜻풀이나 용례 등을 언어 현실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보완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진행되었던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규범성과 현실 언어의 조화를 이룬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표제어 선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의 표제어(약 42만 개)를 전수 검토하여 표제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어휘를 선별하고, 새롭게 등재가 필요한 어휘는 발굴하여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이 지녀야 할 규범적 성격이 언중의 실제 언어생활에 쉽고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어휘에 대해서는 친절한 규범 정보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자국어 사전의 편찬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 사전 운영의 장기적 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은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체되고 풍부한 실용적 국어 지식을 전달하는 사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2022년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우리말 자원의 통합 구축, 사용자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우리말샘』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운영, 이용자 등록 자료에 대한 감수 및 정비 사업 역시 계속 진행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말샘』은 대량의 언어자료를 집대성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지식 관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제2절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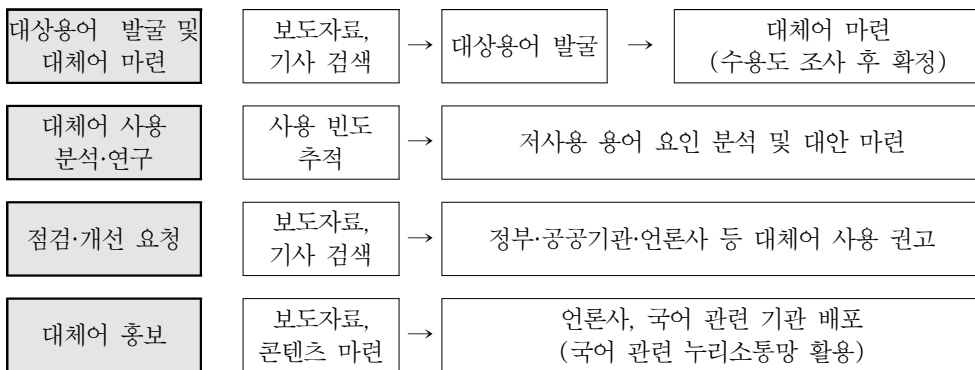
1.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생활 속 언어문화 기반 조성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등에서 외국어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어려운 외국어 사용으로 인한 소통 장애로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국어문화원연합회 조사 결과, 언론사(신문, 방송 20개사) 1,933,484건의 기사 제목 중 145,147건(7.5%)에서 어려운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 등 공공영역에서의 어려운 외국어 사용 개선 체계 마련으로 난해한 용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국민 생활 속 공공언어 개선 지원을 위해 국민이 자주 접하는 정책용어, 신문·방송 용어를 대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쉬운 대체어를 마련하는 외국어 새말의 대체어 제공 체계·구축을 운영할 예정이다.

<표 5-2>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추진 절차도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서는 각종 법령에 있는 어려운 용어(한자어, 일본어투 용어, 전문용어)를 발굴하여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법령 제·개정 시 어려운 용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 공공언어 종합 평가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다량의 외국어 전문용어 유입으로 부처·기관별 전문용어 정보를 제각각 구축·보급하여 분야별 전문용어 사용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보 소외층이 발생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2020) 결과, 우리 국민의 89%는 신문·방송에서 나오는 말[전문용어(53.3%) > 어려운 한자어(46.3%) > 신조어(43.1%)]의 의미를 몰라 곤란을 경험하고 있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쉽고 바른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공공언어에 어려운 외국어나 한자어가 남용되거나 어렵고 권위적인 문장이 사용된다면,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소통이 어렵게 되고 국민이 공공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다.

「국어기본법(2021.6.15)」과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2021.12.16.)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평가가 의무화되었다. 즉,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한류 등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에 따라 한국어 ⇄ 외국어 번역 소통이 필요 대상과 언어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이 국민 중심의 쉽고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감수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 언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용어 번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번역 대상 언어를 확대 보급하여 우리 문화를 세계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공공언어 평가와 관련하여 공공언어 개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2022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23년부터 모든 공공기관(2,300개 이상)의 공문서 등 사용 실태를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광역, 기초, 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으로 평가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자료는 보도자료, 누리집 첫 화면, 업무계획 보고자료 등이며, 자료에 특성에 맞게 용이성과 정확성을 평가한다.

공공용어 번역 기반을 다지고 번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용어 표준 번역안을 마련하고 번역 대상을 현행 지명, 문화재명, 정거장명, 음식명 등에서 2022년부터는 행정, 지명, 역사, 교통, 관광지, 문화 등 우리 문물 용어 전반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3. 디지털 시대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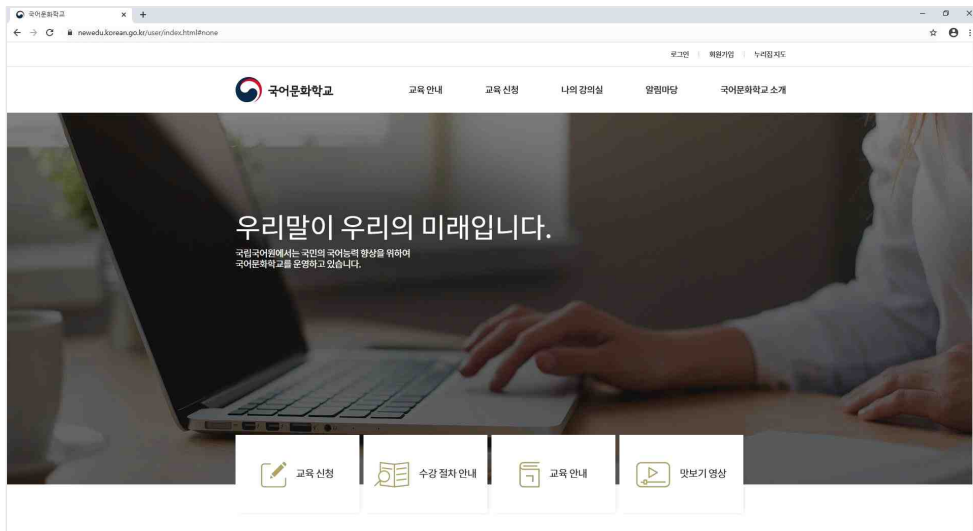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국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은 디지털 환경을 통한 국어 상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어생활 종합상담실은 전화로 국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가나다전화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온라인 가나다, 누리소통망서비스(카카오톡)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우리말365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에도 상담원 연찬회 등을 통해 상담 내용의 전문화에 힘쓰는 한편, 축적된 상담 자료 분석을 통해 국민의 국어 생활 속 관심사와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어문규범 개선, 공공언어 정비, 표준국어대사전 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상담원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심리 상담도 1인당 연 6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는 원내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원내 국어문화학교는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어 전문 교육과정(4일 과정, 연 10회 600명 내외), 분야별 특별과정(1~2일 과정, 연 15회 670명 내외), 교사 직무연수과정(5일 과정, 연 3회) 을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로 지역 및 기관 수요자의 교육 편의를 도모한다. 지역의 국어문화원과 연계하여 연 200회 교육을 실시하며 올바른 언어문화 확산에 영향력이 큰 언론계·교육계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10회 이상)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는 어문규범, 언어예절, 화법, 독서, 공공언어

등 28개 강좌를 운영 중이다. 일반 국민의 콘텐츠 접근성 향상과 온오프라인 교육 통합 관리를 위해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일반인이 흥미롭게 접근하고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어교육 콘텐츠 제작도 추진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꼭꼭 국어교실」 및 「청소년 꿈티」,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국어문화 프로그램」도 지속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23년 국어능력실태조사 추진에 앞서 기초연구를 추진하여 질문 문항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림 5-1]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제3절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1.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언어 복지 환경 조성

국립국어원은 세대 간 디지털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언어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무인 판매기, 무인 안내기 등에 사용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디지털 매체에 담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관공서, 병원, 은행, 공항, 버스터미널 등 공공성이 짙은 장소와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소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어려운 용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권장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수어와 점자로 대표되는 특수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약 6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020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395,789명, 시각장애인 252,324명). 한국수어와 점자는 한국어나 한글과는 다른 별도의 언어 및 문자 체계로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언어의 장벽 없이 누구와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어와 점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언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을 근거로 수어와 점자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해 왔다. 2013년에는 ‘수어’가 독립된 언어임을 강조하고자 정책 용어를 ‘수화’에서 ‘수어’로 바꾸었고,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2017년 ‘점자법’이 제정되어 사용자 중심의 언어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 수어 연구와 교육, 수어 정보화, 공공영역 수어 통역 서비스, 점자 정보화 및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 의약품 정보 점자 제공 등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법정 의무가 명시되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법적 토대 위에 수어 말뭉치 구축, 한수-수한 사전 편찬, 수어 능력 검정 시험 및 수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시행, 점자 말뭉치 구축, 점역·역점역 프로그램 개발, 점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수어와 점자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언어환경 조성 과 수어와 점자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이 확대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를 줄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지식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에 따라 2017년에는 ‘제1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2018년에는 ‘제1차 점자 발전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바, 2022년에 수립·발표한 ‘2022 한국수어 발전 시행계획’과 ‘2022년 점자 발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표 5-3> 2022년 한국수어 발전 시행계획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추진 사업
1. 한국수어 능력 향상 및 보급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및 운영	- 한국수어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양성, 교재 개발, 홍보 등 다양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추진 - 공모와 심사를 통해 한국수어교육원 및 한국수어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 지원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의위원회 운영(4회)
2.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한국수어 검정시험 기반 마련 및 시행	- 제2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8월)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기초 연구 심화 및 시범 운영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협력망 강화	-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11월) - 한국어수어 정책 자문 위원회 개최
3.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한국수어사전 정비 및 구축	- 기존 『한국수어사전』 운영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500개 분량 집필)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고도화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1백만 어절)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 한국수어 원시 말뭉치 2개 지역 이상 구축 - 한국수어 주석 말뭉치 100분 이상 분량 구축 - 한국수어 말뭉치 저작권 해결 및 구축 자료 대국민 공개 방안 수립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추진 사업
	공공수어 통역 지원 및 품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 발표 등에 수어통역 제공 및 품질 관리 - 정부 주요 발표 영상 사후 통역 영상 제작 - 통역 품질 향상을 위한 통역사 연수회 개최(8월) - 시사 수어 용어에 대한 수어 풀이 영상 제작
4. 한국수어 교류 활성화 및 홍보 확산	한국수어 홍보 기반 조성	- 농아인의 날 지역 축제 등 계기 한국수어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지원

<표 5-4> 2022년 점자 발전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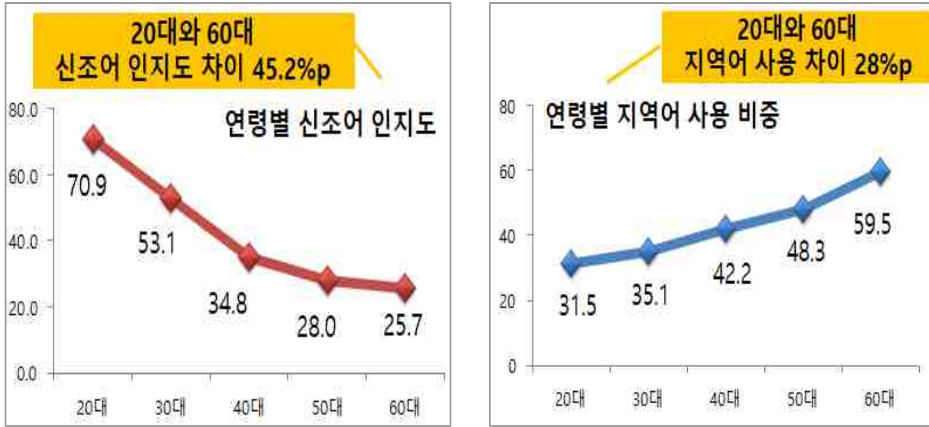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추진 사업
1. 점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점자 규범 정비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규범 연구 및 정비 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 - 점자자료 점역·감수 지침 연구 - 「한국점자규정」 상담 창구 운영
	점자 전문 인력 양성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 내 점역·교정 업무 관련 전문 인력의 인사관리 개선 방안 검토(인사혁신처) - 점역·교정 업무 종사자의 실무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연수회 개최 지원
	점자 전문가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점자정책 자문위원회’(가칭) 구성(하반기) - 점자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점자정책 연찬회’ 개최(11월) - 점자 진흥을 위한 조례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시행
2. 점자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	점자 사용 실태 조사	- 점자 사용 능력 및 인식 관련 실태 조사
	점자 교육자료 연구 개발	- 점자 연구를 위한 국외 점자 자료 번역서 발간(3종)
	교과용 도서의 점자 제작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를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적기 보급 추진(18년 472책, 4,466부 제작) (교육부) - 점자 교과용 도서 품질 제고를 위한 원가 구조 검토, 단가 적용 유형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 촉각 훈련 교재 및 워크북, 중학교(국어, 영어) 읽기·쓰기 점자 교재 및 워크북 등 개발
3.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	점자 출판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출판 교육,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지역 소재 점자 출판 시설 지원(5개소 이상) - 점자 출판 시설 종사자의 점역·교정 및 점자 출판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점역·교정사의 전문성 함양과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정보 접근을 위한 전문도서 점역본 제작 지원 - 점자 인식 개선과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점자 자료 제작·보급 사업 지원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추진 사업
	정보화 기반 점자 자료 보급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정보 통합 관리와 점자교류 활성화를 위한 점자종합정보 누리집 운영 -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개발 - 인공지능 기반 점역 성능 향상을 위한 목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점자 인식 개선 및 점자문화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의 날(11. 4) 기념행사 개최 지원(장관 표창 수여, 정책 세미나 개최 등) - 점자 및 점자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자료 제작 및 누리집 탑재 - 시각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다양한 점자 자료 제작 추진(지자체)

2. 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국립국어원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어를 보존하기 위해 전국 시군 단위의 지역어 조사를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하고, 그동안 축적한 지역어 정보 약 23만여 항목을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멸 위기의 지역어 조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통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표준어 중심의 언어생활을 하면서 세대별, 지역별 언어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신조어에 대한 인지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지역어 사용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조어에 대한 20대의 인지도는 70.9%인데 반해 60대의 인지도는 25.7%여서, 두 세대 간의 신조어 인지도 차이는 45.2%p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의 지역어 사용 비중은 31.5%인데 반해 60대의 지역어 사용 비중은 59.5%로, 20대와 60대 간의 지역어 사용 비중은 28%p 차이를 보였다.



[그림 5-2] 세대별 언어 차이(신조어 인지도, 지역어 사용 비중)

이에 국립국어원은 한국 언어문화 다양성을 지역별·세대별·성별에 따라 균형적·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에는 2021년 시범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질문지, 조사·전사·정비 지침을 보완하고 성별 변인을 추가하여 본격적으로 언어 다양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들은 한국어의 다양성 실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언어문화 자료 저장소(아카이브)로 구축되어 지역 언어문화 보존의 기초 자료 및 인공지능 개발 언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 언어 소통 기반 마련

남북 분단이 장기화되어 언어 이질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북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은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말 말뭉치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함께 2015년부터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 연구도 추진해 왔다.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의 비교 결과, 일반어 35%, 전문어 66%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 방안’, 겨레말큰사전편찬회, 2016). 이 결과를 북한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 실제 쓰임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으며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에는 지금까지 구축한 북한어 말뭉치를 이용해 실제 북한어의 쓰임을 분석하고 국어사전의 북한어 정보 보완, 정비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자료를 확대하여 구축함으로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4절 한국어 생태계 확장

1. 한국어 교육기반 현지화 및 시장 확대

한국어 교육 시장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목적별, 학습자별, 지역별로 다변화되는 학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지화를 넘어, 개별 학습자의 특수성까지 섬세하게 고려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확산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만, 국내외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잠재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 또한 한국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 교육기술 산업 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교육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의 다각화는 한국어 교육 시장에도 접목되어야 할 변화이다. 해외 한류 동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수업도 속속 개설되고 있다. 지속적인 한류의 확산과 이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은,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부처별 대응 방식을 넘어서는 선제적 국가 정책의 추진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은 교육기반의 현지화를 통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을 포함한 기관 간 협력의 활성화를 꾀하여 한국어 교육 시장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현지화로 지속 가능한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지속한다. 한국어 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을 현지화하고 11개어 한-외 학습사전의 해외 주요 포털 확산 적용을 지원하여, 한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사전의 국외 보급을 확대한다. 둘째, 한국어 교육 기반 확대를 위하여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한다. 학습자 말뭉치는 다양한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을 연구하고,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 자원이다. 국어원은 한국어 교육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언어권별·수준별·자료 유형별 ‘균형성’을 확보한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총 1,000만 어절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교육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구축도 계획 중이다. 구어 학습 등을 위한 쌍방향 콘텐츠와 교수 지원 도구를 개발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앱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표 5-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2차 중장기계획(2021~2025)

구분	기초 연구	구축 1단계		구축 2단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동 구축	대규모 구축(국내 + 이주민 + 국외)				
기획 구축	대상의 초점화 (학문 목적 학습자)				
		언어권별 균형성 확보 (5개 주요 언어권)			
				매체·장르의 초점화 (비디오 말뭉치)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의 구심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어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한국어교재협의회를 통하여 유관 기관의 협력을 꾀하고, 국내외 언어 정책 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교육 기준과 내용의 국제 통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과정·교재에 대한 자문·감수 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외적 노력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정책 환류 또한 강화될 것이다. 민관 공동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어원-한국어 교육 학회 간 ‘한국어 교육 정책 포럼’ 운영으로 민관 공동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2. 국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내실화

국의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표 기관으로 자리잡은 세종학당은 2007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성장을 거듭하여 2021년 전 세계 82개국에서 23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드라마,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한국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학당이 진출하지 않은

국가/지역 진출 기초를 유지하고, 수강 대기자 정체 지역 및 한국어 수요 급증 지역 등에 세종학당 신규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재외공관, 장학사업에 관심있는 단체 등과의 협업모델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내외 우수대학이 세종학당 운영에 참여하도록 지원금 상향 등 다양한 유인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세종학당 지정 확대와 더불어 현지에서 수급이 어려운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내에서 선발하여 파견하는 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270명의 교원을 파견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전 세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파견교원 출국 적극 지원을 통해 세종학당 현지 교육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하고, 교원연수센터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한국어교원 온·오프라인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외국인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교원 특화 재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육 수요 급증 또는 교원 파견이 어려운 지역에는 현지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현지 교원의 한국어교육 관련 학위 취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국어와 더불어 전 세계 한류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세종문화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전 세계 한국문화 수요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문화전문가 인력풀 등을 확대하여 한식, 한복, 케이팝, 케이뷰티,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문화 이론과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연수 등 행사를 통해서도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 기반도 함께 다져나갈 계획이다. 누리 세종학당과 온라인 세종학당 등 온라인 학습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기 개발된 모바일 학습 앱의 접근성 향상 등 기능개선과 유지보수도 강화하며,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 학습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사이버 한국어 고급 교육과정 및 실생활 표현, 생활 문화 관련 외국인들의 접근이 편리한 모바일 기반 콘텐츠도 개발하여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 콘텐츠의 다국어화를 통해 학습 진입 장벽을 낮추며, 숙달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가 운영체계를 고도화하여 본격 시행에 대비할 예정이다. 기개발한 통번역과정 표준

모형을 기반으로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세종학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언어권별 통번역과정 교재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아울러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를 조성하여 해외 소재 외국인 학습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강화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2006년 868명에서 시작하여 2021년 현재 누적 취득자가 66,792명을 넘어섰다. 한국어교원의 자격 부여를 위하여 2022년에도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3회),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2회)를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kteacher.korean.go.kr)’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모바일에서도 자격 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종이 서류로 접수하였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심사 신청 서류를 행정안전부의 전자증명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파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한다. 또한 2021년 진행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을 주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교원의 경력에 따른 성장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선정하며, 국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을 인증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배움이음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외 현지 맞춤형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는 집합 연수와 실시간 화상 연수를 동시에 진행하여 대학 언어교육원 소속 교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교원,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 교원 및 교육과정 담당 정교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한국어 지도사를 대상으로 대상 교원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는 재외공관의 추천을 받은 연구자 및 국내 각 지역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제5절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1. 한글문화 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전시교육 강화

2014년 개관 이후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창제 시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15세기 언해 자료에서부터 해방 이전의 한글 보급 교재, 근현대 한글 생활사 자료 등 한글문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수집·조사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글 창제 전후의 지정문화재급 한글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박물관 상설전시 개편 및 기획전시에 소개될 국내외 주요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이와 함께 언해 자료, 한글 고소설 및 고문서, 개화기 어문 자료, 훈민정음 창제 관련 언어·문자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한글 자료를 기획 수집할 계획이다.

2021년 고도화하여 새롭게 선보인 한글문화자원 포털 '디지털한글박물관'의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한글자료 공개를 위하여 한글문화자원 수집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주요 소장자료의 수집과 정보 공유의 선순환을 위한 원문의 전문(全文) 공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노랫말의 한글 문화적 특징을 발굴 및 소개하는 <과란 마음 하얀 마음, 어린이 노래>(5월)와 한글 자료의 특성과 의미를 디자인적으로 풀어낸 <제4회 한글실험프로젝트>(10월)를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국내·외 순회전으로는 한글의 철학과 조형적 특징을 주제로 한 디자인 작품을 소개한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형태의 전환>이 인천국제공항(3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6월), 주형가리한국문화원(10월)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여성들의 대표적인 한글 문학 장르인 내방가사를 다룬 <이내말삼 드러보소, 내방가사>(5월)와 온양민속박물관에서 <과란 마음 하얀 마음 어린이 노래>(10월)의 지역순회전도 준비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다채로운 한글 전시를 풍성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7년간 유지되어온 상설전시실을 전면 개편하여 2022년 1월부터 관람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최신 기술의 전시 기법 적용과 훈민정음 서문의 문장들을 통해 한글의 역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유익한 전시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 친화적인 한글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2022년 국립한글박물관은 국내외 한글문화 가치 확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체험형 한글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대상별·주제별 교육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통해 한글문화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외 전시 연계를 통한 외국인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독창적이면서 관객 친화적 디지털 체험 전시관인 ‘한글놀이터’를 통해 한글의 특징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한글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문화의 우수성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한글문화를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화요 한글문화 강좌’는 예년에 비해 대중성이 높은 주제로 엄선하여 한글과 한국의 문자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요, 패션, 음식 등 다채로운 분야속에서 활용되는 한글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표 5-6> 국립한글박물관 대중강연회 ‘화요 한글문화 강좌’ 개최 계획(2022년)

회차	일자	강연 주제
1	3. 29.	내방가사로 한글을 지킨 여성들 : 내방가사 속 방언, 고어 재미있는 표현 중심
2	4. 19.	글자만 바뀌도 돈이 된다? : 돈이 되는 상품 언어의 세계
3	5. 17.	우리들 마음에 동심이 있다면 : 동요와 함께 하는 한글 이야기
4	6. 21.	패션 한류의 중심, BTS가 선택한 한복 정장 : 21세기 한복으로 한글, 문화를 알리다
5	7. 19.	한글로 세계를 바라보다 : 최초의 한글 세계지리서 『사민필지』
6	8. 16.	한글에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 : 한글 창제원리와 음양오행설의 이해
7	9. 20.	옛날에는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즐겼을까? : 옛 한글 자료와 음식
8	10. 18.	‘치맥, 떡방, 대박’이 옥스퍼드 사전에 실려 있다? : 세계가 인정한 한국 관련 단어
9	11. 15.	‘쓴다’와 ‘그린다’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다 : 발랄한 글자 산수화
10	12. 20.	샤넬의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한 한글 트위드 재킷! 한글박물관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한글 및 한글문화와 관련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독창적이면서 관객 친화적인 디지털 체험 전시관인 ‘한글놀이터’를 확대 운영하고, 한글의 특징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한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문화의 우수성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2. 한글문화 산업 육성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의 다양한 산업적 측면을 개발·지원하여 한글의 산업화 촉진하고, 기존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아이디어 발굴, 상품화, 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한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우수 한글문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왔으며, 2022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이 3억에서 18억으로 확대되면서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 명칭을 ‘한글 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우수 한글문화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한글 산업 육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7> 한글사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변경 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명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한글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목적	한글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한글 소개 문화상품 발굴개발지원 및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치 제고	한글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한글 소개 문화상품 발굴개발지원 및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치 제고	기존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아이디어 발굴, 상품화, 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인 지원 추진
사업내용	1. 한글 창의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2. 우수 한글 문화상품 개발	1. 한글 창의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2. 우수 한글 문화상품 개발	1. 한글 창의 산업아이디어 공모전 2. 한글 원천 콘텐츠 개발 지원 3. 한글산업 해외진출 및 교류 지원 4. 한글·한국어산업전시 개최
예산	3억원	3억원	18억원

3. 세계 문자 전시 교육 기능 강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7년 국제 설계 공모 등 건축공사 착수를 위한 기본 절차를 수행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사업 일정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 건축 및 전시 공사 등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여, 세계 문자와 관련한 전시, 연구 및 국제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모안을 토대로 2019년 실시 설계 완료·착공(11월)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건립 공사를 진행하여 2021년 12월에 「전시체험 설계 및 제작설치」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2년에 건립 공사 준공 및 전시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관 이후에는 세계 문자를 통한 ‘소통’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 상설 전시 및 특별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세계 주요 문자 유물을 조사·수집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세계 문자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2021)

인쇄일 | 2022년 8월

발행일 | 2022년 8월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전화 | (044)203-2533

전송 | (044)203-3467

www.mcst.go.kr

인쇄처 | 계문사 (044)868-7451
